건축사 526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3 02
1966년 창간

칼 럼 건축 그리고 건축사가 사는 법

에세이 구보 씨, 건축사로서 살아남기

제 꿈이 누군가의 고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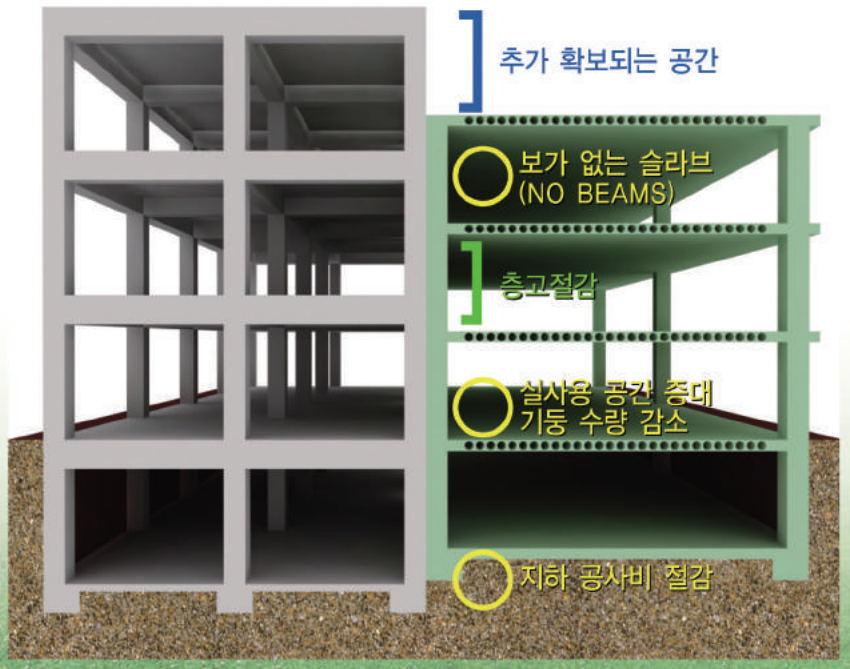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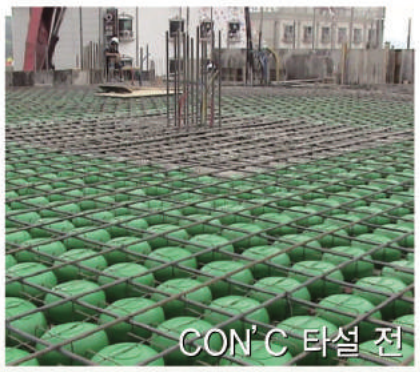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테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www.sypanel.com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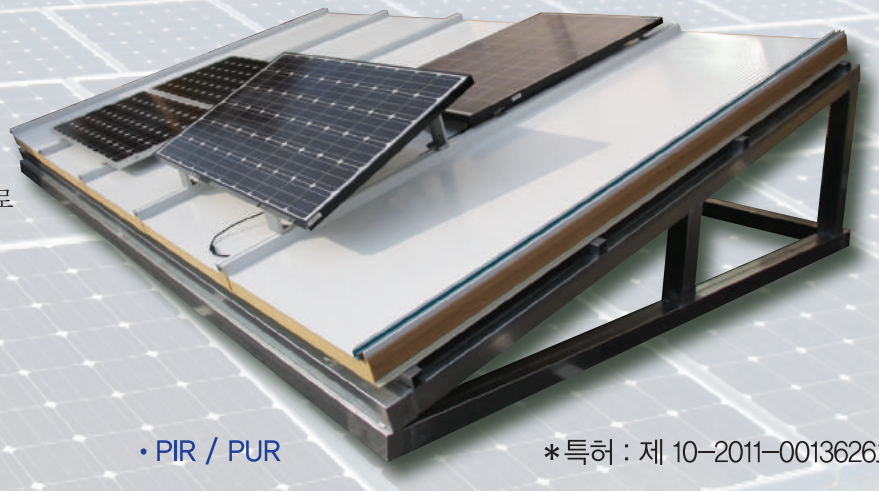
*특허 : 제 10-2011-0139926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특허 : 제 10-2011-0013626호

에스와이패널(주)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인주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37 Tel. 041) 534-8484~5 / Fax. 041) 534-8487
논산공장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226-3 Tel. 041) 742-8486~7 / Fax. 041) 742-8483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MFC-J6710DW
01/Jun/201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www.wilmat.kr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매트

윌매트

Wilmat
신개념 출입구 매트

윌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써 외부의 오염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시스템. 윌매트는 국내 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출입구매트.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Luxury Entrance Matting System

시공실적

국립생태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국회의원회관, 월드건설 사옥,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3빌딩, 현대기아마북연구소, 한진중공업 필리핀메인오피스,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옥, 김포롯데몰, 제주보광휘닉스 아일랜드,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판교LIG넥스원R&D센터, 송도 포스코건설사옥, 삼성전자기흥연구동, 신도림대성디큐브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랜드사옥,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의료원, 전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천안단국대치대병원, 아시아나 기내식센터, 전국 초·중·고교 시설환경개선공사, 두산위브더제니스, 제주대학교, 휘닉스스프링스CC, 휘슬링락CC, 프리마호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하이프라자, LG패션, 금강제화, 제일모직, 나이키 전국매장, 유니클로, 아디다스, KT지사등

국회의원회관

삼성그린투모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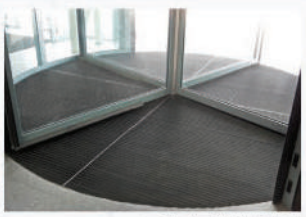
아시아나캐터링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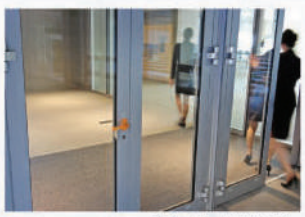
신촌세브란스재활병원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 신촌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현대기아마북연구소

송도포스코 R&D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02-786-7115 / Fax: 02-784-2011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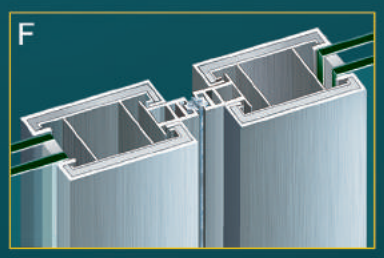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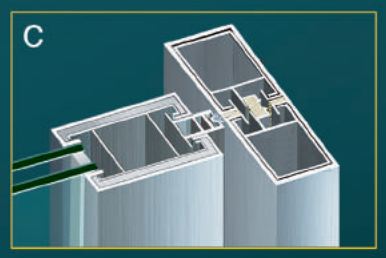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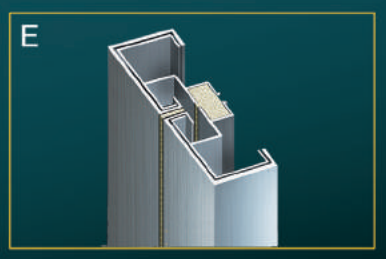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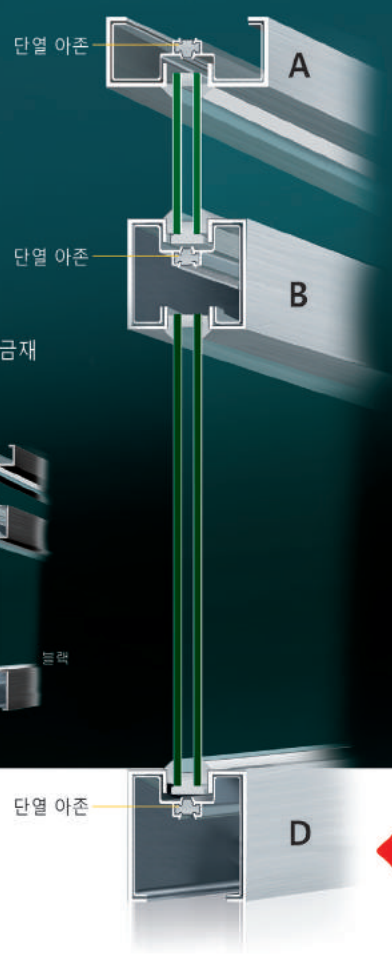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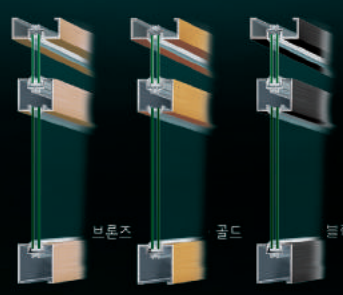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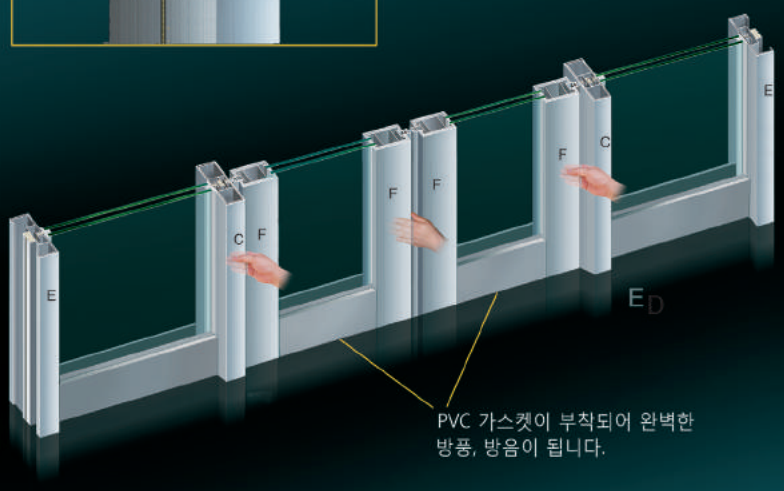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옵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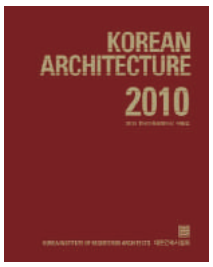
• 전국 영업망 구축 •

「KOREAN ARCHITECTURE 2009, 2010, 2011」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도서 구매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축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건축도서를 발간하여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KOREAN ARCHITECTURE」시리즈,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등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URE 201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수록
면수: 376여쪽
4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 「KOREAN ARCHITECTURE 2010」&「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7)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냉·난방비는 낮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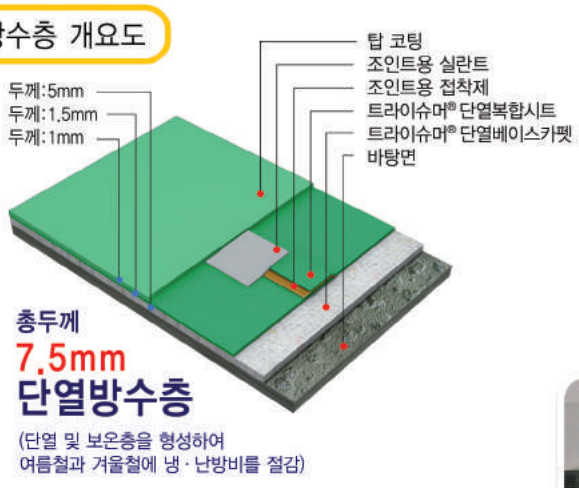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실내온도 3~5℃ ↓ 전기료 30~40% ↓ 냉방비 절감

겨울철 실내온도 3~5℃ ↑ 난방비 15~20% ↓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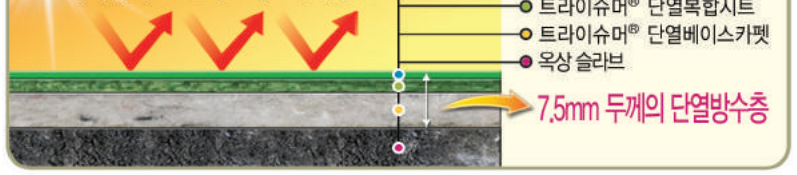
방수층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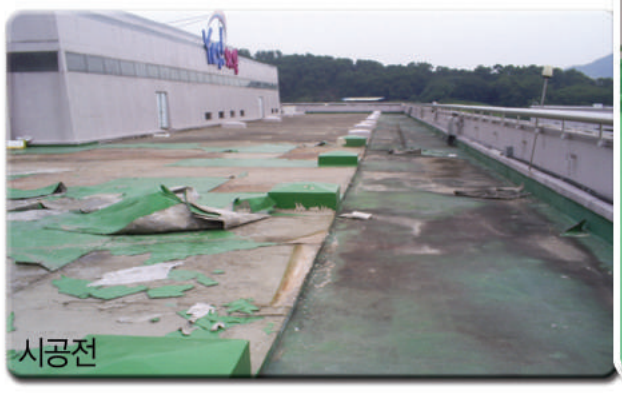
총두께 7.5mm 단열방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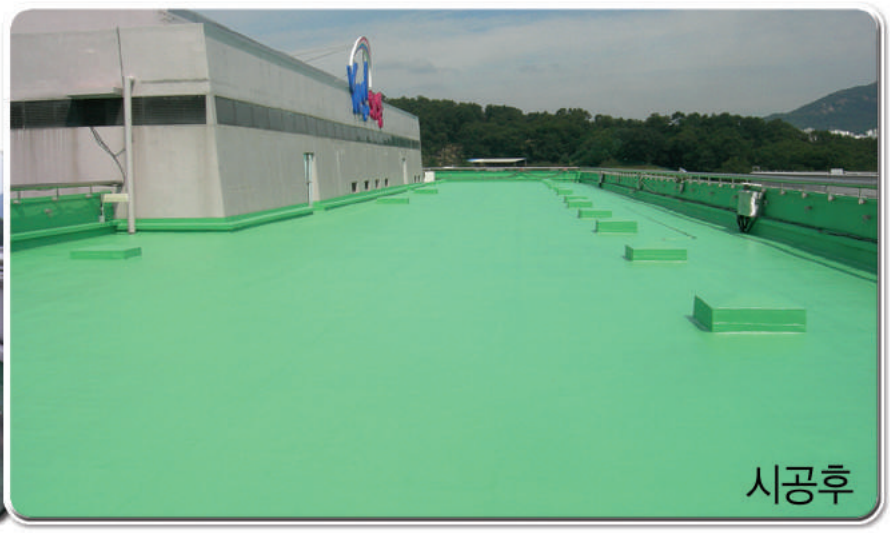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공법



건축재료의 열전도율


시공전


시공후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27번길 52 Tel : 032) 471-6020 FAX : 032) 467-1904

건축 그리고 건축사가 사는 법

Architect and practising architecture

조충기 | 편집인 겸 편집국장

건축,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건축사,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이어야 한다.
최소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는 알려야 할 것 아닌가?

건축이 죽었다. 건축을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국민은 아니다! '건축사'라는 건축전문직을 아는 일반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물어보라. 지금 마주앉아 있는 나(건축사)를 무어라 호칭하고 주위사람들에게 무어라고 소개하는지 말이다. 기껏 '설계사'라고 부르는 것도 건축사들 스스로가 '건축설계사무소'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응대하는 것이리라. 그것도 모자라 어느 지방에서는 건축사자격증도 없는 사무장(실장)출신을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라 부른다. 건축사는 그냥 '소장'이다. 이런 배경에는 '건축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거나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건축'과 '건설'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비춰진 건축사, 소위 '설계사'는 너무 쉽게 계획도면을 그려올 뿐 아니라 불법 시공할 수 있는 도면도 작성해주고, 무책임한 건설업자 앞잡이로 건축주 눈도 속이고, 배타주의에 편승하여 동업자도 외면하고, 건축관계법 속에 안주하는 등의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모른다.

건축사,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이어야 한다.
건축사가 '설계사'이고, 정부의 면허를 받아 '허가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서는 곤란하다. 변화를 이끌지 않고 건축사법에 안주하여 그저 도면이나 그리고 허가를 받아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건축'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건축'이라고 한다면 이미 '건축사'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다. 건축주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최초상담자? 설계면적? 공사면적? 공간의 가치? 도시성? 사회공공성? 설계비? 건축비용? 허가부터 준공까지의 절차? 에너지 절약? 녹색건축? 월세? 투자대비 이익? 정부세제 혜택? 저리 융자? 자산가치? 도면과 다른 시공? 도면에 의한 재료제품의 시방에 따른 올바른 시공 감리? 허가 잘 내는 것? – 등등 계획에서 사용까지 원톱서비스 아니겠는가? 그 중에 최고 관심은 '공사비가 얼마인가?' 일 텐데 능력 밖으로 치부된다. 관심은 '허가연면적'이고, 그 다음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책임진다고 믿는 '감리'이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다. 모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자. '건축사'가 작성한 '허가도면'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료명도, 제품명도, 색깔도, 표면처리도, 기구명도, 디테일도, 시방도 없는 그 허름하기 짝이 없는 도면으로 무슨 공사비를 추출할 것이며, 무슨 감리를 할 것인가? 건축법의 취지는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매달린 허가(신고)도면으로 건축주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것은 건축사가, 건축사협회가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건축,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이 모르면 이끌어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홍보, 외부로 향해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만드는 월간 '건축사'지는 매 분기, 아니 계간으로라도 만들어 국민이 '건축사'지를 보고 건축을 이해하고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는 알려야 할 것 아닌가?

구보 씨, 건축사로서 살아남기

Mr.Gubo, the architects' survival

구만열 | (주)건축사사무소 한녹

잔설로 얼어붙은 양재천 바닥 길을 걷고 있다. 찬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치고 지나간다. 몇 달 전 손위 동서가 돌아 가셨다. 건강하셨지만 약간 비만이셨다. 느닷없이 다가온 일이었다. 폐혈증이었다. 그래서 삶은 알 수 없나 보다.

공간건축이 부도났다는 소식이 뉴스로 날아든다. 직접적으로 설계비 수금이 잘되지 않았고 또한 공공발주위주의 수주로 다변화되지 않은 수주형태를 부도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붙여서 소식은 전한다. 우리나라의 대표 설계사무소이며 공간이란 잡지로 대표되는 문화의 아이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슴 먹먹하다. 세상이 참으로 무자비하구나!

구보 씨는 최근에 해외에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설계를 디자인 앤드 빌드 방식으로 하는 국제 현상을 했다. 맨 파워가 부족하여 다른 팀과 협력하여 설계 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어에 대한 능력 부족과 설계 조직 맨파워 부족이다. 그리고 건설관계자들의 설계자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환경이다.일을 진행 할 때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창조적인 작업이 되지 않고 자신감 부족에… 따라서 일의 효율도 떨어졌다. 우리의 설계환경은 다른 나라보다도 설계자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열악하다. 외국 설계사무소와 같이 일해 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결국 사무실이나 사람이나 생존은 생태환경 속에서의 일하는 사람과 조직의 능력과 효율에 좌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턴키를 되도록 지양하고 심의내용을 완전히 오픈한다는 뉴스가 건축사신문에 나와 참으로 잘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선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턴키제도는 행정과 건설회사중심의 틀을 위주로 하여 일부 대형 설계회사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새로이 시작하는 건축사에겐 역으로 깨기 어려운 유리천장이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것이 설계환경의 틀이다. 틀은 제도다.

승효상 님의 책제목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왜 오래된 것은 아름다울까?

아마도 긴 시간 겪어낸 내재적 힘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영화 속 대사가 머리에 맴돈다. 건축사로서 내적힘이란 건설의 밑그림을 만드는 틀 짜기가 아닐까? 건축설계는 건축 관련 모든 프로젝트의 기본이고 틀이다. 건축사는 이 틀을 짜는 작가이고 진행을 주도하는 감독이다. 자본의 힘과 건설의 논리를 아우르는 재미있는 건축 설계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구보 씨는 수신하며 자중자애 할 일이다. 자신의 자존감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신의 일을 존중부터 하여야 남이 나를 존중하여 줄 것이다. 계획 설계, 그냥 함부로 무료로 연탄재 차듯이 하지 말기부터 하자.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건축사님으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넣은 연하장을 받았다. 참으로 멋진 위안이 된다. 귀에 맴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생각난다. 제주도 깊고 푸른 밤.

행복하자. 우리 모두

필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제 꿈이 누군가의 고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Making and nurturing of Place, My dream and someone's home

조민성 | 대구청구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학원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다니던 거리, 너무나도 익숙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도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겠구나. 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 곳도 어른이 되어 타향살이를 한다면 그리워지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그리움과 추억을 한 발 더 발전시켜 그런 장소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진로를 결정하고 난 후 건축사가 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나 체험활동 등을 알아보았지만 '건축이란' 평소에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학교에서 진로탐색과정으로 '전공 학문과의 만남'과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공학문과의 만남에서는 건축토목공학 박사 두 분이 오셔서 대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에 중점을 둔 건축과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연구하는 건축공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인과의 만남에서는 한터겐 건축사사무소의 황종철 건축사께서 오셨습니다. 말씀들 가운데 건축에 대한 전망을 비춰주셨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비전이 밝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 주신 조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사람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급하게 산업화가 되어버린 한국은 이제 사람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높아만 가는 아파트에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배려 할 줄 아는 건축으로 트렌드가 바뀌면 전망은 충분히 밝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여름방학이 다가오던 중 건축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모두 지원서를 써 보았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지 캠프를 참가하는데 실패한 이후 내가 아직 기본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을 깨닫고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엑스포에서 열리는 건축문화제를 다녀왔는데, 모형 만들기나 가구 만들기와 같은 체험활동과 많은 전시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외로 대전 도시사진전에서 보게 된 한 장의 사진으로 생에 첫 건축적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대전의 풍경을 담은 대다수의 사진들과는 달리 유독 마음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골목과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진 곳의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인지 설명인지 모를 네글자 '동구 대동'. 이것만 가지고 무작정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전의 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스마트폰의 힘도 빌리고 택시아저씨의 도움도 받아 한 주택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쪽에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은 지 10분 쯤. 그 사진 속을 연상시키는 비슷한 그림들과 계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 길과 계단을 걸으니 삭막한 도시보다 사

필자는 대구 청구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나의 꿈 발표대회(건축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각종 건축행사에 참여하는 등 차세대 건축인으로서의 꿈을 향해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 된 공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
또한 건축주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함일 뿐이지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측정 할 수 없는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이나
저처럼 우연히 들려 그곳을 가슴속에 품은 것 그것이 바로 보존도 건축의 일부라는 생각입니다.

람 사는 냄새도 나고 왠지 모를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돌아가는 길에 발견 한 안타까운 공고문 한 장, 이 지역의 재개발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탁 막히고 얼어붙은 채 공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축, 건축의 사전적 정의는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설계하여 쌓아 올릴 때에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건설일 뿐 건축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있을 그 골목길, 처음 온 손님에게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반겨준 그 골목길,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도 건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 된 공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 또한 건축주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함일 뿐이지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측정 할 수 없는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이나 저처럼 우연히 들려 그곳을 가슴속에 품은 것 그것이 바로 보존도 건축의 일부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책에서 말하길 '공간과 장소의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요소의 유무이다. 공간은 객관적인 3차원이지만 장소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되는 그들만의 세상이다.'
과연 무분별한 건설로 인해 공간만 생겨나고 장소가 하나 둘 사라진다면 그것이 올바른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꿈은 바로 공간보다는 장소를 창조하는 건축사입니다.

대동 하늘동네(출처_대동주민센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H+ YANGJI HOSPITAL

건축주 | 김철수

설계자 | 권연하, 민영만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우림A&C

- 설계팀 : 정재영, 송인석, 유정경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참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주)대유엠이씨
  - 전기설비 : (주)다우티이씨
  - 토목설비 : 다산이엔지
  - 통신 : (주)다우티이씨
  - 소방설비 : 영설계엔지니어링

감리자 | 민영만

시공자 | (주)트래콘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207외 3필지

주요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대지면적(Site Area) | 1,730.1㎡

건축면적(Building Area) | 996.04㎡

연면적(Gross Floor Area) | 12,678.2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57%

용적률(Floor Area Ratio) | 349.72%

규모(Building Scope) | B6 – 7F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화강석 잔다듬, 로이복층유리, 알미늄 루버
내부마감_적벽돌, 열연강판(구로철판), 탄화목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11 ~ 2010. 11

공사기간 | 2010. 12. 1. ~ 2012. 9. 30.

Client | Kim, Cheol-su

Architect | Kwon, Yeon-ha / Min, Yeong-man

Project team | Jung, Jae-yeong / Song, In-seok / Yu, Jeong-kyeong

General Contractor | TRACON

Location | 10-207, Sillim-dong, Gwanak-gu, Seoul, Korea

Structure | S.R.C

Structural Engineer | CHARM Structural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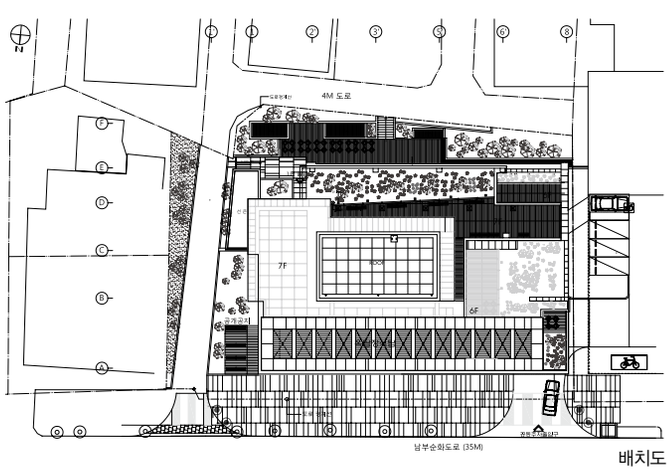
HVAC Engineer | DAEYOO MEC

Electrical Engineer | DAWOO TEC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Red brick, Hot-rolled plate, Carbonized wood
Exterior_ Granite, Low-E glass, AL.louver

Design period | 2009. 11~ 2010. 11.

Construction period | 2010. 12. 1. ~ 2012. 9. 30.



배치도

양지병원
양지종합병원
ER 응급실
60

정면 좌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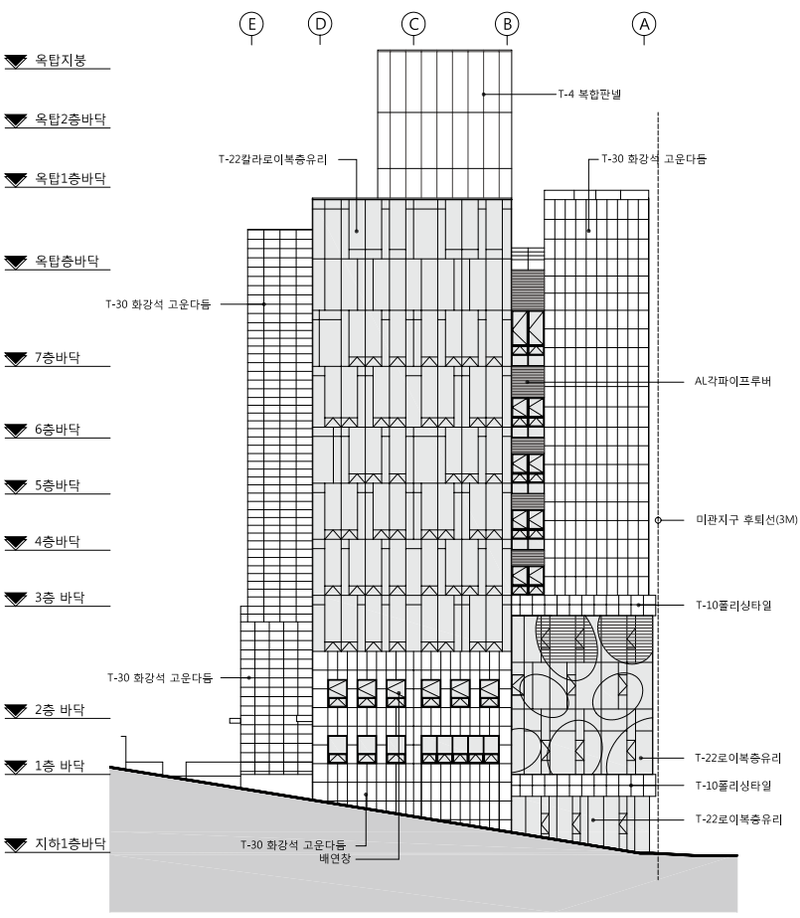
새로운 힐링공간

병원을 찾는 마음은 늘 무겁다. 몸이 아파서 또는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해서.
병원 같지 않은, 그러나 가장 병원다운 병원, 마음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공간, 고민의 출발점이었다.
형태와 공간계획에서 마감재 선정까지 관성을 거스르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했다.

메인접수홀은 레벨차와 향을 고려하여 남부순환로 반대편 위층에 배치하고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였다.
진료실과 처치실은 내주부에, 대기공간을 외주부에 배치하여 대기공간에서 남부순환로와 가로수,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을 위한 의료진의 배려다.
병동부는 중심코아에 면하여 순환형복도를 계획하고 병실을 배치하였다.
편복도 병실은 복도의 혼잡도를 낮추고 병실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쾌적한 치유공간을 제공한다.
폭 6.6m의 5인 병실을 기준 병상으로 하여 모든 병상의 치유환경을 최적화 했다.

'익숙함과 낯설음의 조화'

적벽돌, 열연강판(구로철판), 탄화목, 카펫타일 등 익숙한 듯 낯선 소재들로 색다른 치유공간을 계획했다.
조금은 낯선 그러나 이내 익숙해지는, 그래서 더 흥미로운 도심 속 힐링공간,
에이치 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을 찾는 마음들이 한결 가벼워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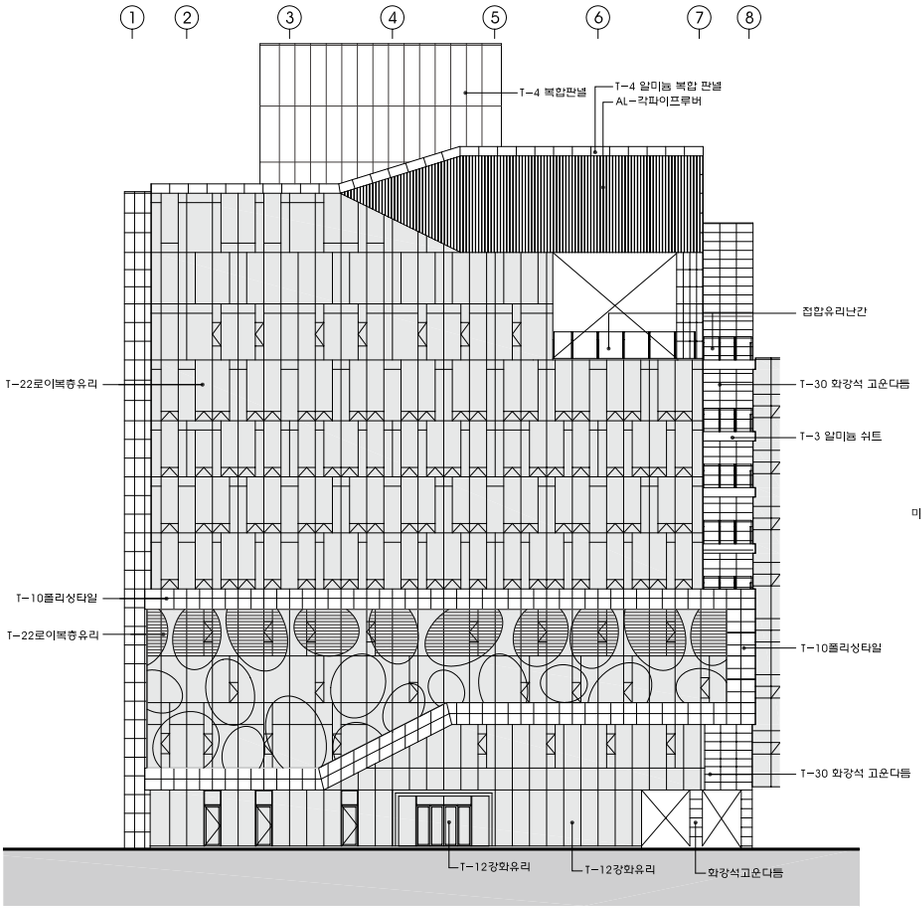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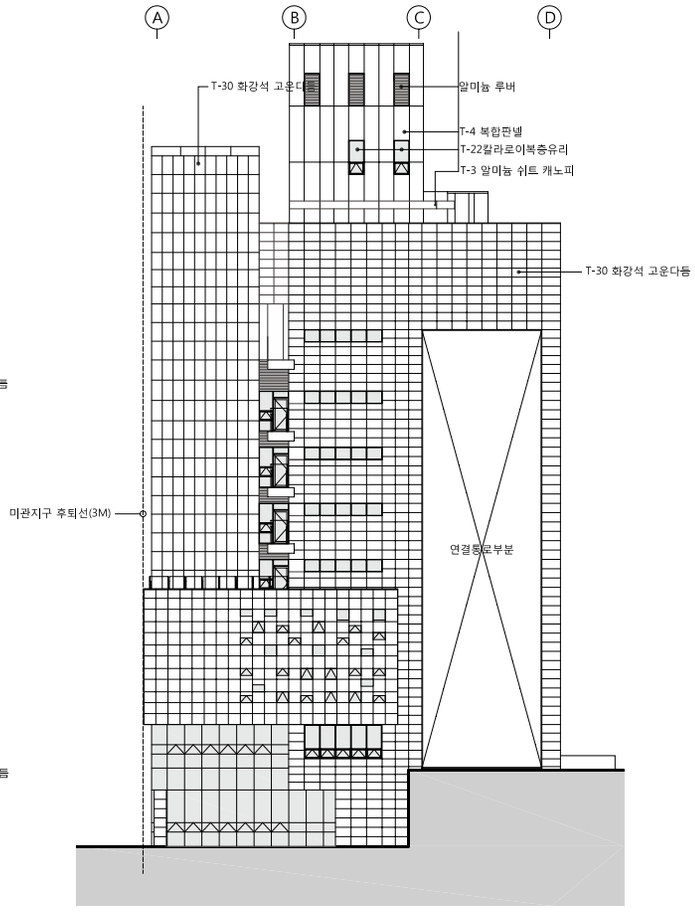
메인 홀 전경

대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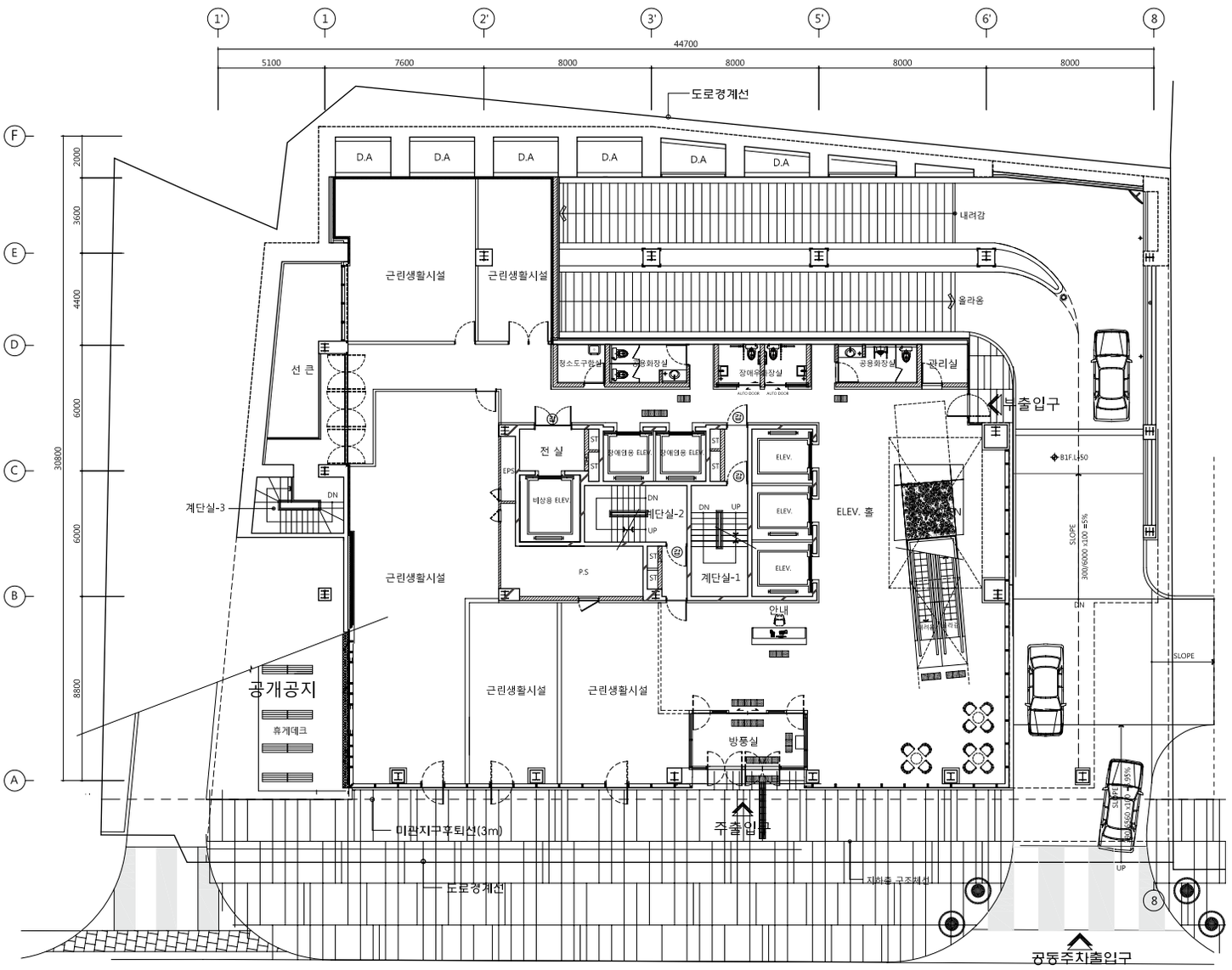
메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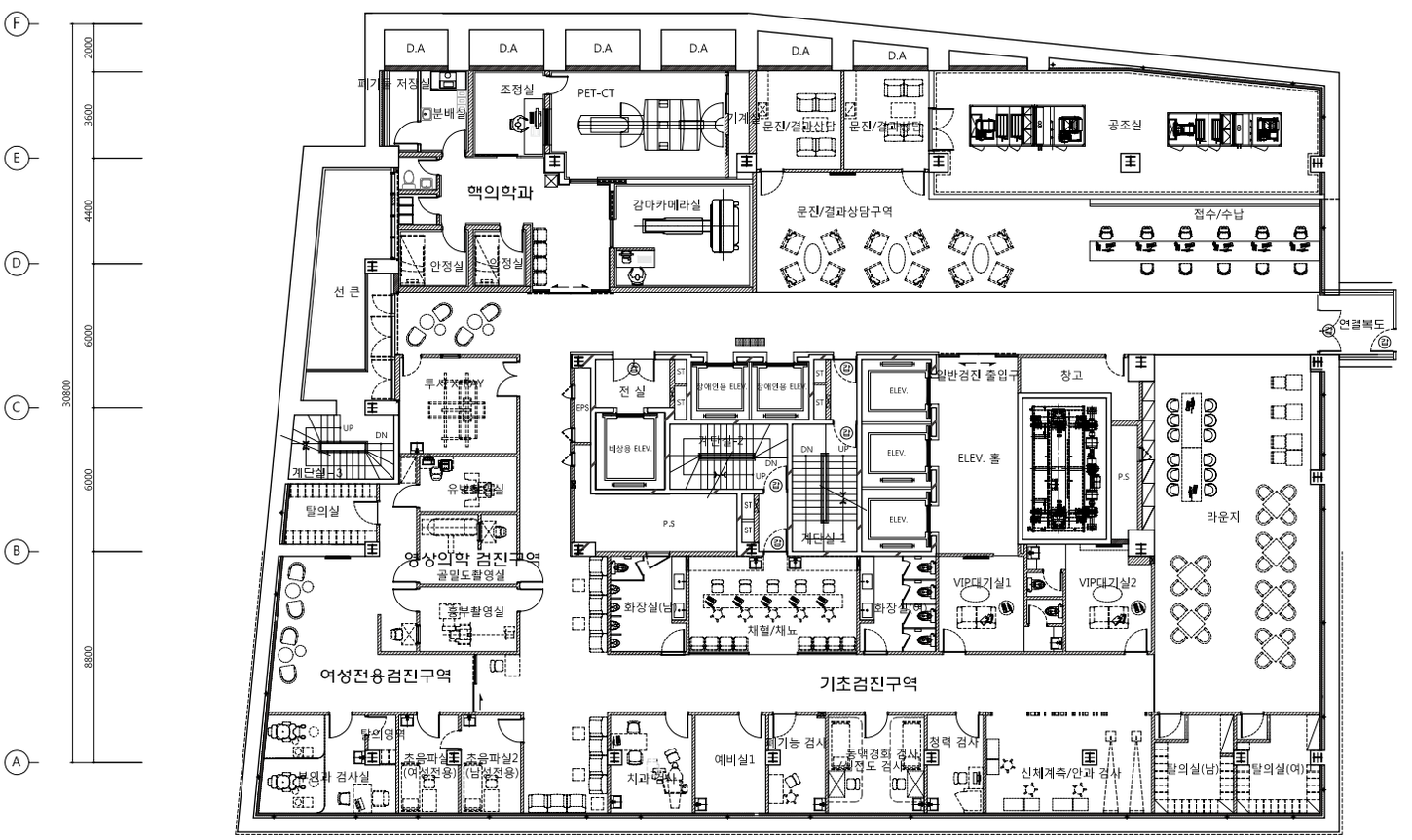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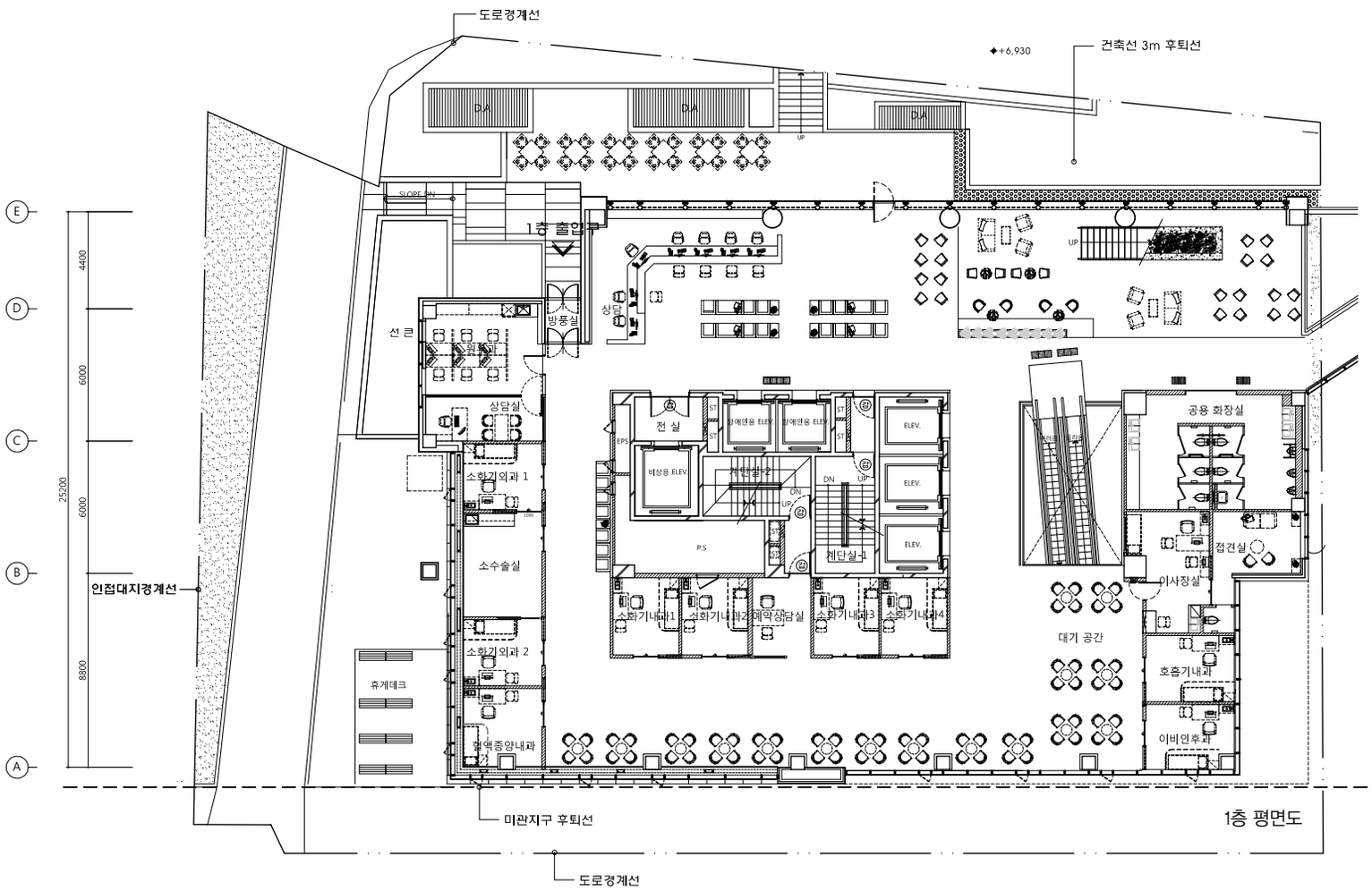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3층 평면도

1
2'
3'
5'
6'
8
39600
7600
8000
8000
8000
8000
E
D
C
B
A
4400
6000
6000
8800
25200
VIP실
1인실
1인실
2인실
2인실
공용 화장실
휴게 라운지
4인실
4인실
전 실
EPS
ELEV.
ELEV.
ELEV.
ELEV.
ELEV.
ELEV.
비상용 ELEV.
계단실1
DN
UP
UP
DN
ST
ST
P.S
계단실2
ELEV. 홀
M/S 카운터
처치실
상담실
린넨/준비실
5인실
5인실
5인실
5인실
5인실
창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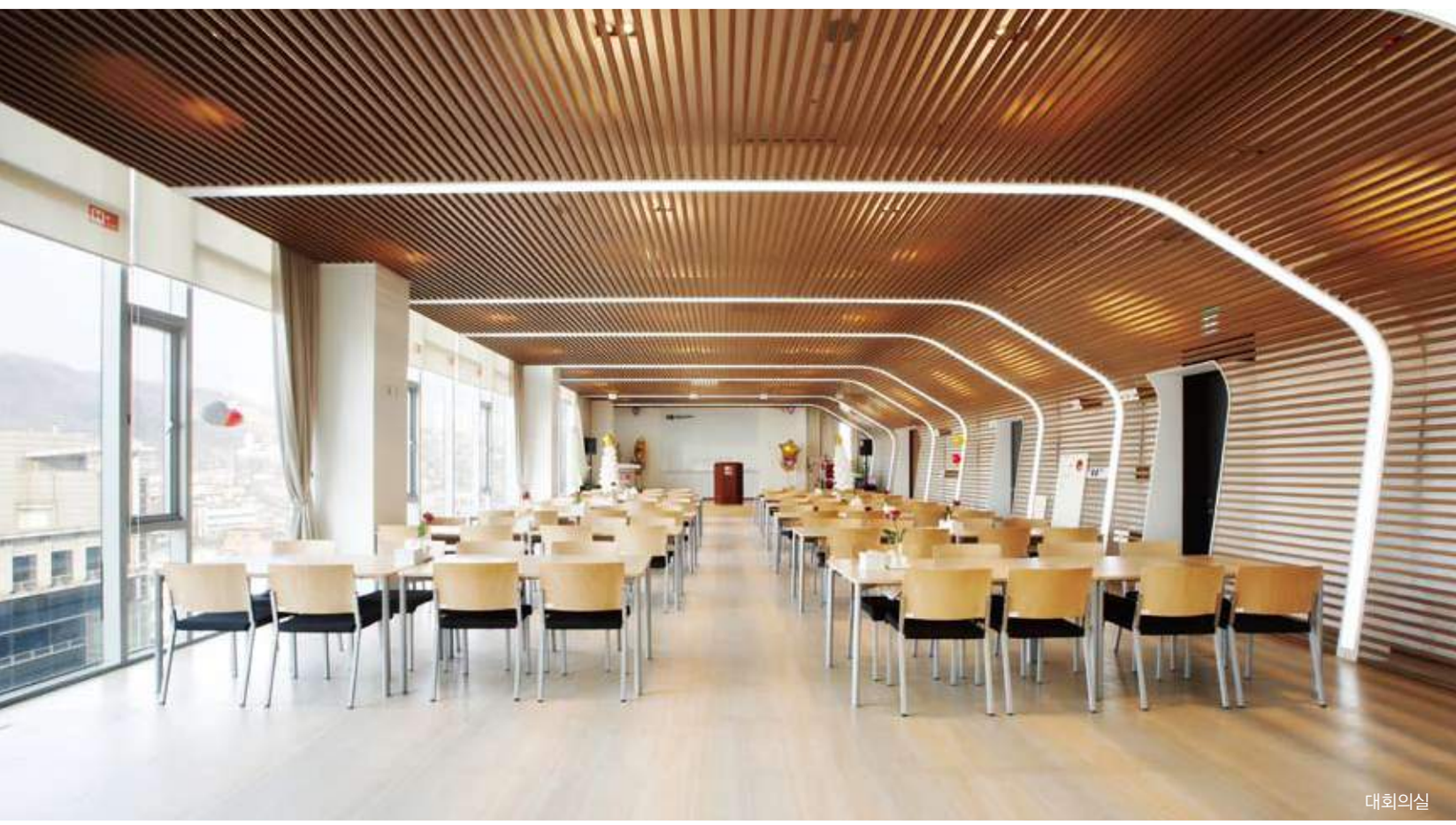
4층 평면도


도로경계선
+6,930
건축선 3m 후퇴선
DN
DN
DN
UP
SLOPE DN
1층 출입
상담
방풍실
선 큐
원무과
상담실
소화기외과 1
소수술실
소화기외과 2
휴게데크
혈액종양내과
전 실
EPS
방예연용 ELEV.
방예연용 ELEV.
ELEV.
ELEV.
ELEV.
ELEV.
비상용 ELEV.
계단실2
계단실3
P.S
소화기내과1
소화기내과2
제약상담실
소화기내과3
소화기내과4
공용 화장실
접견실
이사장실
대기 공간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인접대지경계선
미관지구 후퇴선
도로경계선
E
D
C
B
A
4400
6000
6000
8800
25200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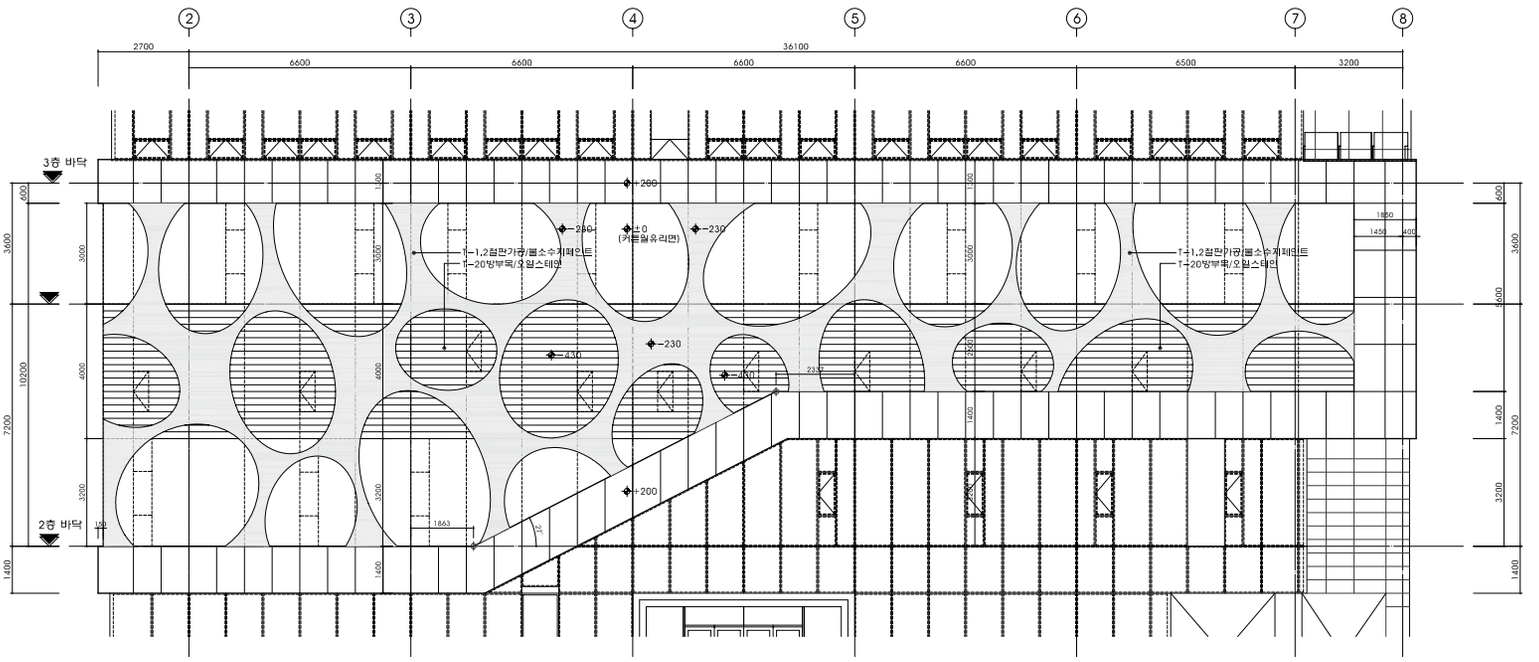
병실 스테이션

병실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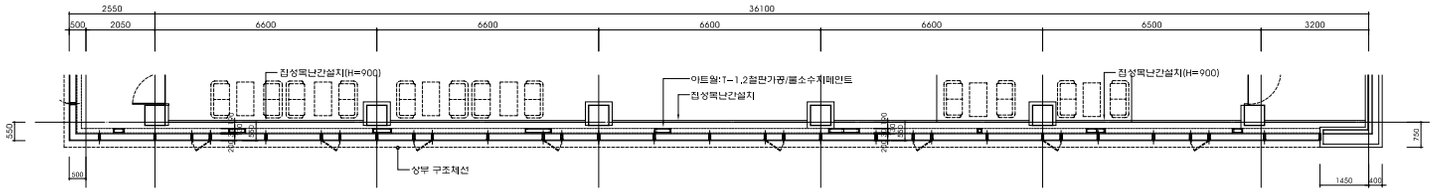

대회의실

VIP 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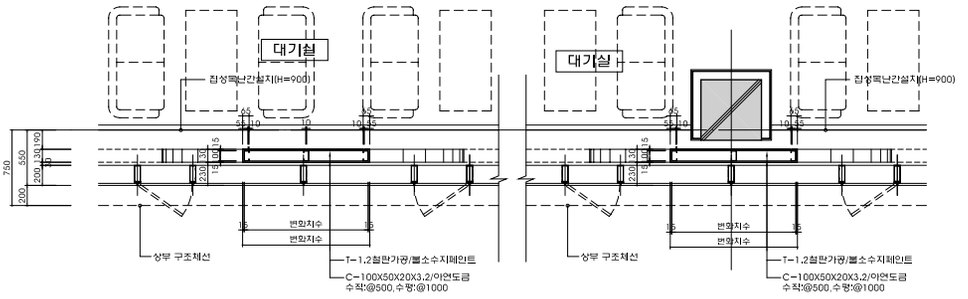
일반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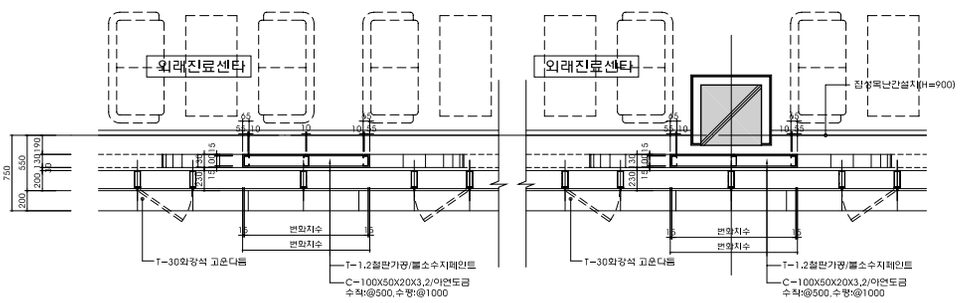
아트월 입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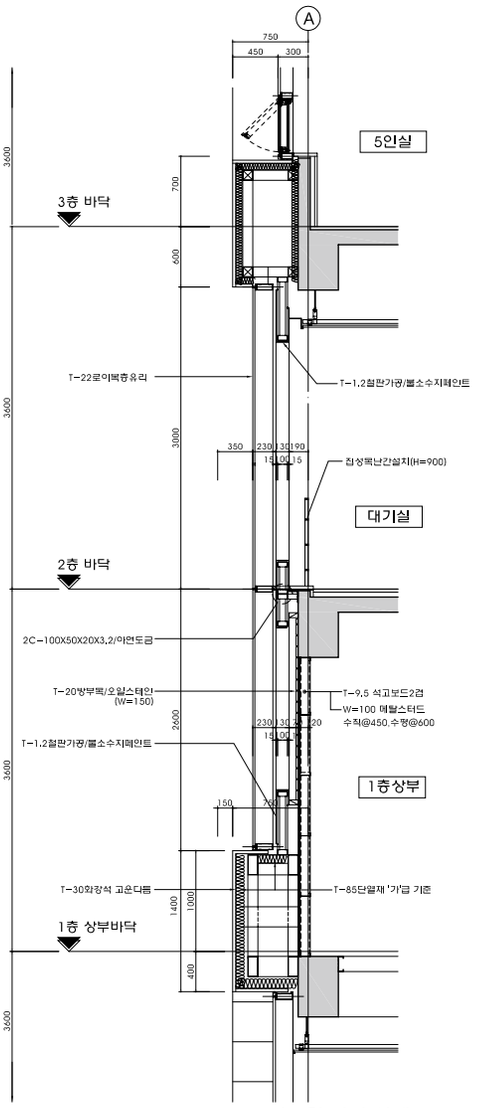
아트월 2층 평면 상세도



아트월 2층 평면 상세도



아트월 1층 평면 상세도



아트월 단면 상세도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HOLIDAY INN, GWA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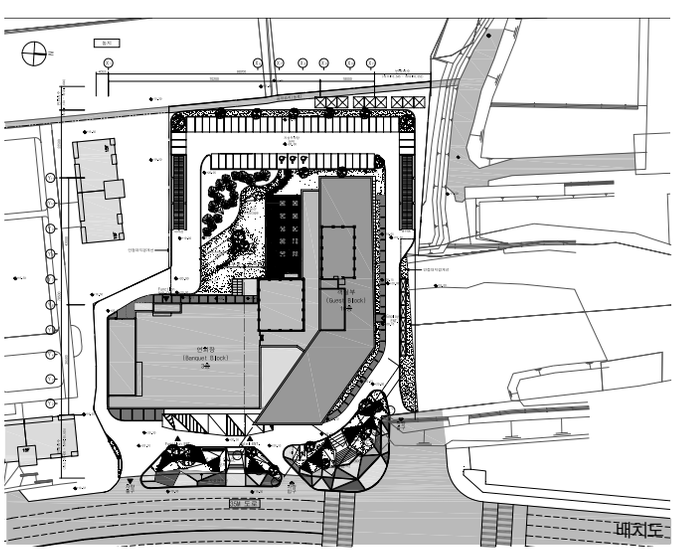
전경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건축주 | **임광택(주.진흥건설)**
설계자 | **신창훈**_KIRA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이용익_KIRA | ㈜종합건축사무소 동우건축
• 설계팀 : 김경태, 김윤수, 김봉균, 김민태, 강승현_운생동건축
이병용, 박근석, 김인배, 지범석_동우건축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창 민우 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일신E&C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한국설비
– 인테리어 : 더스틸
시공사 | **금호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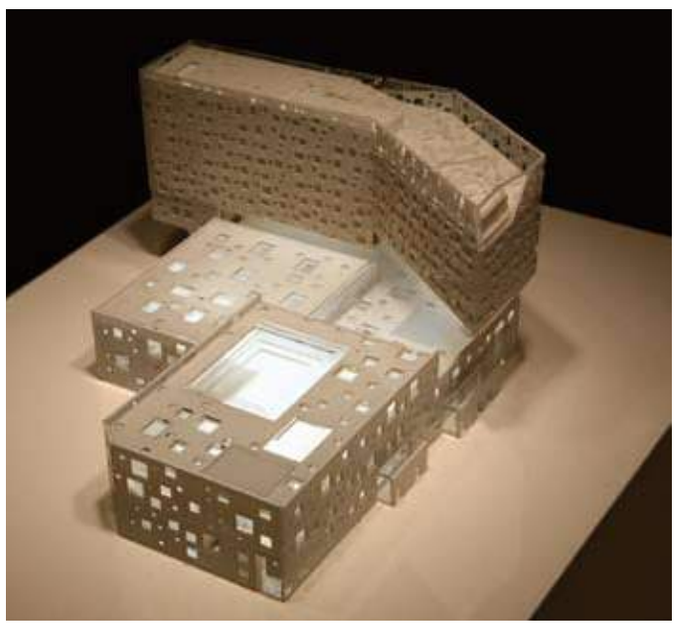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573–1번지외 15필지
주요용도 | 관광숙박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1,566.9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449.92㎡
연면적(Gross Floor Area) | 29,988.1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8.57%
용적률(Floor Area Ratio) | 182.15%
규모(Building Scope) | B2–10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THK24칼라복층유리/THK30화강석
설계기간 | 2007. 04 ~ 2007. 12
공사기간 | 2008. 06 ~ 2011. 03
사진(Photographer) | Sergio Pirrone

Architect | Shin, Chang-hoon / Lee, Yong-ik
Location | 571-1, Chipyeong-dong, Seo-gu, Gwangju,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CHANG MINWOO
HVAC Engineer | ILSHIN E&C
Electrical Engineer | Han Kook Engineering
Design period | 2007. 04 ~ 2007. 12
Construction period | 2008. 06 ~ 201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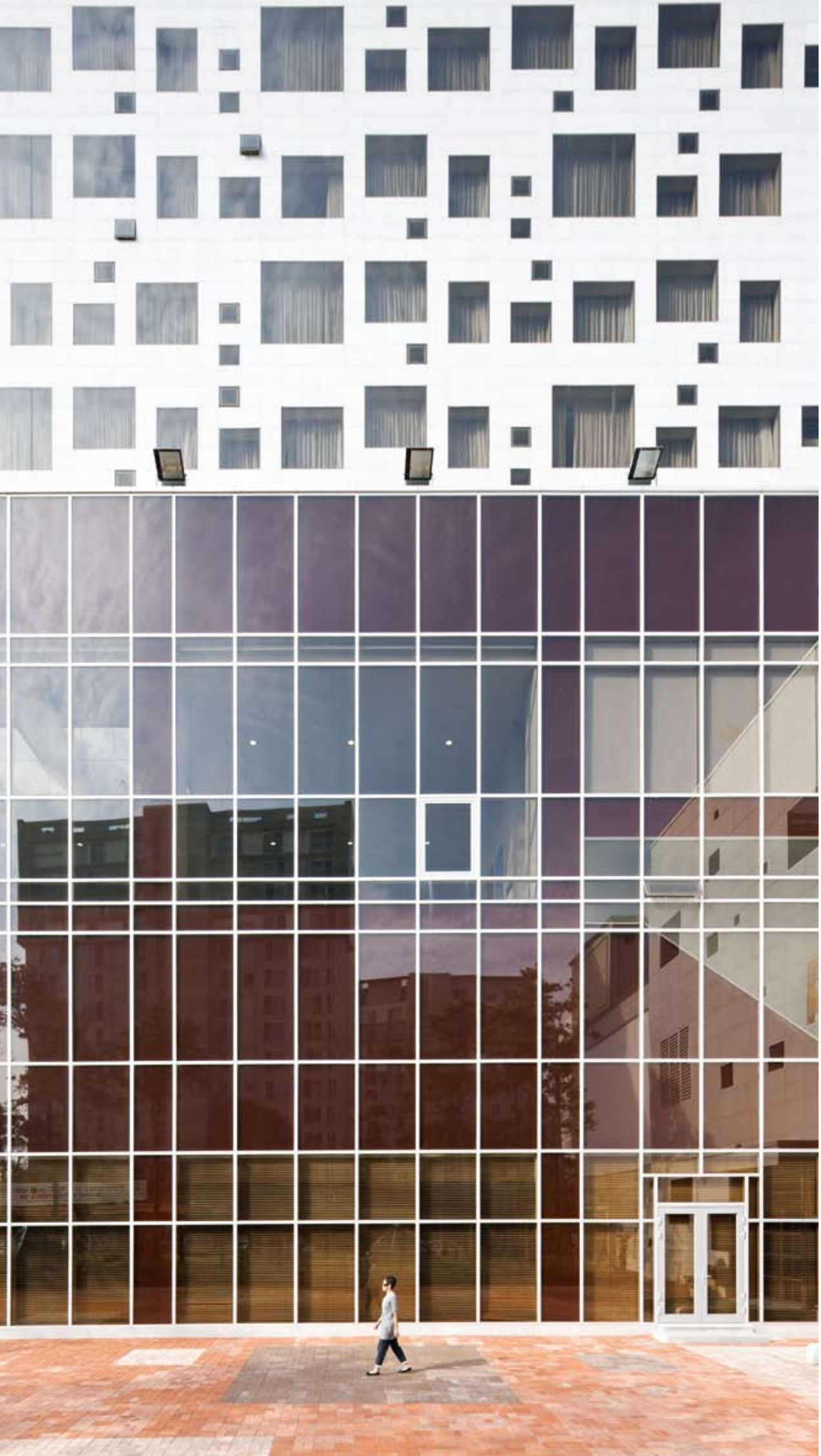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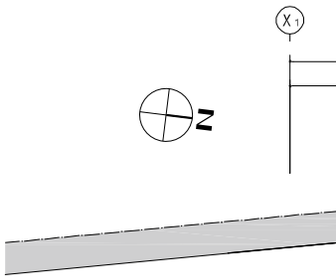
빛의 조각(lighting sculpture)
대지에 숨어 있는 빛을 발견해내는 작업을 통해 건축적 빛조각(Light Sculpture)을 구성한다. 솔리드한 매스를 조각하거나 틈새를 만드는 작업을 건축에 적용하는 틀을 제안한다. 건축과 조경, 경관 조명의 물리적 요소의 변환을 통해서 빛조각은 발광체가 된다. 건축적 프로그램의 내부의 빛이 야간에 발광체의 빛조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개념이다. 내부 이벤트와 경관조명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에 의하여 '광주성의 빛'을 표현한다. 낮과 밤의 풍경이 다른 호텔을 상상한다. 낮에는 흰색 돌의 색감이 전체적인 밝은 배경이 되고 자유로운 창의 빛깔은 차분한 브라운 색상으로 대비적 색감을 제안한다. 강렬한 대비적 색감을 통해서 낯설지만 새로운 감성의 입면을 제안하고 있다. 밤에는 각각의 객실과 부대시설의 조명이 들어 왔을 때 자유로운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다. 각각의 크기가 다른 창의 형태와 빛의 조율은 광주의 새로운 밤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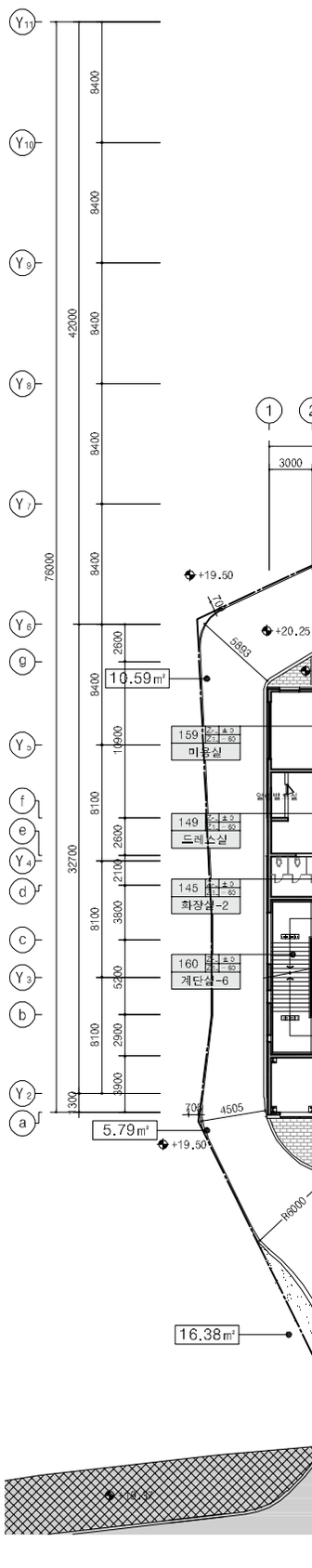
천개의 풍경과 천개의 창(Thousand Window & Thousand Passage)
'천개의 창'이라는 '새로운 지형의 창'을 끼워 넣는다. '새로운 지형의 창'은 균질화된 호텔이라는 균질공간에 작용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개입이라 할 수 있다. 객실의 내부적 풍경과 조형물과 같은 외부적 건축의 패턴 사이에 대한 새로운 설정과 연관된 관계를 조율하는 장치로써의 창을 제안한다. 필자는 '복합체(Compound Body)'라는 책을 통하여 '소통'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건축적 태도를 이야기하였다. – '복합체'는 경계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지는 소통의 텍스트이다. 복합체는 텍스트의 공유를 의미한다. 모든 텍스트는 여러 텍스트의 교차점 위에 위치하며, 그것의 재해석, 강조, 압축, 깊이를 순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합체는 '상호텍스트' 위에 놓여져 있다. – 건축을 통한 우리의 설정은 '소통'을 전제로 한다. 천개의 창은 우리에게 던져진 소통의 코드를 대별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천개의 창'은 복합과 통합사이를 오가며 만들어 내는 비확정적 비완결적인 공간과 구조의 설정과 연결된다. 틈새의 맵은 소통의 어떠한 방식도 용납해낸다. 언제나 많은 통로를 가지며 끝없는 변형과 연결을 획득하는 도구와 같다. '소통'의 단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입체적 깊이를 가진 자연스러운 돌의 질감 패턴을 통해 정형적인 규칙의 창이 아닌 자연스러운 풍경의 창이 된다. 각각의 객실은 기존 호텔에서는 경험 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각적 드라마틱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같은 객실의 평면이지만 객실마다 서로 다는 풍경의 프레임을 통해서 변화하는 호기심의 공간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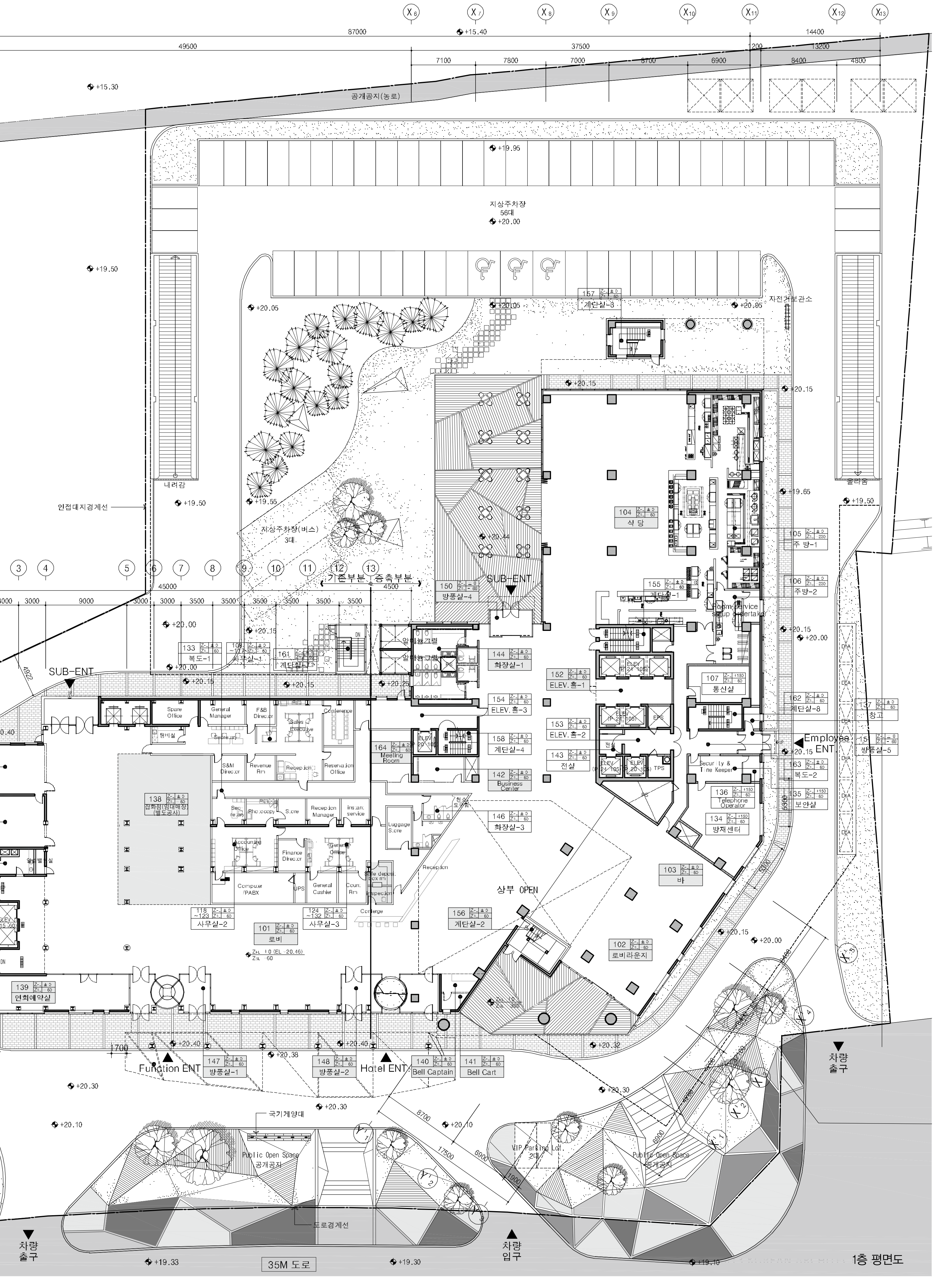


Holiday Inn




X1
N


Y11
Y10
Y9
Y8
Y7
Y6
Y5
Y4
Y3
Y2
Y1
a
b
c
d
e
f
g
1
2
76000
42000
32700
8400
3000
+19.50
+20.25
10.59㎡
159 미용실
149 드레스실
145 화장실-2
160 계단실-6
5.79㎡
16.38㎡
R6000
4505
5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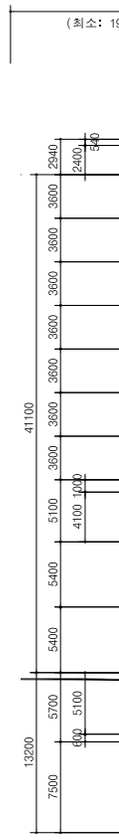


지상주차장
56대
+20.00
공개공지(농로)
자전거보관소
인접대지경계선
지상주차장(버스)
3대
기존부분
증축부분
SUB-ENT
Employee ENT
Function ENT
Hotel ENT
101 로비
102 로비라운지
103 바
104 식당
105 주방-1
106 주방-2
107 통신실
133 복도-1
134 방재센터
135 보안실
136 Telephone Operator
137 창고
138 잡화점(임대매장)(별도공사)
139 연회예약실
140 Bell Captain
141 Bell Cart
142 Business Center
143 전실
144 화장실-1
146 화장실-3
147 방풍실-1
148 방풍실-2
150 방풍실-4
152 ELEV.홀-1
153 ELEV.홀-2
154 ELEV.홀-3
155 계단실-1
156 계단실-2
157 계단실-6
158 계단실-4
161 계단실-7
162 계단실-8
163 복도-2
164 Meeting Room
118 ~123 사무실-2
124 ~132 사무실-3
상부 OPEN
Public Open Space
공개공지
VIP Parking Lot
국기게양대
도로경계선
35M 도로
차량 출구
차량 입구
내려감
올라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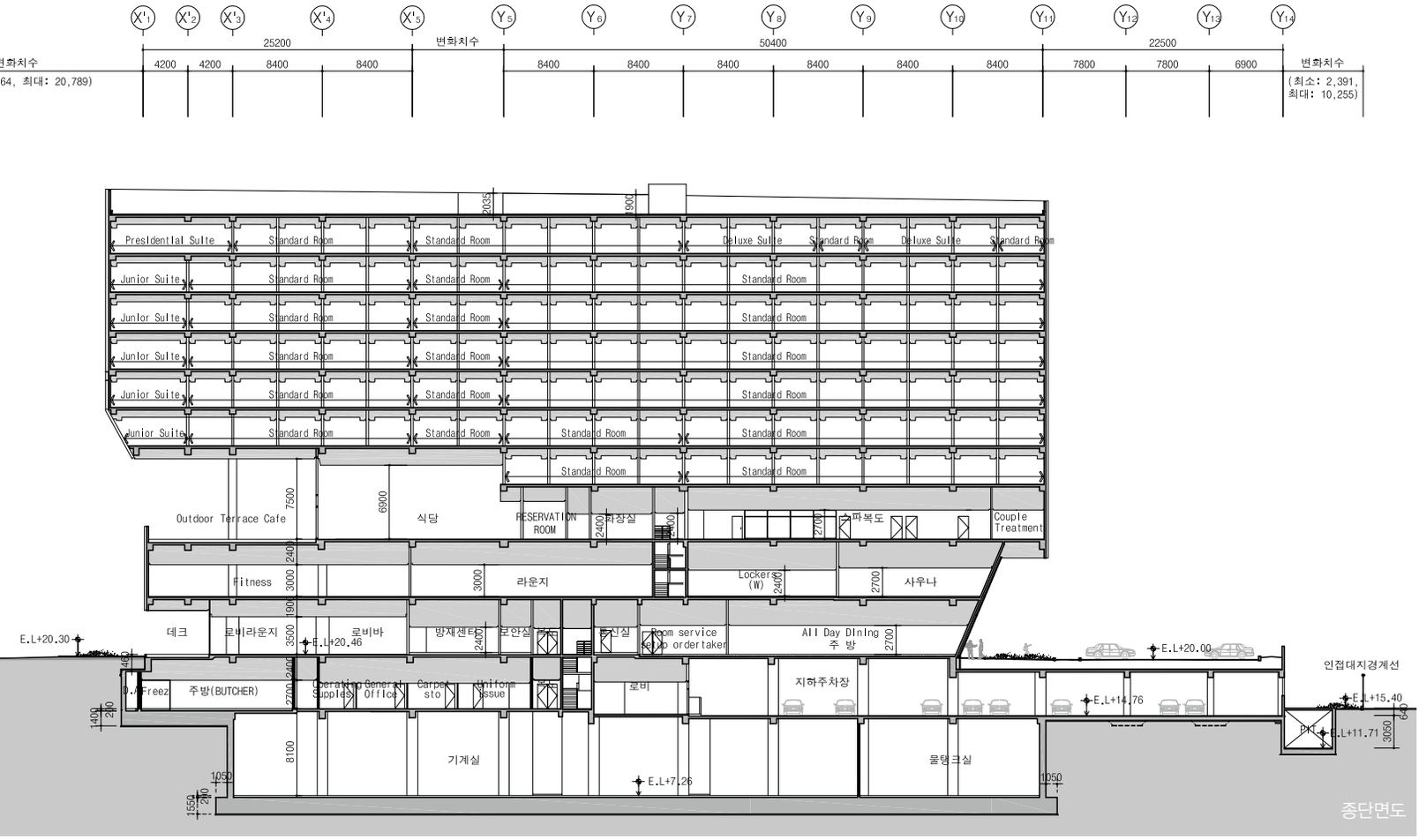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X1
X6
X7
X8
X9
X10
X11
ZR
Z10
Z9
Z8
Z7
Z6
Z5
Z4
Z3
Z2
Z1
ⓣ24 복합기능성유리
지정석재마감(600X600)
ⓣ24 칼라복층유리
ⓣ24 복합기능성유리(돌출창)
지정석재마감(900X900)
ⓣ24 복합기능성유리
강화유리난간
인접대지경계선
E.L+20.00
E.L+19.50
ⓣ24 복합기능성유리

정면도



(최소: 19
2940
2400
54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41100
5100
4100
1000
5400
5400
5700
5100
600
13200
7500



X'1 X'2 X'3 X'4 X'5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Y14
25200
변화치수
50400
22500
4200 4200 8400 8400 8400 8400 8400 8400 8400 8400 7800 7800 6900
변화치수
(최소: 2,391,
최대: 10,255)
Presidential Suite
Standard Room
Deluxe Suite
Junior Suite
Outdoor Terrace Cafe
식당
RESERVATION ROOM
화장실
스파복도
Couple Treatment
Fitness
라운지
Lockers (W)
사우나
데크
로비라운지
로비바
방재센터
Room service setup ordertaker
All Day Dining 주 방
E.L+20.30
E.L+20.46
E.L+20.00
인접대지경계선
D.A Freez
주방(BUTCHER)
Operating Supplies
General Office
Carpet sto
Uniform issue
로비
지하주차장
E.L+14.76
E.L+15.40
PIT
E.L+11.71
기계실
물탱크실
E.L+7.26
종단면도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MOK3-DONG MARKET CUSTOMER SUPPORT CENTER

건축주 | 양천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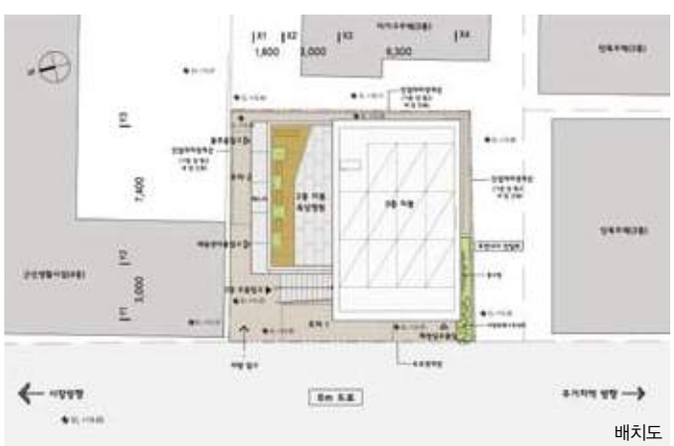
설계자 | 곽은선_KIRA | 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오호준 기술사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우인기술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성우MEC
  - 토목설계 : ㈜고려씨티에이

시공사 | ㈜옥토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17-13
주요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대지면적(Site Area) | 162㎡
건축면적(Building Area) | 97.00㎡
연면적(Gross Floor Area) | 326.4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8%
용적률(Floor Area Ratio) | 140.51%
규모(Building Scope) | B1-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인조라임스톤, 징크,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 | 2011. 08.~ 2011. 10. 29.
공사기간 | 2011. 12.~ 2012. 08.

Client | Yangcheon-gu office
Architect | Kwak, Eun-sun
General Contractor | OK TO Construction
Location | 617-13, Mok3-dong, Yangcheon-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Oh, Ho-jun
HVAC Engineer | Sung Woo M.E.C
Electrical Engineer | Woo Win ENG.
Finishing Materials | Artificiality Lime stone, Zinc sheet
Design period | 2011. 08. ~ 2011. 10. 29
Construction period | 2011. 12. ~ 201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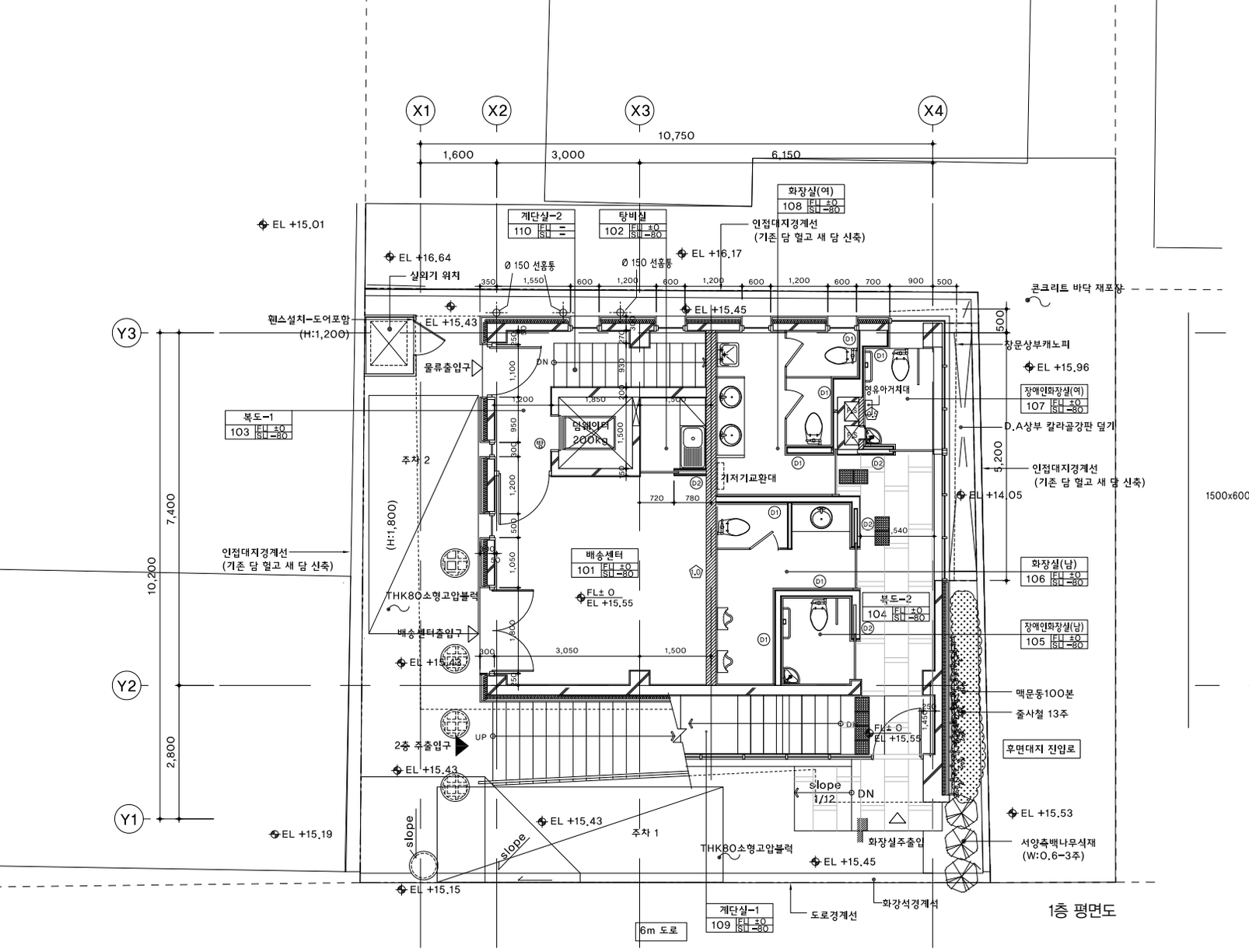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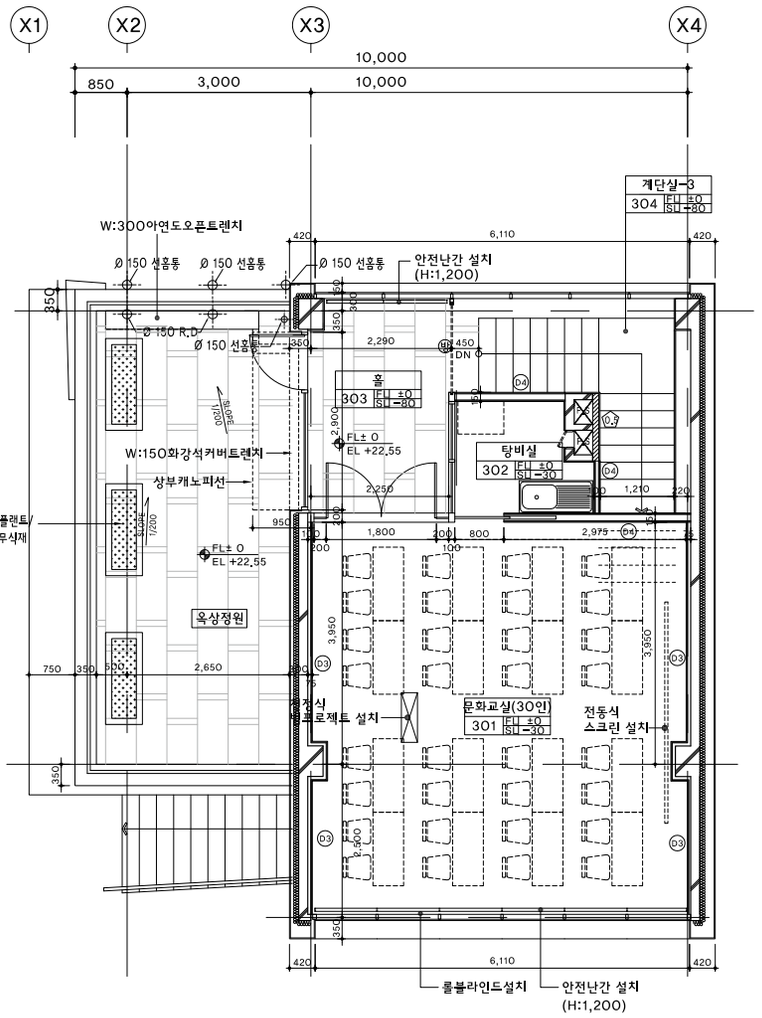
배치도

주택가로부터 접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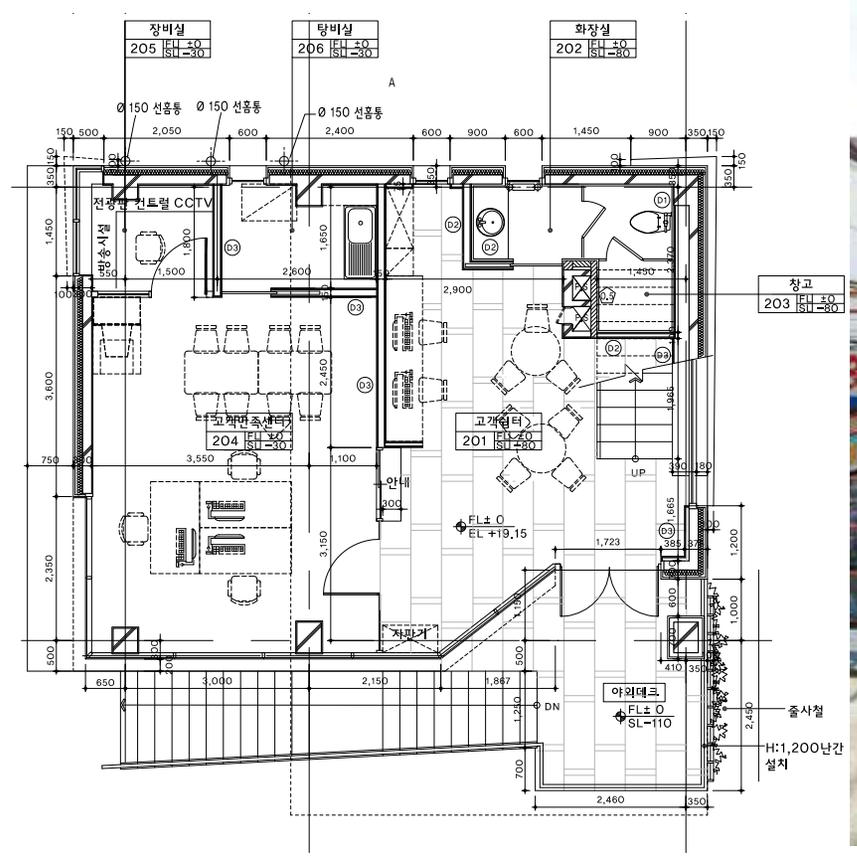
대형마트의 편리함, 쾌적함, 다양한 서비스 공간 등에 밀려 현재 재래시장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양천구에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계획, 지원하고 있다.
입찰로 수주한 본 프로젝트에서 설계자는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단순히 배달지원공간, 상인회공간, 공중화장실 제공의 의미를 넘어 기존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좀더 현대적이고 편안한 느낌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랜드마크적 요소 제공을 통해 목3동시장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본 건축물은 1층 공중화장실과 2층 고객지원센터의 동선을 분리하여, 고객지원센터를 옥외계단을 통해 2층으로 바로 진입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시각적 관통 효과와 사람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층 문화교실의 매스는 전면으로 돌출시켜 골목 안에 위치한 대지의 단점을 극복하여 지역주민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Point를 주었다.
또한 측면 노후 주거지를 향해 열린 시선을 목재루버 및 사철덩굴을 이용하여 시각적 정제 및 휴식의 요소로 두고, 전면도로를 향해 열린 View와 열린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작은 대지에서의 답답함을 최소화 하고, 시장과 골목 내에 열린 휴게공간을 창출하였다.

시장으로부터 접근 전경


X1
X2
X3
X4
10,750
1,600
3,000
6,150
Y3
Y2
Y1
10,200
7,400
2,800
EL +15.01
EL +16.64
실외기 위치
EL +15.43
휀스설치-도어포함
(H:1,200)
물류출입구
복도-1
103 FL ±0 SU -80
주차 2
(H:1,800)
인접대지경계선
(기존 담 헐고 새 담 신축)
THK80소형고압블럭
배송센터출입구
EL +15.45
2층 주출입구
UP
EL +15.43
EL +15.19
slope
slope
slope
주차 1
EL +15.15
계단실-2
110 FL =
탕비실
102 FL ±0 SU -80
Ø 150 선홈통
Ø 150 선홈통
EL +16.17
EL +15.45
화장실(여)
108 FL ±0 SU -80
인접대지경계선
(기존 담 헐고 새 담 신축)
콘크리트 바닥 재포장
장문상부캐노피
EL +15.96
장애인화장실(여)
107 FL ±0 SU -80
영유아거치대
D.A상부 칼라골강판 덜기
인접대지경계선
(기존 담 헐고 새 담 신축)
EL +14.05
1500x600xh:300
엄웨이터
200kg
기저기교완대
배송센터
101 FL ±0 SU -80
FL± 0
EL +15.55
화장실(남)
106 FL ±0 SU -80
복도-2
104 FL ±0 SU -80
장애인화장실(남)
105 FL ±0 SU -80
맥문동100본
줄사철 13주
후면대지 진입로
FL± 0
EL +15.55
slope
1/12
DN
EL +15.53
서양측백나무식재
(W:0.6-3주)
화장실주출입
EL +15.45
THK80소형고압블럭
화강석경계석
도로경계선
계단실-1
109 FL ±0 SU -80
6m 도로
1층 평면도
계단실-2
B07 FL ±0 SU -150
기계실
B05 FL ±0 SU -150
963
실외기
창고1
B02 FL ±0 SU -150
엄웨이터
200kg
창고2
B03 FL ±0 SU -150
아연도그레이팅
하부집수정
(1mx1mx0.6m)
D.A
EL +14.05
1층 담의 일부
부패1실
FL± 0
EL +12.55
물류창고
B01 FL ±0 SU -150
정화조(120인조)
B08 FL -150 SU -150
냉장고1
냉장고2
(공사제외)
냉동고2
냉동고2
아연도커버
트렌치(W=200)
부패2실
여과조
방류조
PIT
오픈트렌치(W=200)
창고3
B04 FL ±0 SU -150
계단실-1
B06 FL +80 SU -150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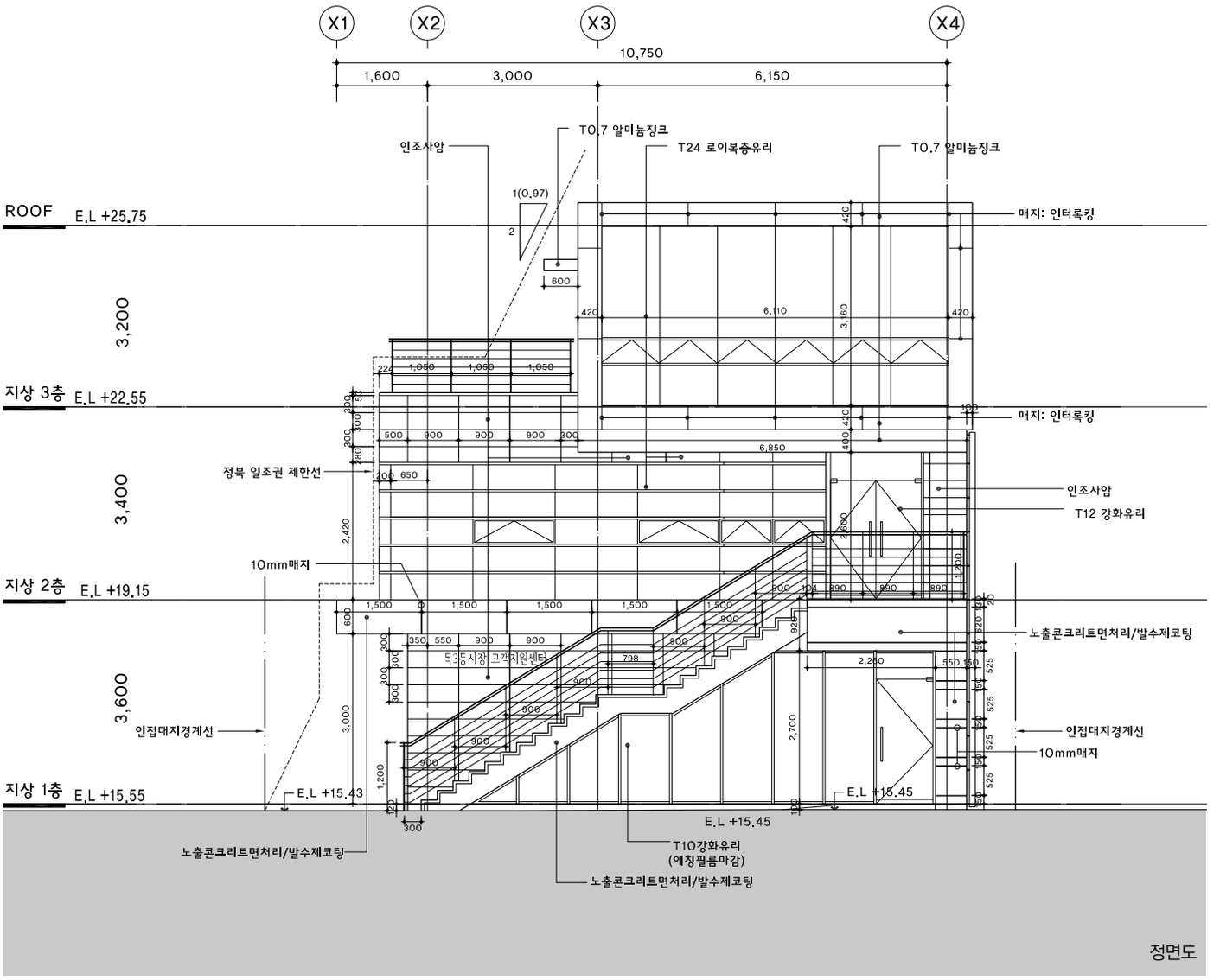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공중화장실 진입부

2층 주출입구에서 진입계단을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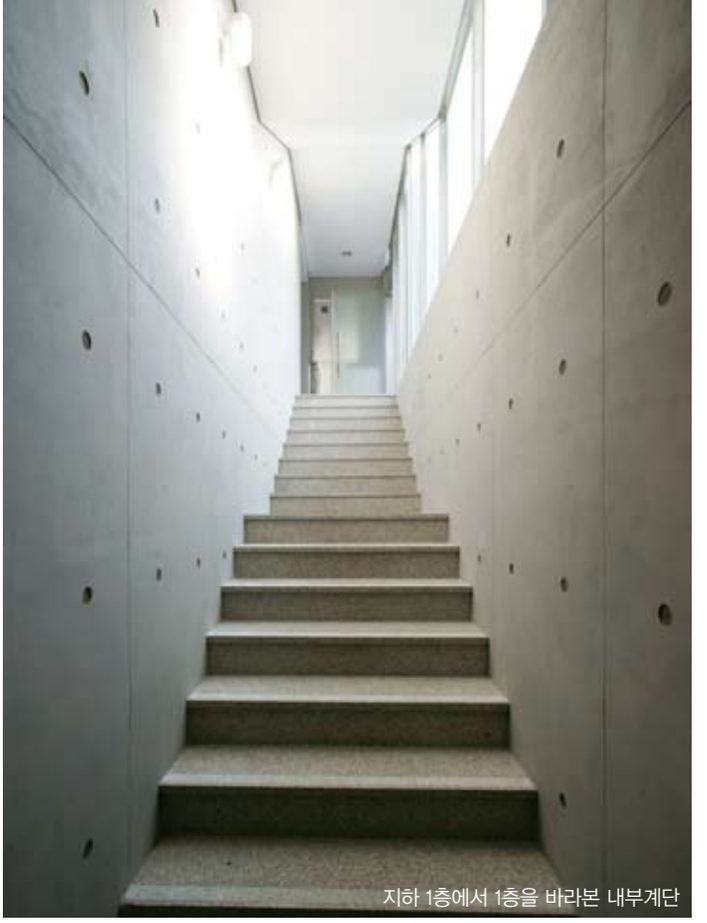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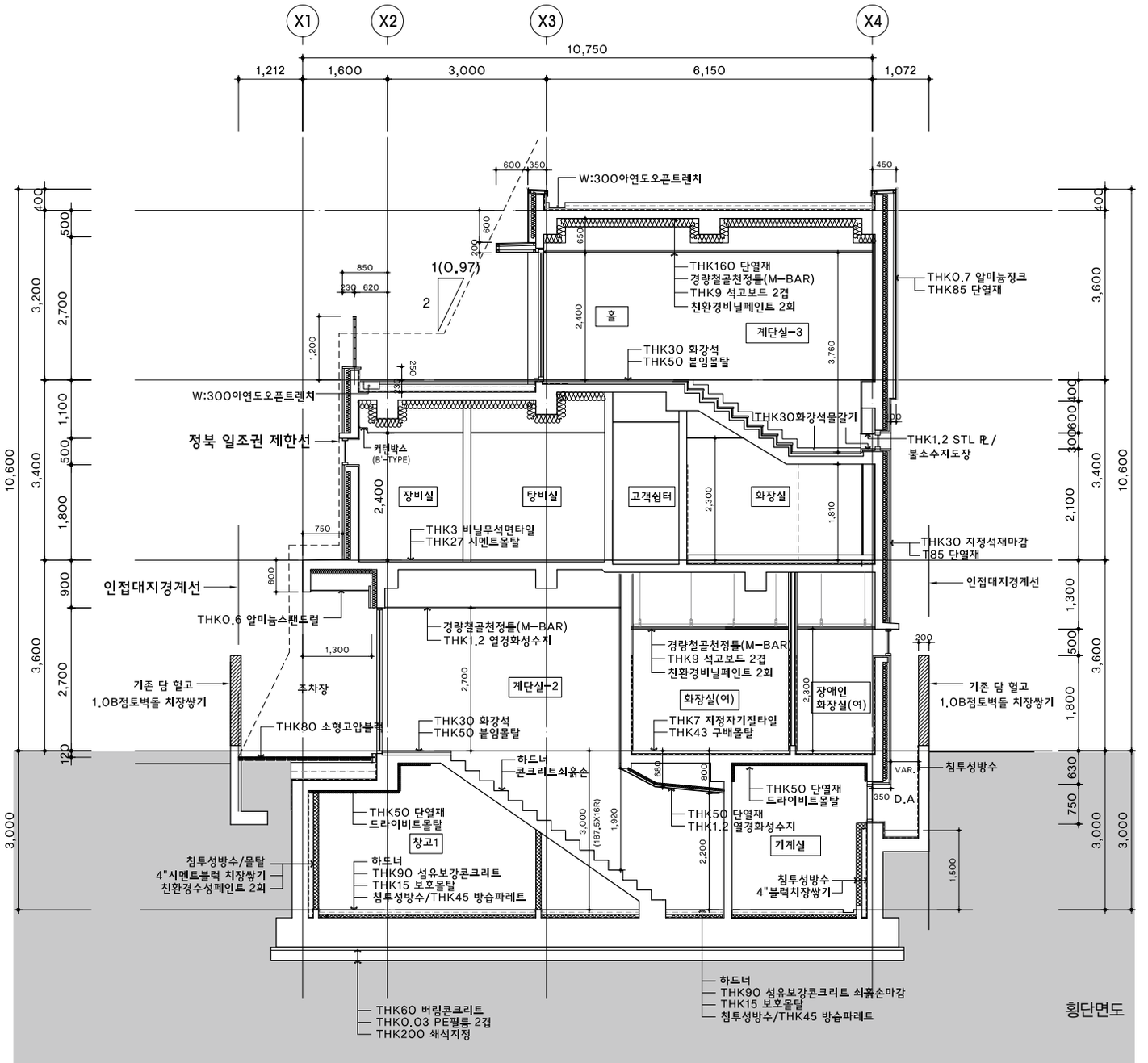
2층 고객센터 진입 외부계단

내부계단에서 2층 진입부를 바라봄

1층 공중화장실 내부복도



지하 1층에서 1층을 바라본 내부계단



횡단면도

소소헌(小少軒)
SOSOHUN

건축주 | 소소

설계자 | 최삼영_KIRA | (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최우진, 최명식
-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주)스튜가이엔씨
  - 전기 : (주)대경전기설계사무소
  - 기계 : (주)세아엠이씨

감리자 | (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스튜가이엔씨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69

주요용도 | 게스트하우스

대지면적(Site Area) | 766.9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24.54㎡

연면적(Gross Floor Area) | 69.5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6.24%

용적률(Floor Area Ratio) | 9.07%

규모(Building Scope) | 1F

구조 | 폴파운데이션(기초), 경량목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러스틱우드, 팀버목재, 징크
내부마감_티크목, 자작합판, 실보닛, 수성페인트, 더글라스합판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 12. 15 ~ 2011. 03. 06

공사기간 | 2011. 03. 07 ~ 2011. 05. 16

Client | SoSo

Architect | Choi, Sam-young

Project team | Choi, Woo-jin / Choi, Myung-sik

General Contractor | STUGA

Location | 1652-569, Beopheung-ri, Tanhyeon-myeon, Paju-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Pool-foundation, Light-Wood Frame Construction

Structural Engineer | STUGA ENC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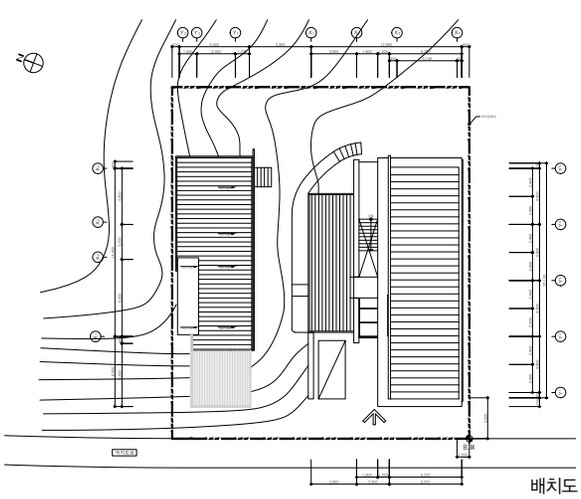
HVAC Engineer | SEAH Engineering Company

Electrical Engineer | DAEGYEONG Electric Company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Teak Engineered Wood Flooring(Floor), Birchplywood(wall), Silbonit(wall), Water Paint(wall), Douglas Plywood(ceiling)
Exterior_Rustic Wood(Deck), Thermowood(Siding), Vmzinc(Roof)

Design period | 2010. 12. 15 ~ 2011. 03. 06

Construction period | 2011. 03. 07 ~ 2011. 05. 16



배치도

소소헌은 69㎡ 남짓한 작은 집이다. 작지만 그 공간은 우리의 삶과 자연을 담는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집은 한동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물질적 소유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다시 집을 본래의 의미로 되돌리고 있다. 파주 헤이리마을의 '소소헌'은 그런 흐름에 큰 목소리를 내는 작은 집이다. 이 집은 우리의 전통에서 그 지혜를 구하고 해법을 찾았다.

작은 집 소소헌은 간소한 삶을 담기위한 장치로 가변형 칸막이를 두었다. 평면은 직사각형의 가운데를 부엌으로 하고 양쪽에 방을 두었다. 3개의 공간은 가변형 칸막이로 원룸형 공간에서 2LDK로 분리되기도 하며 가족 구성의 변화에 대응한다. 소소헌은 기초부터 마감까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어진 친환경주택으로써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마치 오랜 풍경 같은 간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자연채광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의 전통 창호를 응용하였다. 한지 창호는 공간 안에서 적절한 채광을 조율하는 하나의 조명으로 작용한다.
친환경주택이 되기 위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남쪽 지붕의 처마를 길게(1.35m)하여 여름 볕과 비바람으로부터 벽을 보호해 주고

소소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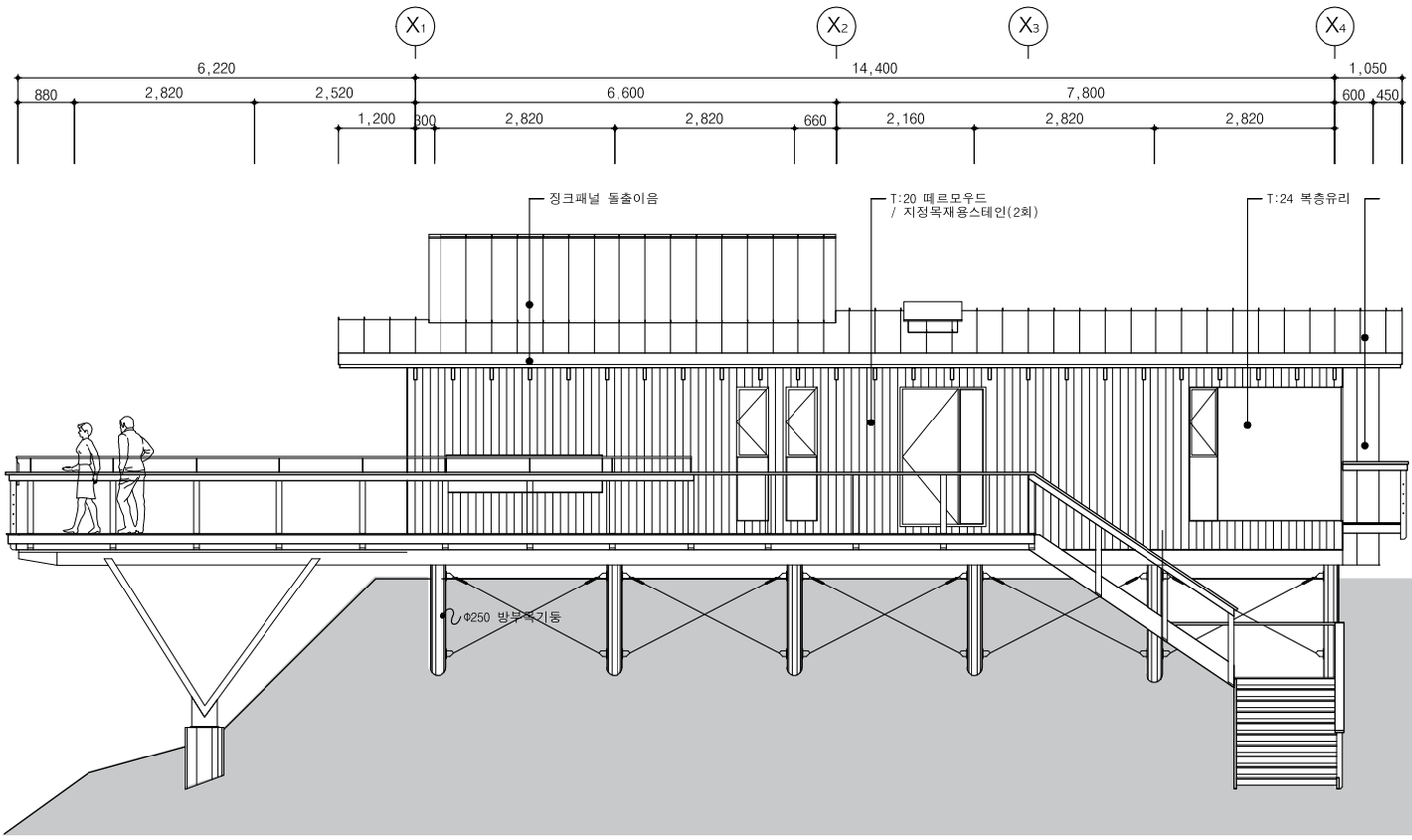
스케치 – 조감도

스케치 –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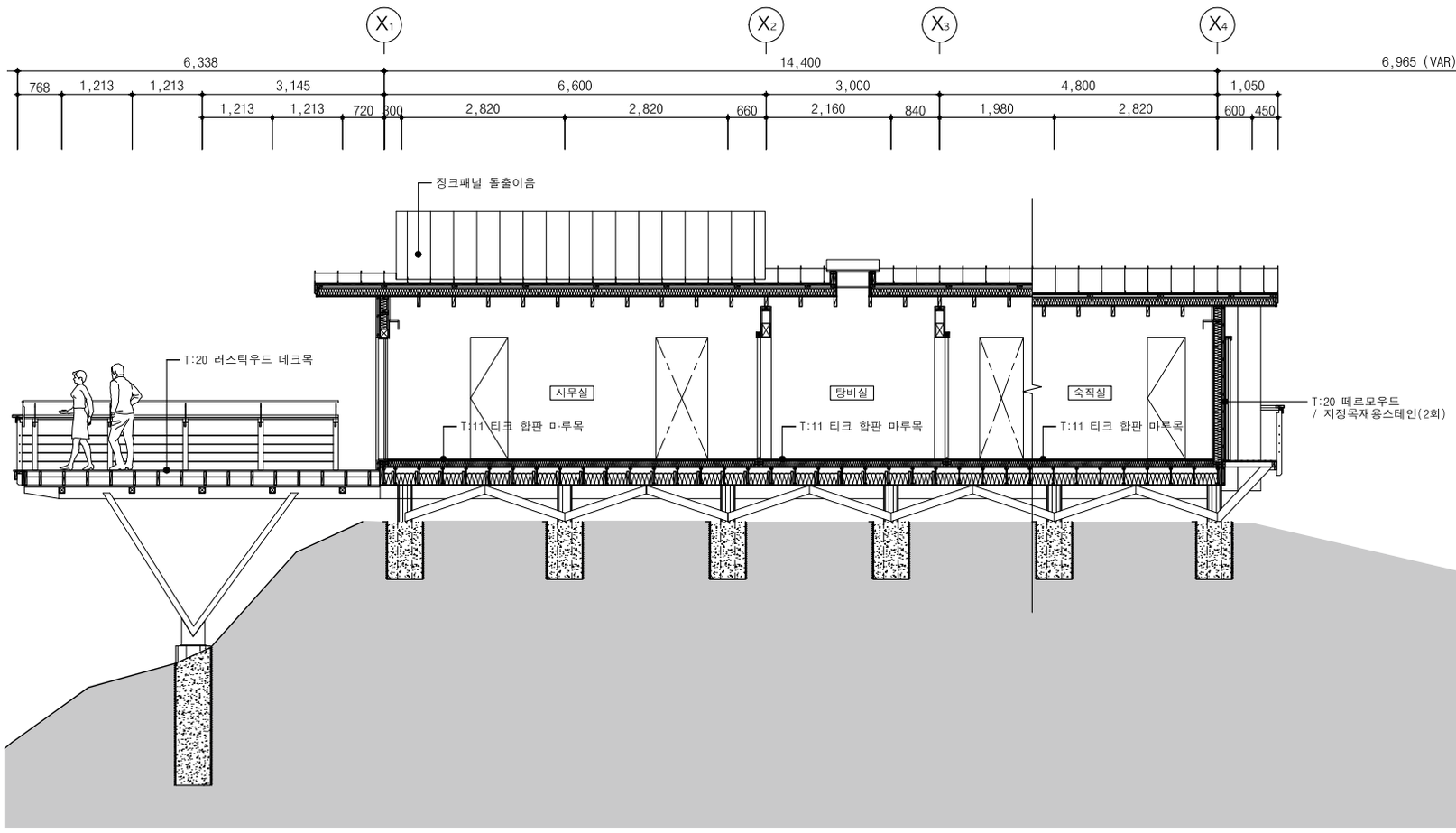
동 서향으로 외부블라인드와 외부 덧문을 사용하여 깊숙이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하였다. 또한 북측에 화장실과 창고의 켜를 두어 겨울철 한파로부터 방의 열손실을 줄였다.

냉난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였다. 목조주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열과 기밀성이다. 여기서는 Low-E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하였고 기밀성과 투습방습성을 갖춘 재료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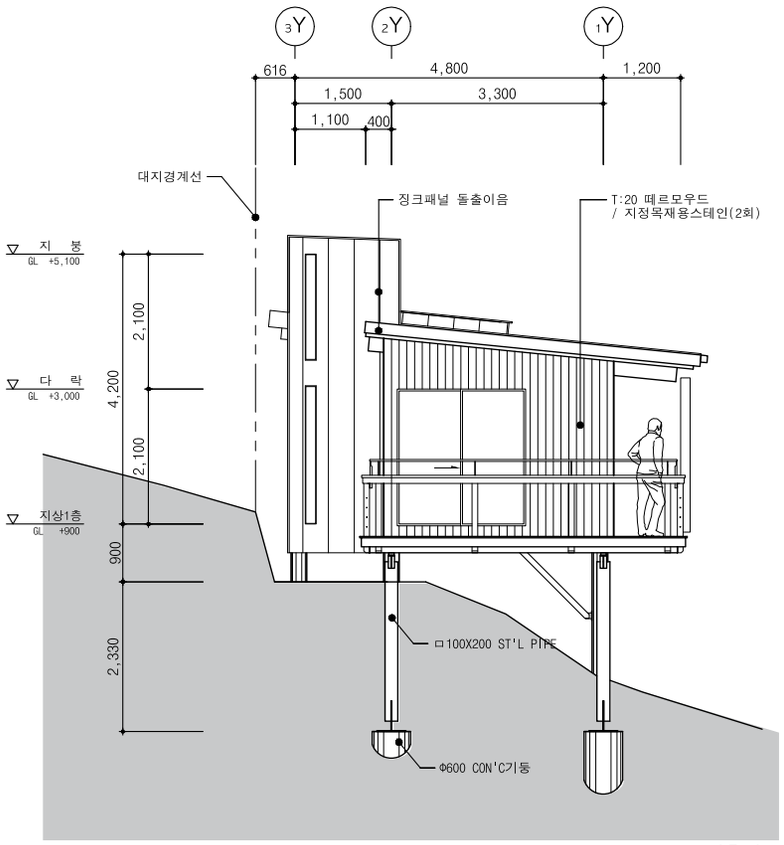
시공 후 기밀성 테스트를 통해 기밀성을 검증받았고 앞으로 단열 성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사용 중에 내, 외부의 온습도를 꾸준히 체크하고 있고 그 결과는 향후 고단열 주택설계를 위한 에너지 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X1
X2
X3
X4
6,220
14,400
1,050
880
2,820
2,520
6,600
7,800
600
450
1,200
300
2,820
2,820
660
2,160
2,820
2,820
징크패널 돌출이음
T:20 떼르모우드
/ 지정목재용스테인(2회)
T:24 복층유리
Φ250 방부목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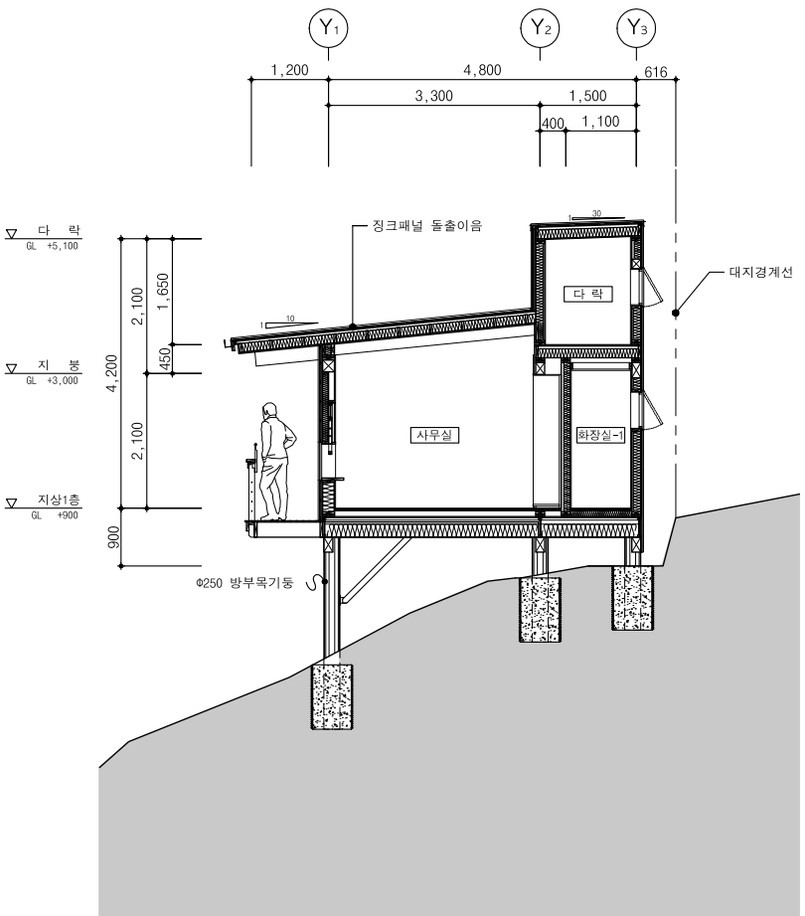
정면도


X1
X2
X3
X4
6,338
14,400
6,965 (VAR)
768
1,213
1,213
3,145
6,600
3,000
4,800
1,050
1,213
1,213
720
300
2,820
2,820
660
2,160
840
1,980
2,820
600
450
징크패널 돌출이음
T:20 러스틱우드 데크목
사무실
탕비실
숙직실
T:11 티크 합판 마루목
T:11 티크 합판 마루목
T:11 티크 합판 마루목
T:20 떼르모우드
/ 지정목재용스테인(2회)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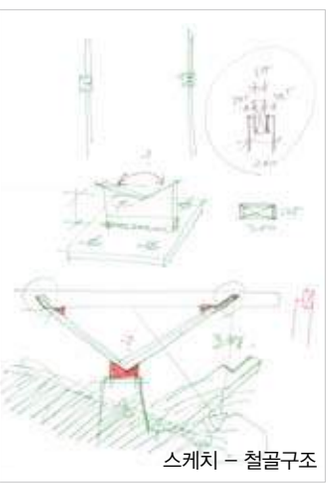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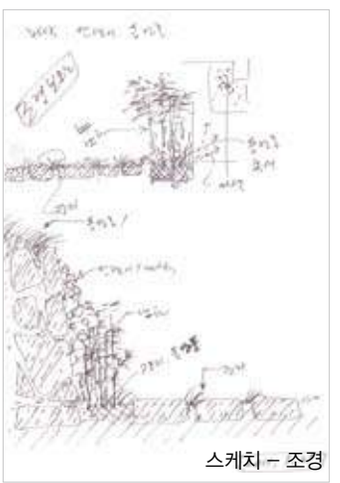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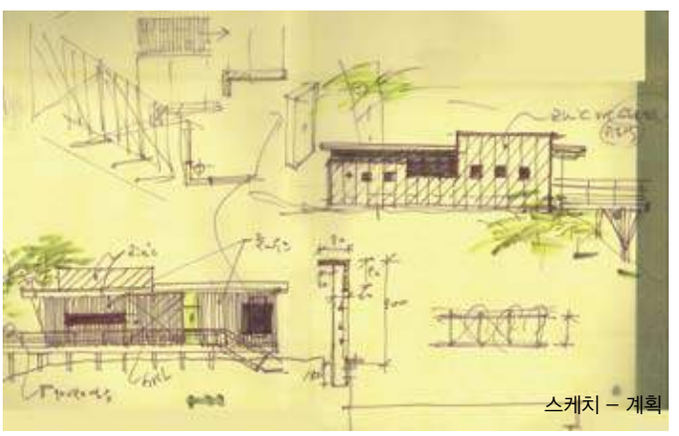
탕비실에서 숙직실을 바라본 모습



스케치 – 철골구조



스케치 –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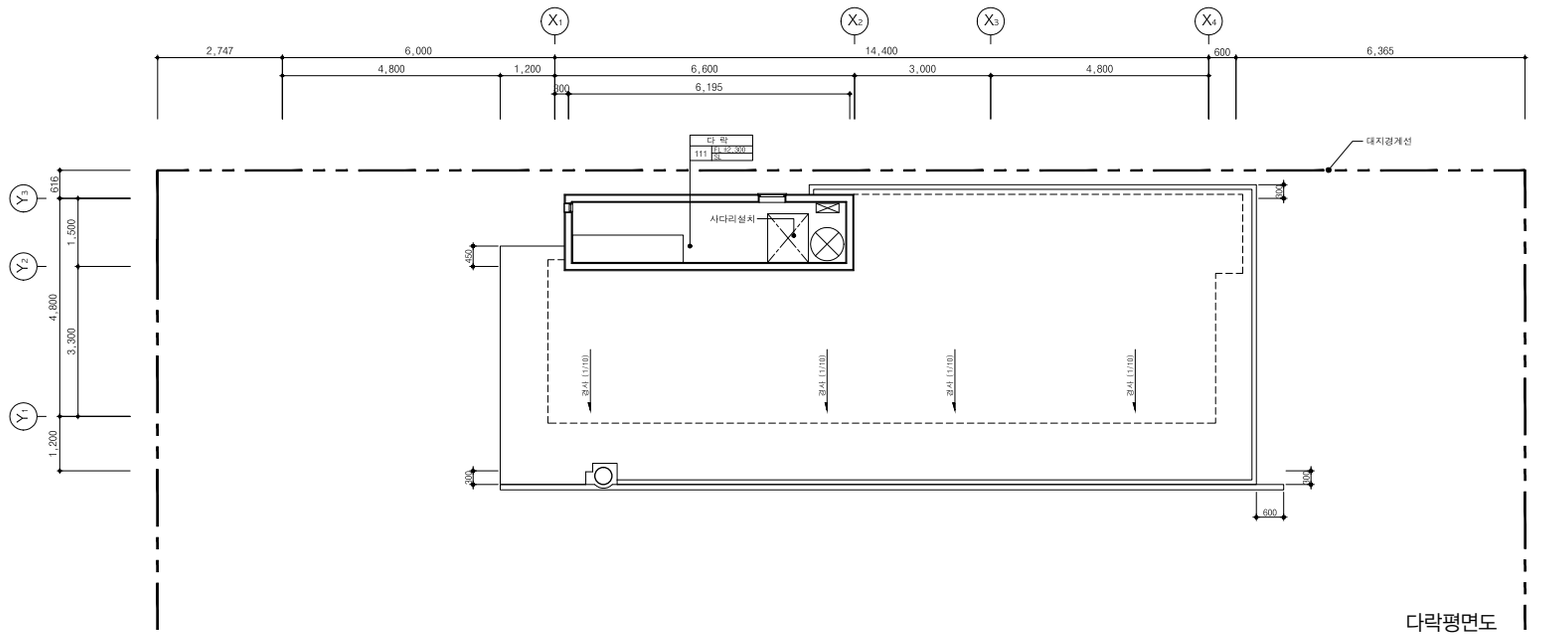
스케치 – 계획

소소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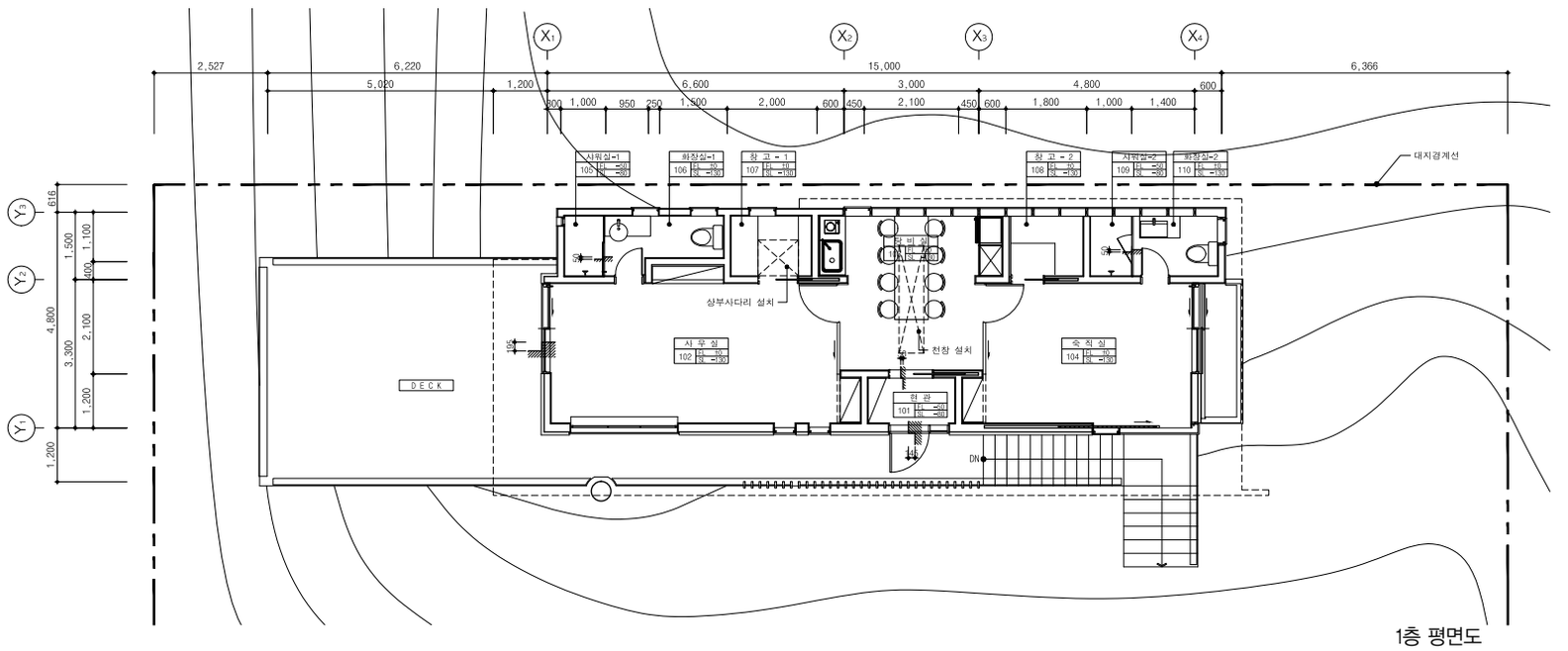
진입계단과 데크의 모습

현관에서 데크를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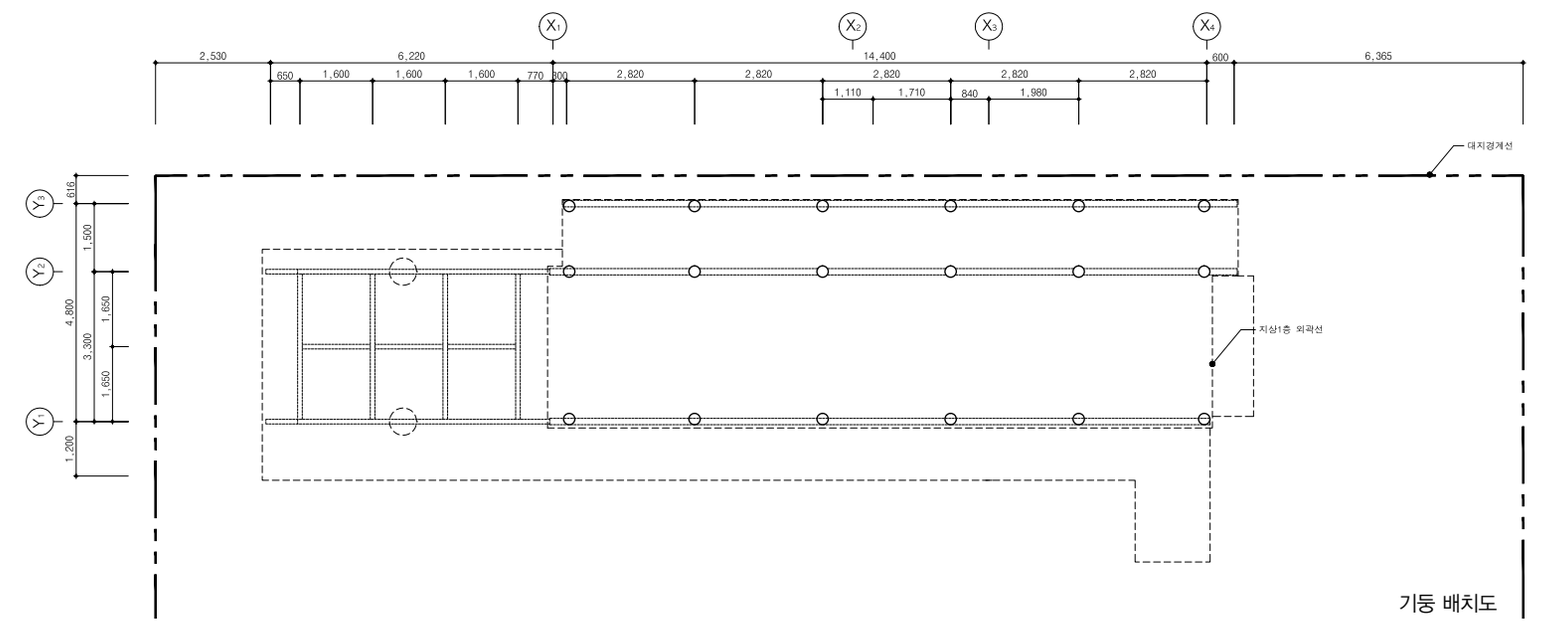
사무실에서 탕비실을 바라본 모습



다락평면도



1층 평면도



기둥 배치도

판교 535-11 U-HAUS

PANGYO 535-11 U-HAUS

건축주 | 이정익

설계자 | 정승이_KIRA | 유한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양용석, 고하동, 장재두

감리자 | 유한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유하우스(U-HAUS)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535-11

대지면적(Site Area) | 232.1㎡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5.36㎡

연면적(Gross Floor Area) | 208.3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70%

용적률(Floor Area Ratio) | 208.31%

규모(Building Scope)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장 _ 모노쿠시, 금속패널, 목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1. 06 ~ 2011. 09

공사기간 | 2011. 10 ~ 2012. 05

사진(Photographer) | Byun, Jong-suk

Client | Lee, Jeong-ik

Architect | Jung, Seung-yi

Project Team | Yang, Yong-seok, Ko, Ha-dong, Jang, Jae-du

Location | 535-11, Pangyo-dong, Seongnam-si, Gyeonggi-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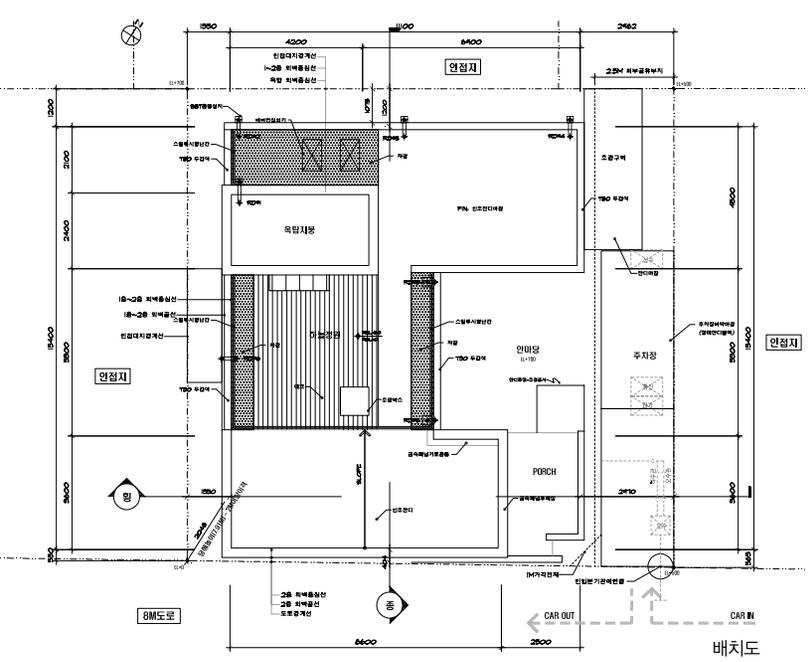
Structure | R.C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Marble, Natural, Paint

Exterior_Monocouche, Zip Panel, Wood

Design period | 2011. 06 ~ 2011. 09

Construction period | 2011. 10 ~ 2012. 05



배치도

가을에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판교 유하우스 535-11 프로젝트는 추운 겨울과 함께하였고, 따뜻한 5월 봄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건물의 위치를 착공 며칠 전에 급히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린가 할 것인데, 이유는 처음 현장 조사를 하였을 때 옆 대지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다른 옆 필지는 나대지의 상태였다.

대지에는 약간의 경사가 있었으며 주변의 환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몇달 후 건축허가를 관청에 접수한 후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보니 그 사이 나대지였던 옆 대지에 공사가 착공되어 기초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변경을 급히 서두른 이유는, 옆집 현관의 위치가 우리 집의 중요공간을 정면으로 볼 수 있어 차후 프라이버시에 많은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착공을 며칠 앞두고 뜻밖의 일이 생긴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할 일은 많고 …….

그래도 평생에 한번 건축을 하는 건축주의 입장을 생각하며 설계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급히 건축주에게 이 부분을 이해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설계변경을 하여 진행하였다. 이 집의 운명이 걸렸던 급박한 시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축주분이 고마움을 표현했고 지금까지도 고마워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보면 건축사는 설계를 하면서 이 집의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문을 통해 현관에 진입하는 방법.

현관을 통해 집에 진입하는 방법.

계단을 통해 공간을 느끼는 방법.

외부공간을 내부공간과 연계시키는 방법.

실별 공간을 연계 시키는 방법 등….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건축사의 생각과 의도에 의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건축사의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의 생각이 따듯한 마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살아갈수록 따뜻한 집이 되는 것이고, 건축사의 생각이 미지근하게 움직였던 프로젝트는 살아갈수록 냉랭한 집이 되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건축은 머리로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는 건축이 진정한 건축이라 믿게 된다.

평면계획

대문을 열면 외부계단을 통해 나름 여유로운 공간을 느끼며 현관으로 진입되게 된다. 현관 앞 공간은 쉼의 공간이 되며 거실과 연계되어 공간을 확장시키며 공간을 사용함에 만족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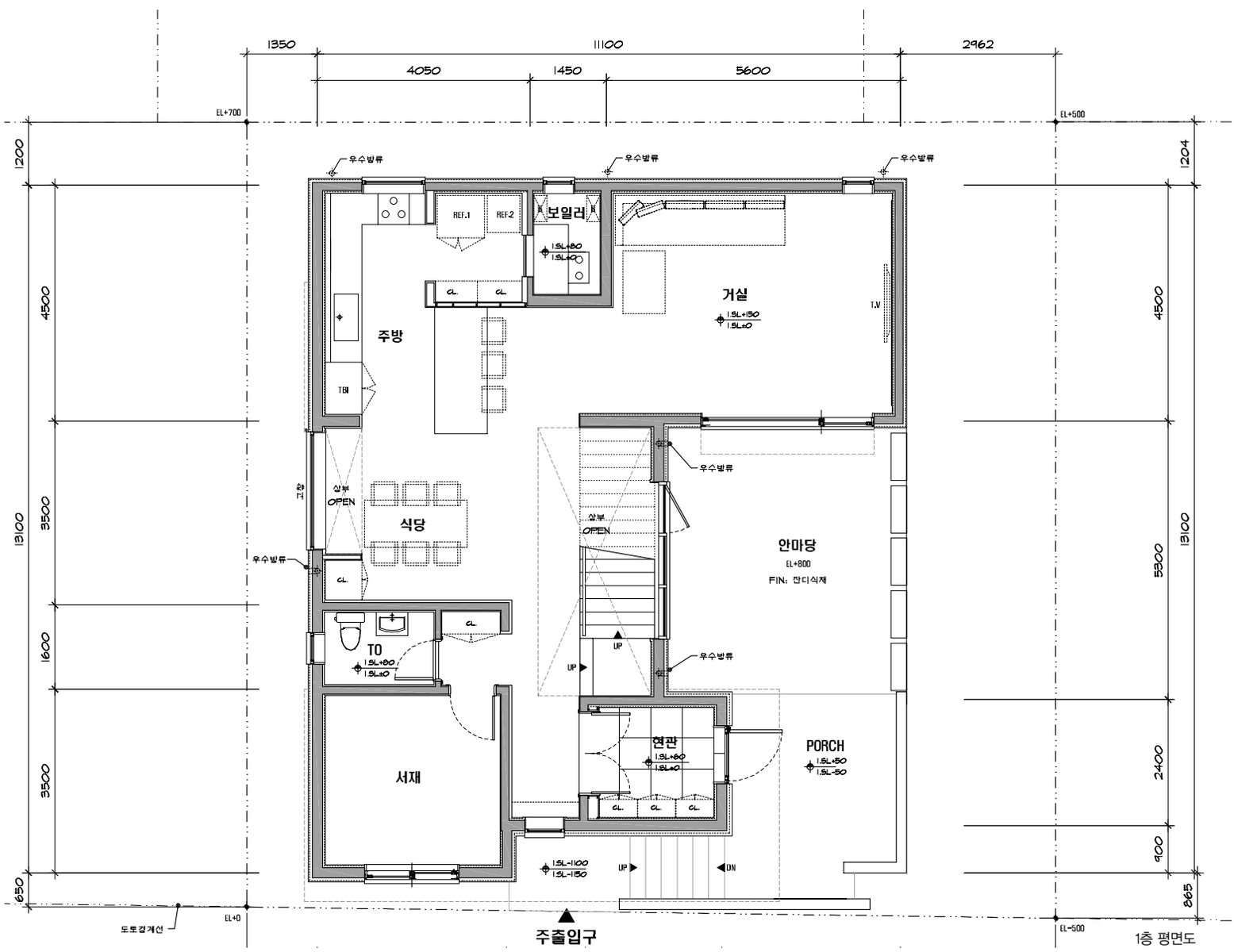
경사대지인 만큼 고저차를 이용하여 거실과 마당의 프라이버시가 외부 시선으로부터 지켜지도록 하였다. 현관을 통해 내부에 진입하면 전면에 아트 월이 있으며 평면, 단면상 넓은 공간이 느껴질 수 있게 하였다. 계단은 건물에서 인테리어 요소로 건축적 요소로 사용할 수 있어 노출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었다. 계단의 공간은 계단의 전면 창을 통해 바라보는 공간으로 만들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풍부한 외부공간과 삶의 공간이기를 바랐다.

주방과 식당공간은 2층 소거실 전면 창으로 남쪽 햇살이 들어오게 되어, 남쪽햇살의 따뜻함이 온 집안에 퍼진다. 2층으로 올라가면 주 침실과 아이들 방이 있으며 중앙에 소거실이 있다. 소거실에서도 계단실 창을 통해 외부 전경을 볼 수 있으며, 1층 식당과 오픈되어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옥상에는 텃밭 공간과 모임의 공간을 두어 가족과 함께 야외 바베큐 등 다양한 이벤트의 공간이 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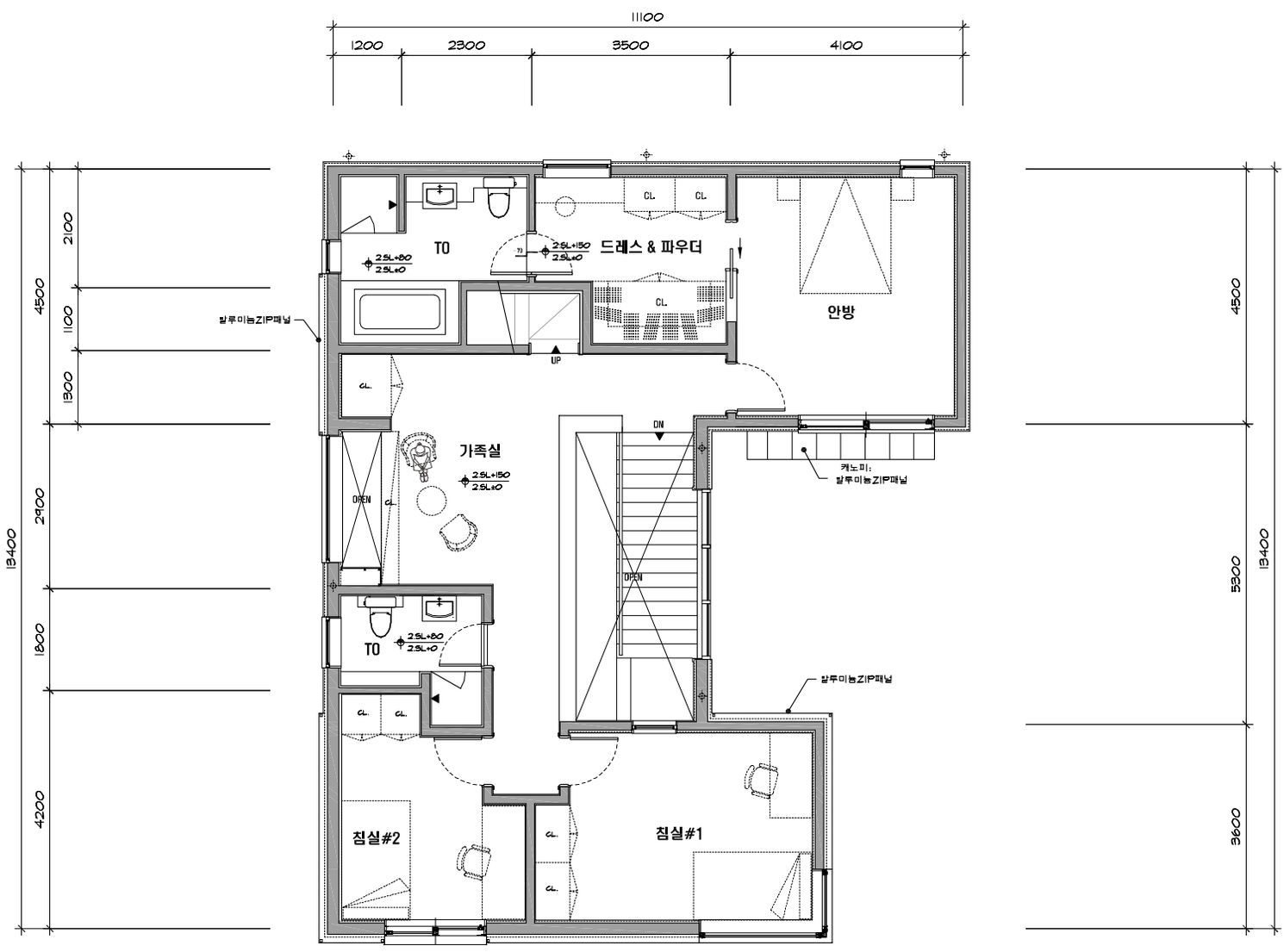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느낌을 말한다면 따듯함이다.

이 건물은 포근한 건축주의 마음을 담은 건물이며, 건축주를 닮은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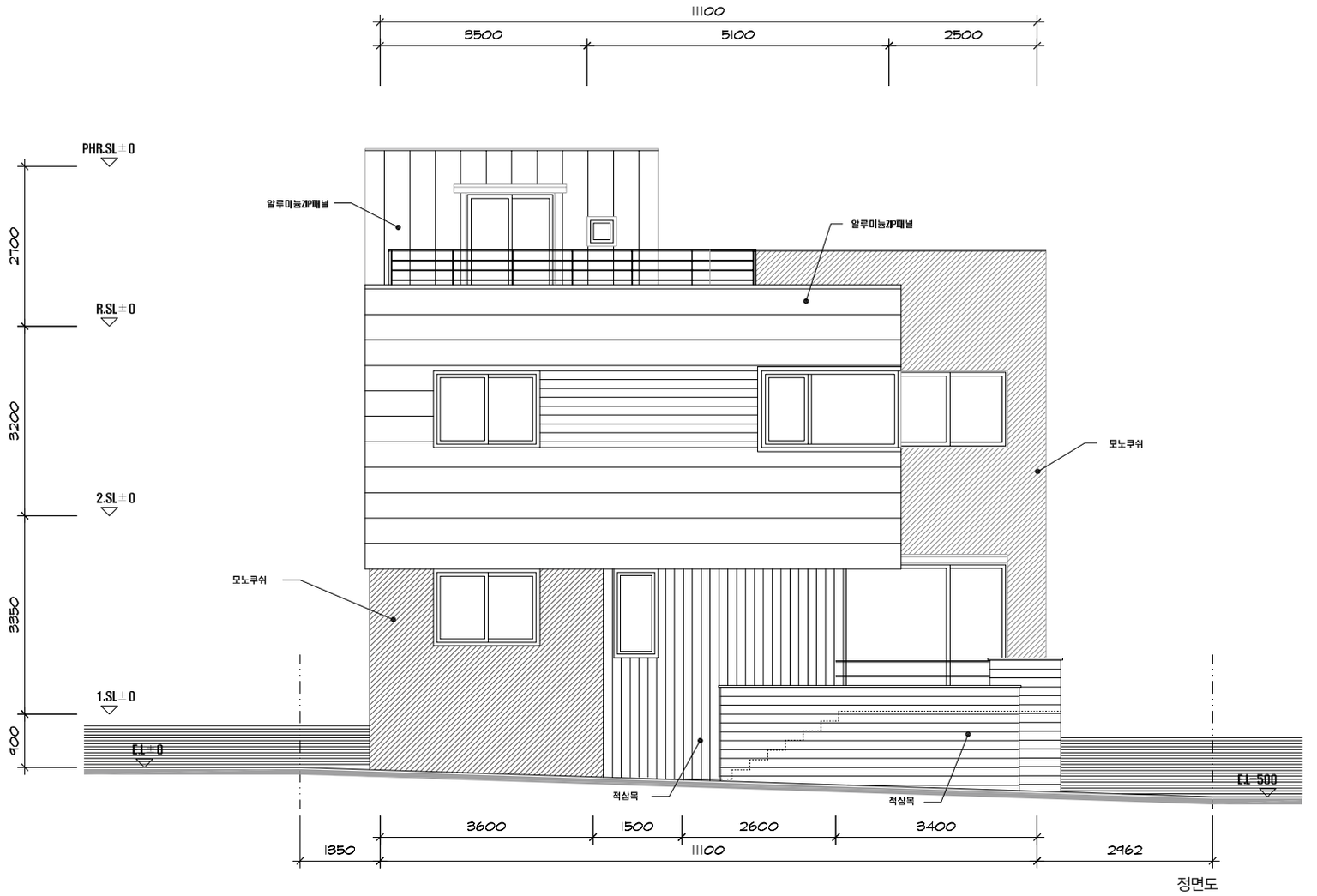
지나가던 중 불이 켜진 건물의 모습을 보니 더욱더 따뜻해 보인다. 가운데 마당을 두고, ㄷ자 형태로 풀어간 판교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판교의 모습과 어우러져, 시간이 지나도 세월의 때가 아름답게 묻어 있을 것이다.


1350
11100
2962
4050
1450
5600
EL+700
EL+500
1200
1204
4500
3500
1600
3500
13100
5300
2400
900
650
865
우수발류
REF.1
REF-2
보일러
1.5L+80
1.5L+40
CL.
거실
1.5L+150
1.5L+40
T.V
주방
TBI
삼부
OPEN
식당
창고
안마당
EL+800
FIN: 잔디식재
UP
TO
1.5L+80
1.5L+40
서재
연관
1.5L+60
1.5L+40
PORCH
1.5L+50
1.5L-50
1.5L-100
1.5L-150
DN
EL+0
EL-500
도로경계선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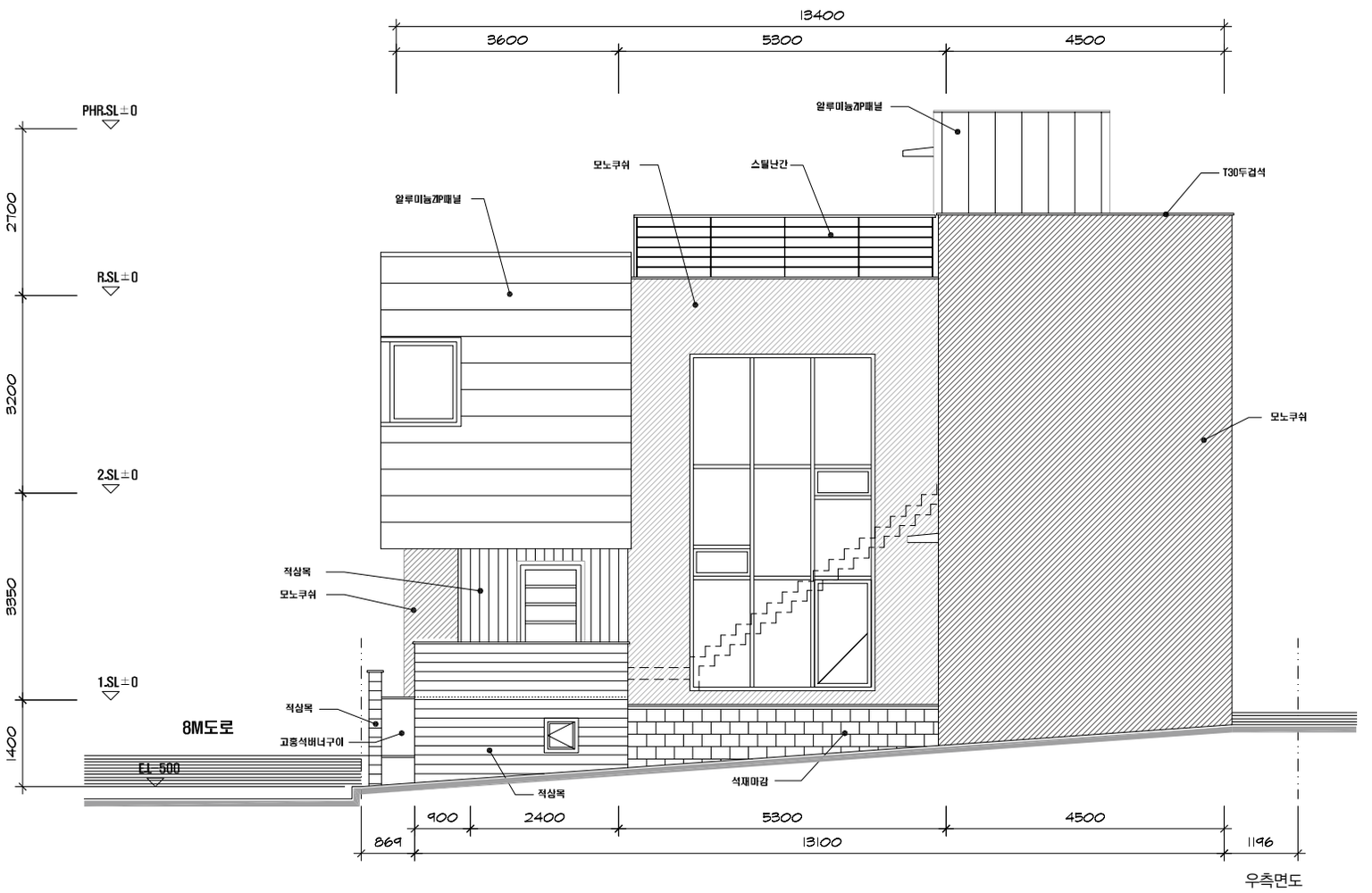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1100
1200
2300
3500
4100
2100
1100
1300
4500
2900
1800
4200
13400
4500
5300
3600
13400
TO
드레스 & 파우더
안방
가족실
TO
침실#2
침실#1
CL
UP
DN
OPEN
OPEN
2.5L+80
2.5L±0
2.5L+150
2.5L±0
2.5L+80
2.5L+0
발루미늄ZIP패널
캐노피:
발루미늄ZIP패널
발루미늄ZIP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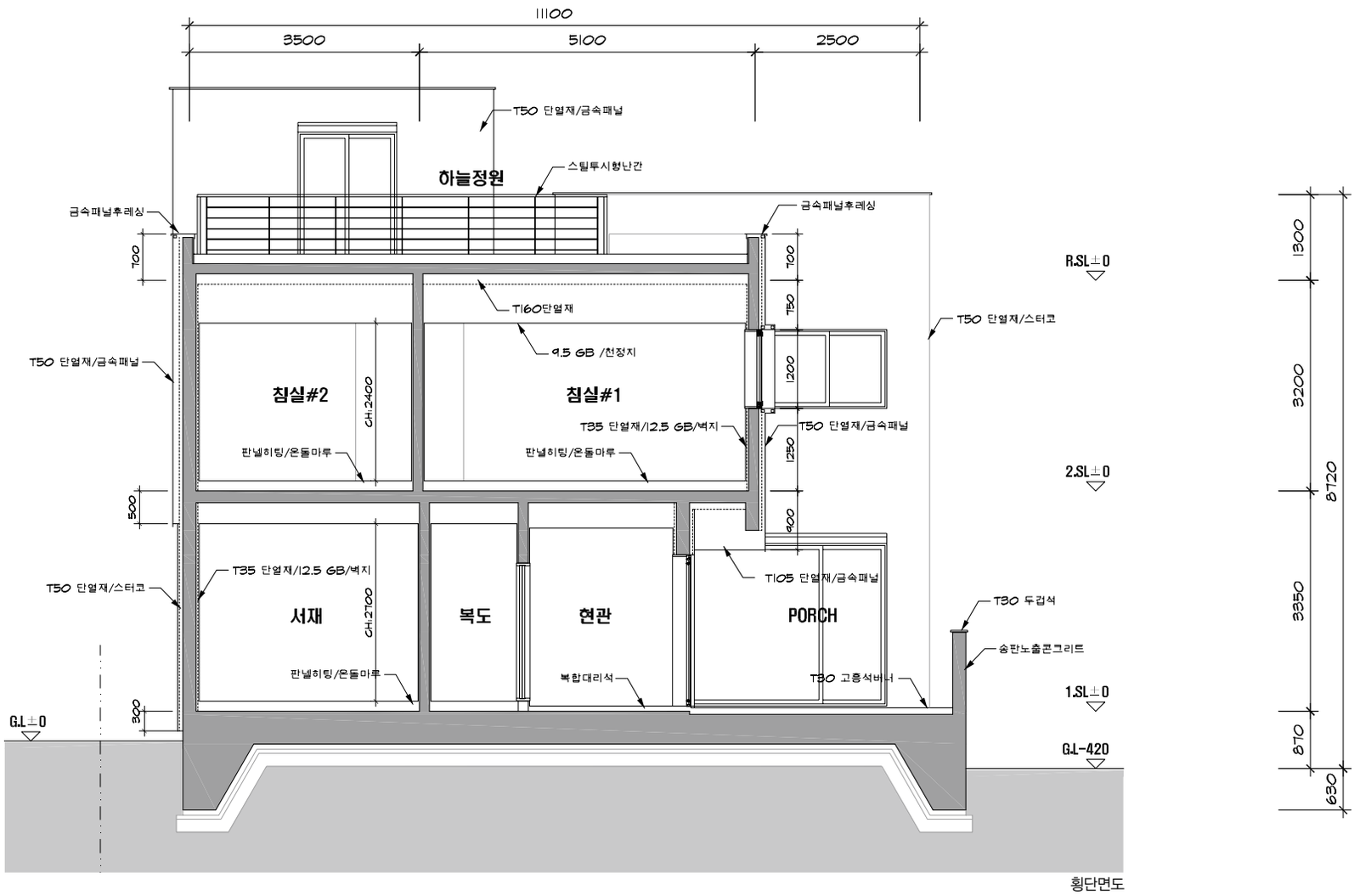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1100
3500
5100
2500
PHR.SL±0
R.SL±0
2.SL±0
1.SL±0
E.L±0
E.L-500
2700
3200
3350
900
알루미늄ZIP패널
알루미늄ZIP패널
모노쿠쉬
모노쿠쉬
적심목
적심목
3600
1500
2600
3400
1350
11100
2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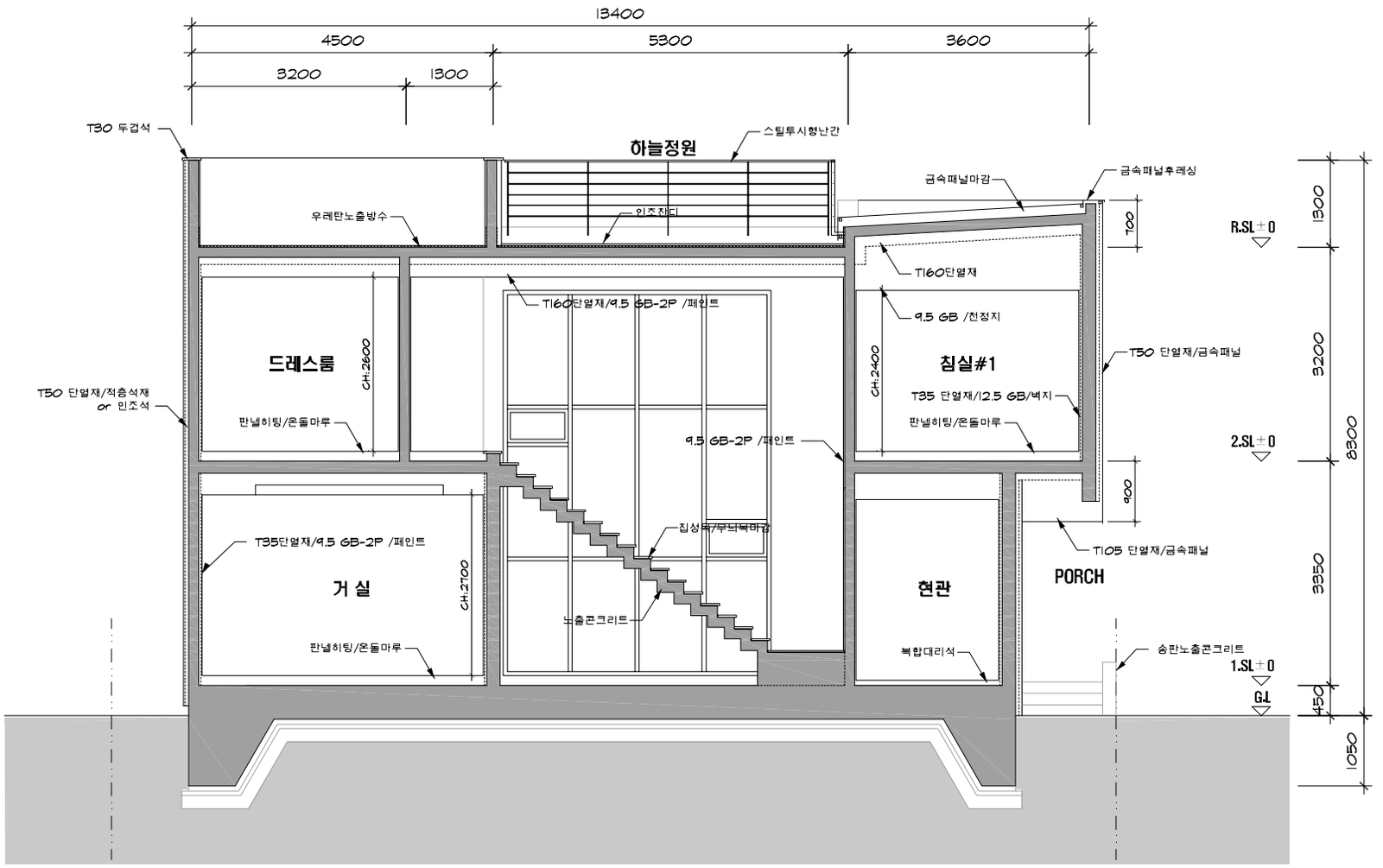
정면도


13400
3600
5300
4500
PHR.SL±0
R.SL±0
2.SL±0
1.SL±0
E.L-500
2700
3200
3350
1400
8M도로
알루미늄ZIP패널
모노쿠쉬
스틸난간
T30두겁석
알루미늄ZIP패널
모노쿠쉬
적심목
모노쿠쉬
적심목
고흥석버너구이
석재마감
900
2400
5300
4500
869
13100
1196

우측면도


11100
3500
5100
2500
T50 단열재/금속패널
하늘정원
스틸투시형난간
금속패널후레싱
금속패널후레싱
700
700
750
1200
1250
400
R.SL±0
2.SL±0
T160단열재
9.5 GB /천정지
T50 단열재/스터코
T50 단열재/금속패널
침실#2
CH:2400
침실#1
T35 단열재/12.5 GB/벽지
T50 단열재/금속패널
판넬히팅/온돌마루
판넬히팅/온돌마루
500
T35 단열재/12.5 GB/벽지
T50 단열재/스터코
서재
CH:2700
복도
현관
PORCH
T105 단열재/금속패널
T30 두겁석
송판노출콘크리트
판넬히팅/온돌마루
복합대리석
T30 고흥석버너
1.SL±0
300
G.L±0
G.L-420
1300
3200
8720
3350
870
630

횡단면도


13400
4500
5300
3600
3200
1300
T30 두겁석
하늘정원
스틸투시형난간
금속패널마감
금속패널후레싱
우레탄노출방수
인조잔디
700
R.SL±0
T160단열재
T160단열재/9.5 GB-2P /페인트
9.5 GB /천정지
드레스룸
CH:2600
침실#1
CH:2400
T50 단열재/금속패널
T50 단열재/적층석재
or 인조석
판넬히팅/온돌마루
T35 단열재/12.5 GB/벽지
판넬히팅/온돌마루
9.5 GB-2P /페인트
2.SL±0
400
T35단열재/9.5 GB-2P /페인트
집성목/무늬목마감
T105 단열재/금속패널
거 실
CH:2700
현관
PORCH
노출콘크리트
복합대리석
송판노출콘크리트
1.SL±0
G.L
1300
3200
3300
3350
450
1050

종단면도

증평군립도서관 _당선작

JEUNGPYEONG LIBRARY

발주자 : 증평군청

설계자 : 문종욱 | (주)제이엔피 건축사사무소
임채돈 KIRA | (주)제이엔피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박종훈, 윤종덕, 최영민, 김현기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윤흠학(전우구조)
- 기계/설비 : 신효섭(주. 트루만)
- 전기/통신 : 김용배(주. 우인기술단)
- 토목 : 장병육(대영토목설계공사)
- 조경 : 김민중(주. 쟁이 환경디자인)

대지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공공시설 용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3,020.00㎡
건축면적 1,140.08㎡
연 면 적 2,866.77㎡
건 폐 율 37.75% (법정 60%)
용 적 률 83.23% (법정 4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3층
주요마감 화강석, AL패널, 고밀도압축목재패널, PV, 로이복층유리

프롤로그(Prologue) –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보관하고 읽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다. 자료, 정보수집 및 전달 등의 기존의 역할과 더불어 책을 매개로 강연을 열고 재능기부, 독서토론, 캠프 등을 여는 등의 지역사회의 문화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핵심 공공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증평군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문화 네트워크 기능을 연결(LINK)하는 아카이브(Archive)로써의 지역주민에게 개방적인 지역거점 도서관이 될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아울러 태양광산업특구(Solar Valley)에 위치한 장소적 특성에 따라 태양광 체험시설로써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건축개념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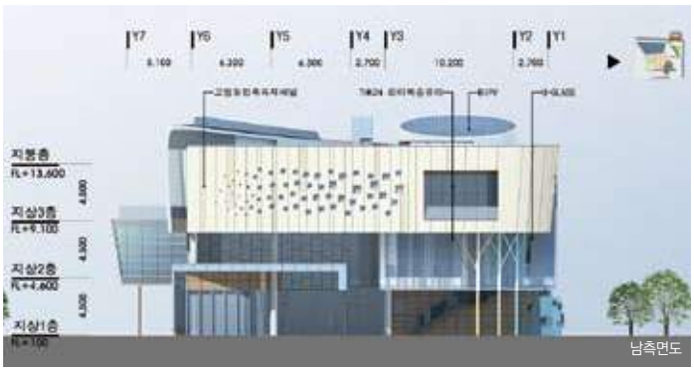
배치, 동선 – 대지는 송산택지개발지구내 중심부 2면의 대로에 접한 코너형으로 모서리부분을 중심으로 진입마당과 생태체험마당으로 분리하여 남측정면부 외부공간은 태양광 옥외체험을 주제로 한 어린이생태체험놀이마당을 계획하고 주출입구측 진입마당은 전면보행로와 연접시켜 개방감과 인지성을 강조하였다. 보행동선은 방문객주차장과 직원, 서비스 주차공간을 분리하여 방문객 주출입구와 직원, 서비스 부출입구를 별도로 계획하였고 진입마당 측에서 3층의 교육, 문화공간으로 별도의 외부계단을 계획하였다.

평면 – 평면은 코어부와 공용홀, 열람실 등 기능별 실별로 외부공간, 향과 조망 등을 고려하여 조닝하였고 각각의 열람실은 유기적인 공간구성으로 운영에 따른 다양한 가변적 효율성을 꾀하고자 개방적으로 계획하고 1층의 어린이 열람실, 2층의 종합자료실 등과 분리하여 3층의 교육, 문화시설로 진입마당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계단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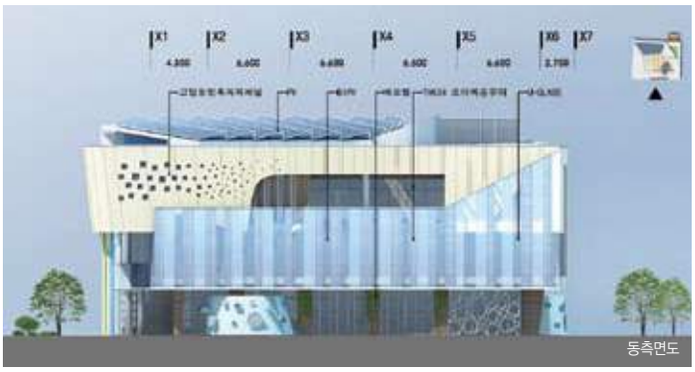
형태,입면 – 송산택지개발지구의 중심축에 위치한 코너형 대지에 적정한 볼륨으로 모서리를 강조한 정면성을 부여하고 보행동선의 흐름과 자연적입지에 조화를 이루는 형태적 역동성을 강조하였고 태양광시설요소를 형태와 외관(Skin)에 적절히 혼용하여 지역적, 장소적특성을 반영한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배치도

투시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증평군립도서관 _우수작

JEUNGPYEONG LIBRARY

발주자 : 증평군청

설계자 : 류대현 KIRA |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강희준(건축사), 김경돈, 유호동, 김종표, 강성용

대지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주요용도	(어린이)도서관
대지면적	3,020.00㎡
건축면적	1,444.88㎡
연 면 적	2,897.94㎡
건 폐 율	47.84 %
용 적 률	95.96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3층
주요마감	태양광패널(BIPV),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패널, 목재패널

배치계획

주변환경에 따른 배치계획으로 택지개발지구와 구도심의 경계에서 주변의 자연이 흐를 수 있는 틈이 형성되는 배치계획 및 향후 건립될 공공청사의 연계성으로 도서관은 향후 건립 될 건축물의 연계성을 강조하게 배치 전면광장, 주차장을 공유하고 동선이 연결되게 한다.

평면계획

1층평면 : 사람, 자연, 정보가 상호교류하는 체험도서관 계획
– 이용자에 따른 영역을 분리 계획과 다양한 진입 계획으로 접근성 확보
– 어린이와 유아의 접근과 외부공간의 활용 개방형 공간의 이용률을 위한 저층계획

2층평면 : 강의/다목적실 등 개방적이고, 집중도가 필요한 실은 별도 출입계획
– 문화 및 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영역분리 시키며, 외부에서 접근되도록 계획
– 문화/교육영역을 특성화 시키며, 2층으로 직접 접근하도록 계획

3층평면 : 목련언덕(중정)과의 시각적연계를 통해 행복한 지식을 담는 감성어린 도서관계획
–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평면계획과 다양한 진입 계획으로 접근성 확보
– 기능별 명확한 조닝으로 그룹화된 매스는 이용자 및 사용자 편의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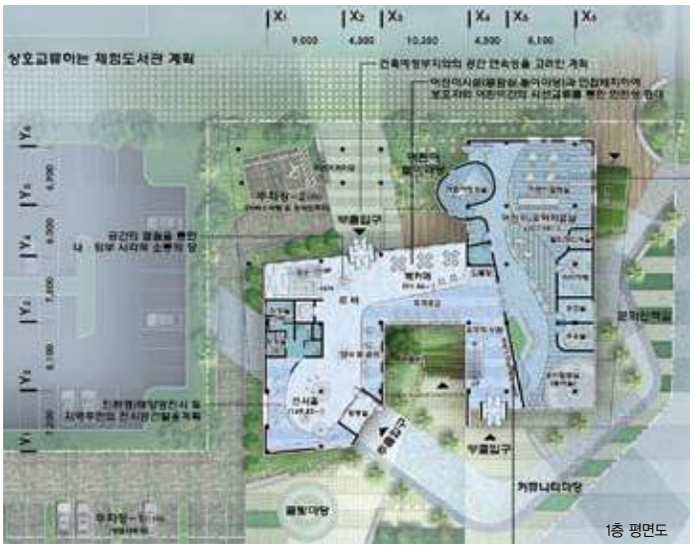
입, 단면계획

입면계획 : 구도심과 신도심의 관문적 상징적 이미지와 새로운 에너지의 창출을 보여주는 입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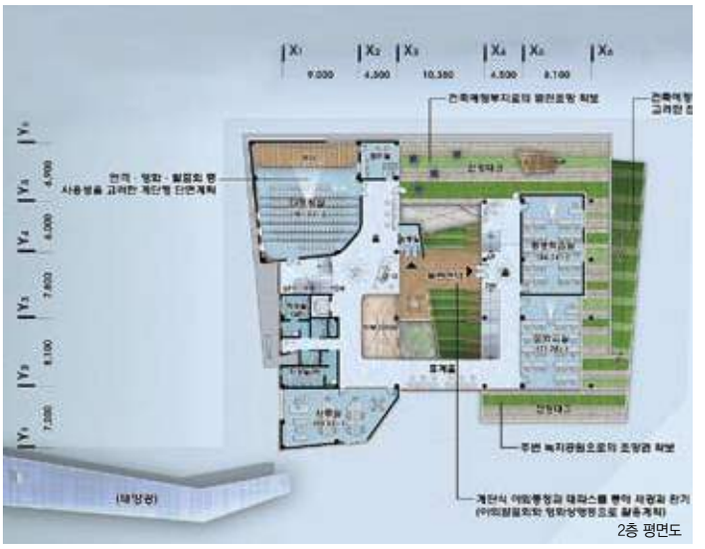
단면계획 : 각 층별 조닝계획을 통한 이용성 확보, 중정 및 외부램프를 통한 접근성 용이 추후 건축예정 부지와의 연계성 확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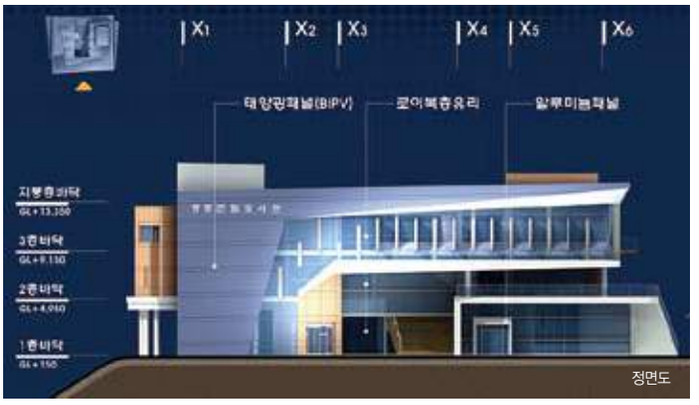
조감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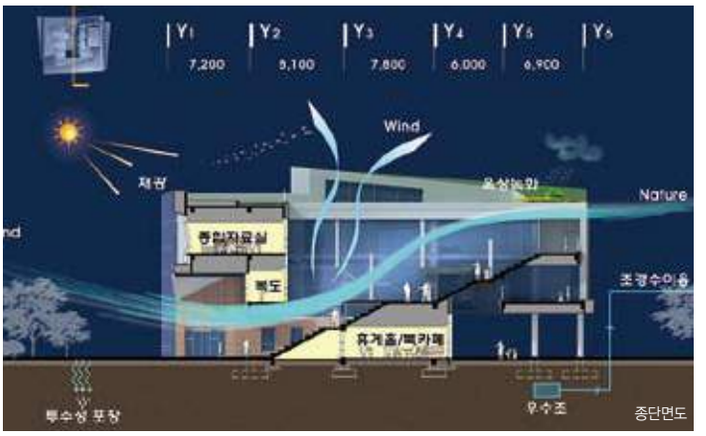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증평군립도서관 _가작

JEUNGPYEONG LIBRARY

발주자 : 증평군청

설계자 : 이준무 | ㈜제이티엠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정태종, 박상민, 황아미, 남현철, 신희주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주)PEG구조엔지니어링
- 기계 : (주)성아이엔씨
- 전기 : 한일전기기술사사무소
- CG : 이맥시스

대지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주요용도 (어린이)도서관
대지면적 3,020㎡
건축면적 1,183.59㎡
연 면 적 2,770.59㎡
건 폐 율 39.19%
용 적 률 77.16%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3층
주요마감 고밀도목재패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칼라로이복층유리, SPG systemL복합패널

태양의 바람으로 책 장(뜰)을 넘기다.

장뜰에서 태양의 도시 '증평'으로…

증평의 옛 지명은 장뜰이라 했다.
중원 지역의 일부였던 증평은 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한 농업중심 지역이었으나,
21세기 친환경 사업의 일부인 태양광 산업단지로 인하여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새로운 도약의 바람에 문화의 바람이 더해지길 바라며, 복합정보문화센터로써의 도서관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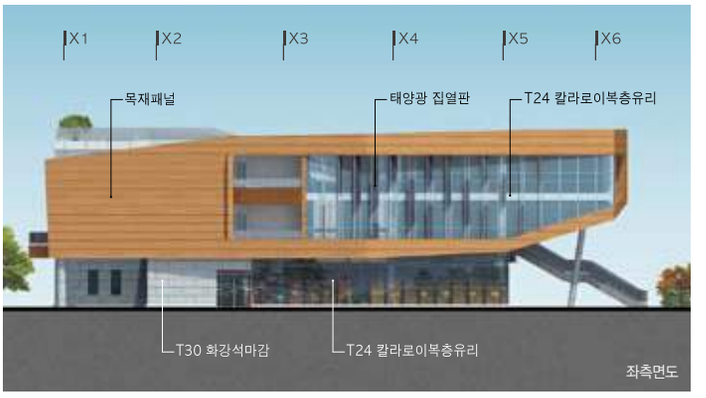
ECO LIBRARY
hEaling :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쉼터공간으로써의 힐링도서관
Culture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써의 문화도서관
educatiOn: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교육공간으로써의 교육도서관

배치계획
도서관 기능을 분석하여 문화복지공간과 종합정보공간으로의 분류를 통한 두 개의 영역적 분리로 북서측의 두타산과 동남측의 보강천의 자연축을 연결하고, 택지지구내 도서관의 인지성 및 상징성 구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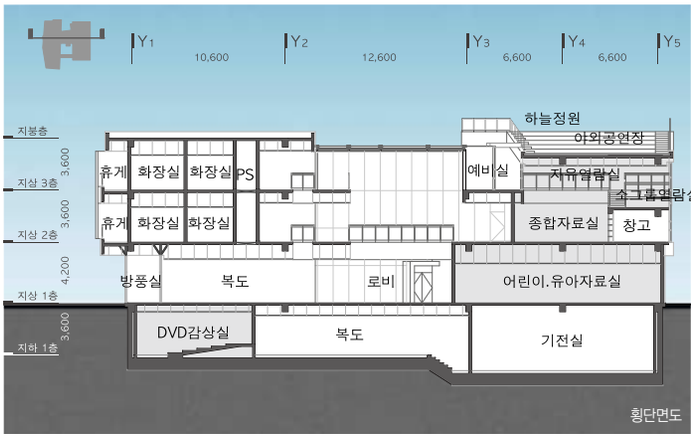
배치도

로비 실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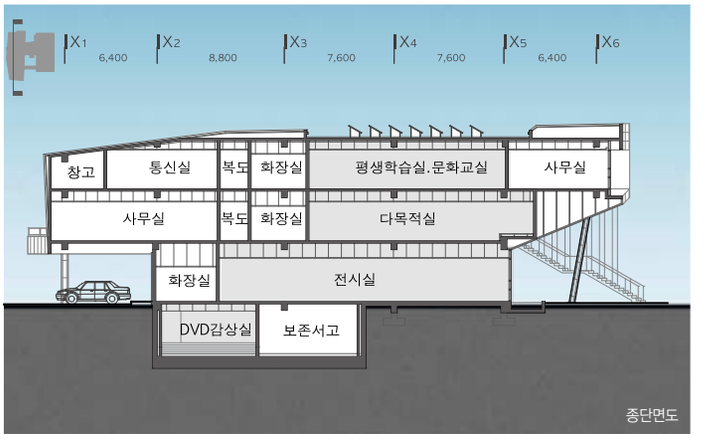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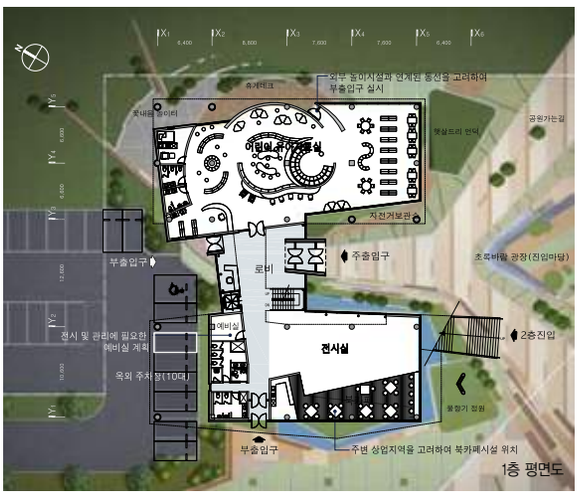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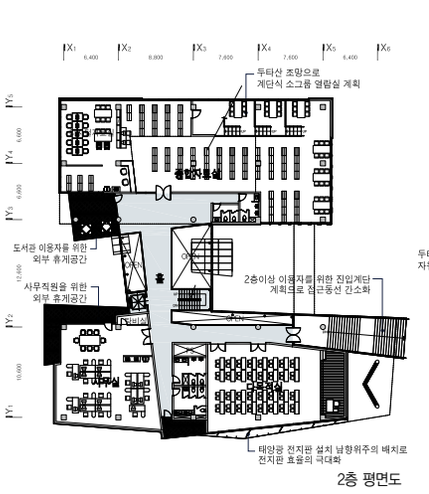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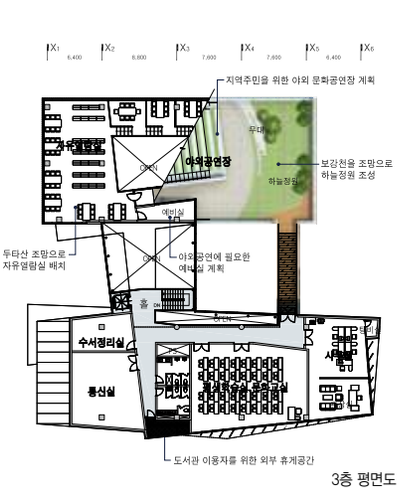
종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순창군립도서관 _당선작

SUNCHANG LIBRARY

발주자 : 순창군청

설계자 : 이길환 KIRA | ㈜길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완중, 설형진, 김대진, 서한규, 김진배, 조두현

대지위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266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도서관
대지면적	2,162.00㎡
건축면적	760.84㎡
연 면 적	1,183.49㎡
건 폐 율	36.20%
용 적 률	56.30%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ZINC 판넬, 노출콘크리트, 칼라로이 복층유리, 와편 1열쌓기

대지현황분석

순창 군립도서관 대지는 휴게공간이 부족한 도심속에 위치하여 군민의 작은 휴식공간(공원)의 잠재력을 가지며 문화벨트 축으로 속하는 공공문화시설이 될 것이다.

배치계획

건물은 북측에 광장은 남측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다. 건물은 공간의 흐름에 비례하여 매스를 생성하였으며 중심을 비워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기능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였다.

평면계획

평면개념 – 교육시설존 중심에 커뮤니티공간(가온마루)을 배치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의 교류 및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계획하였다.
지하 1층 – 각 기능과 최적의 거리에 배치하여 효율성 극대화, 3m도로변 장비반입구 설치로 접근이 용이
1층 – 1층 종합자료실과 2층 열람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내부계단의 측면에 계단형 서가를 설치하여, 자료열람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Open형의 공간 연출
2층 – 각 실과의 접근성을 높인 커뮤니티 공간조성,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외부환경과 연계한 자연채광 및 환기의 적극 유입이 가능한 실내공간계획

입면계획

– 전통의 멋과 지혜가 담긴 처마의 재해석
– 모던한 이미지와 함께 기와의 적층이 주는 친근함과 다양성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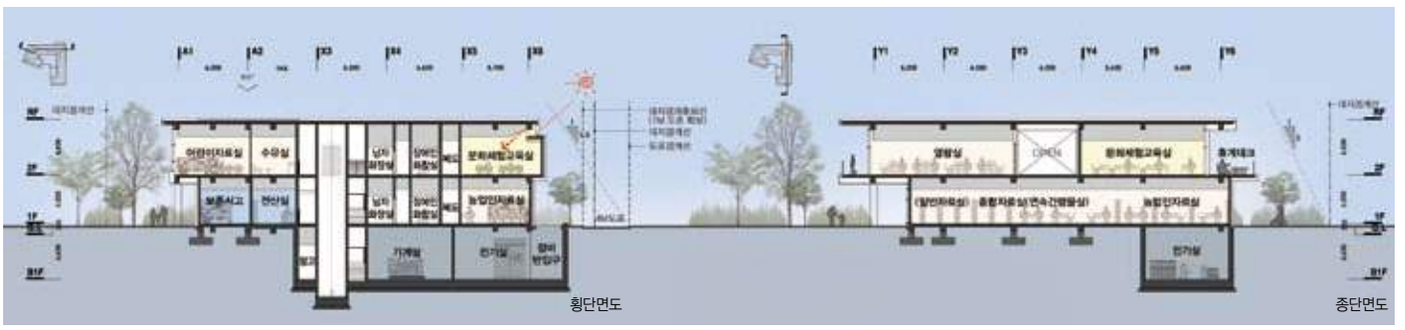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조감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순창군립도서관 _우수작

SUNCHANG LIBRARY

발주자 : 순창군청

설계자 : 김남중 KIRA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오지영, 임성환, 한연희, 노호준, 조수민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전북CS구조연구소
– 설비 : (주)주연이엔지

대지위치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226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도서관
대지면적	2,160.00㎡
건축면적	858.22㎡
연 면 적	1,185.05㎡
건 폐 율	40.81%
용 적 률	56.3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2층
주요마감	실내 – 한지마감, 친환경페인트, 인조대리석 실외 –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시트, 고밀도목재, 노출콘크리트

작품설명

순창 군립도서관의 대지는 강한 특징을 가지는데, 바로 세 개의 접근로가 접해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접근로에서 누구나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 계획을 하였다.

우선 모든 보행로의 단차를 없애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이 순조롭게 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언제나 지식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어느 방향에서나 도서관으로 접근 할 수 있게 접근성을 확보한 열린 도서관으로써 군민을 위한 생활 속 공공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와 더불어 도서관이 접근로와 접근로를 막아서는 건축물이 아닌 도서관 주위로 배회마당을 두어서 접근로와 접근로를 연결 시켜주는 연결고리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연 및 전시공간으로 사용 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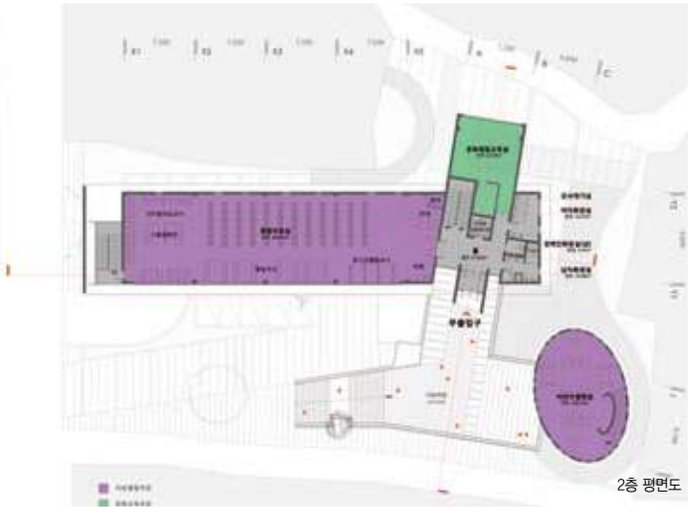
실내의 구조나 규모는 순창군의 특성에 맞춰 농업인자료실을 주출입구에 가깝게 위치하여 농업인들이 편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배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자료실을 타원형의 구조로 디자인 하여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딱딱하게 느끼지 않고 편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생각하게 하여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놀이터로 여겨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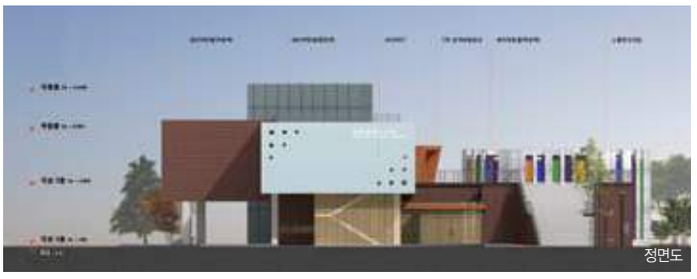
그리고 주를 이루는 종합 자료실 및 열람코너는 어린이 자료실과 거리 및 층의 차이를 두어서 소음 문제 등을 해결 하였다. 또한 증축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가장 이상적인 수평을 살린 디자인으로 언제든지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맞추어 순창군립도서관이 수직 성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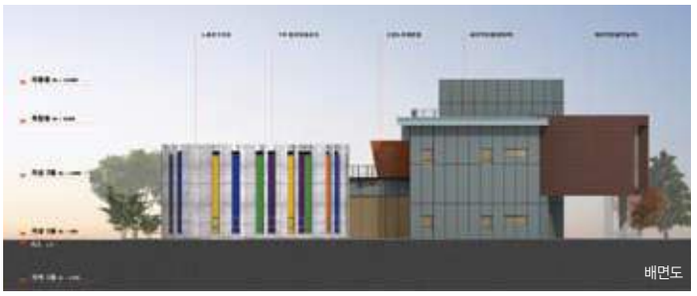
실내투시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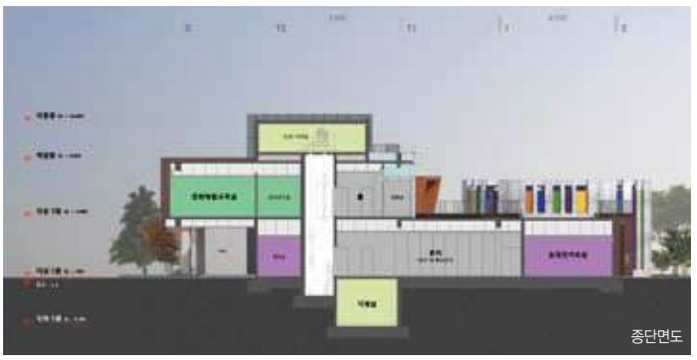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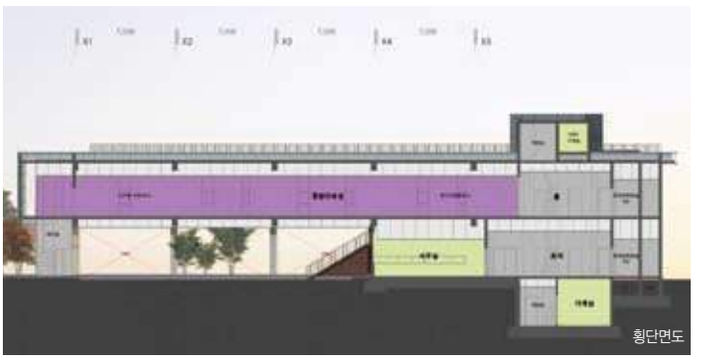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Urgent issues for our generation

우지환 | ㈜엑스퍼트벤쳐 건축사사무소

우리의 주변 환경은 안전한 건지. 살펴보면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사건과 크고 작은 사건에서 얻은 교훈도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한수원의 납품비리사건은 어떤 인재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예상과 추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의 불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였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앞으로는 점점 피할 수 없는 가뭄과 한파와 홍수에 의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2011년 7월 우면산 붕괴와 같은 천재가 아닌 인재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과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탁상공론으로 그 대책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싱가포르는 작은 국토 면적에 수자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척박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토양의 3분의 2가 물을 모을 수 있도록 17개의 저수지를 설치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빗물을 수집하고 저장된 빗물은 처리 과정을 거쳐, 배수설비 · 운하 · 강 및 우수 집수정으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통해 싱가포르를 푸른 정원과 깨끗한 물의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일본은, 연평균 강수량 2,000mm로 세계 평균인 973mm의 배 이상 훌쩍 넘는다. 우리나라 강수량 1,283mm보다도 50% 이상 물이 많은 환경이다. 그렇다고 비가 우리나라처럼 주로 여름에만 오지 않고 초봄부터 늦겨울에 이르기까지 사계절 쉬지 않고 비가 내린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은 수해가 심한 지역의 해결을 위해 대규모 지하댐을 구축하여 여름철 가뭄에는 농사용이나 비상식수로 사용하고 홍수에는 비 피해를 최소화하며, 아울러 재난 방지인 화재 진압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기반시설은 단기간에 이룩한 성과가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홍수 또는 극심한 가뭄에 국민의 동요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홍수 시 빗물을 저장할 시스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빗물이용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산발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준비단계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근본 원인 분석과 절대적 필요성의 해소는 어느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신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와 정권의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시적 차원의 마스터플랜 확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체계

필자는 199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1994년 법인 설립이후 (주)엑스퍼트벤쳐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동대학원에서 건축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법원행정처 법원전문심리위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평가위원, 서울시 성동구 도시분쟁조정위원, 부천시 외부전문가감사위원,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겸임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국가 기반시설 등의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참된 안전은 현 세대가 후손을 위해 준비해야만 한다.

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됨은 물론 국민 모두의 동참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서 물 절약, 빗물저장이 아닌 빗물 절약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여 국가의 이익으로 나타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립된 마스터플랜은 정권이나 주무 책임자가 바뀌어도 꾸준한 보완에 의해서 완성을 해야만 한다.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심사숙고를 통해 입안된 수많은 정책들. 그러한 정책의 집행은 정부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관된 연속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뒤돌아보면 앞선 정권에 수립된 정책과 수년전 수립된 정책들이 정권 또는 주무 책임자가 교체됨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전면 수정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이러한 정책의 전면 변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원의 낭비와 에너지의 소비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는 곧 서민들의 힘겨움을 가중시키는 원초적 원인이다.
내가 만든 국가 정책이 나 혼자만의 전유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이 정치적인 놀음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싸움들이 늘 반복을 거듭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유심히 살피고 정책의 제안이나 입안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정책의 전면변경 보다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에 의한 보완과 재확립을 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것은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다.

선거를 통하여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어 나를 일하게 하였듯이, 선거 당시 간절하고 소중했던 한 표를 원했던 당시의 민심을 떠올려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게 주었던 작은 힘들이 진정 원했던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시행하려는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이 과연 올바른 것이며 국민과 그리고 후손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하여야 한다. 단순한 나의 업적으로만 내 명분에 국한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의 근대사는 일본의 찬탈과 가깝게는 6.25전쟁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전쟁과 격변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픔을 견디며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곡식의 소출은 1년을 투자해야 하고, 나무의 성장은 10년을 투자해야 하며, 인재의 양성은 100년을 투자해야 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야 하듯, 우리는 지금 전국의 도로와 교량, 항만, 열악한 기반 위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들, 자연재해인 홍수와 가뭄의 대책 등에 대하여 국가에게 과감히 투자할 것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국가 기반시설 등의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참된 안전은 현 세대가 후손을 위해 준비해야만 한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세대를 초월하여 10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린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값진 유산으로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후손을 위한 우리의 부끄럽지 않은 지속가능한 대물림이 아니겠는가?

미완성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Building construction transfer and the original ownership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질문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원래의 건축주에게 있는가 아니면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자에게 있는가?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자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것이다.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즉, 대법원의 입장은 '공사 중단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그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일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것인가?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써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①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판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및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판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을 소개한다.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판결이며,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판결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의 원점, 정동의 탄생

Modern Korea and the birth of Jungdong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정동은 서울에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지명의 하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근대가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정동의 유래

정동이라는 지명은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능이 위치한 데서 유래되었다. 태조 이성계의 경처(京妻)였던 강씨는 1392년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현비로 책봉되었으나, 병을 얻어 판내시부사 이득분의 집에 피접하였다가, 태조 5년 8월 13일에 그 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이에 봉상시에서 존호를 신덕왕후라 하고 능호를 정릉으로 정함에 따라 신덕왕후의 능이 위치한 곳을 정릉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림 1〉 광통교 하부 교각에 사용된 정릉의 석물

태조실록에 따르면 정릉의 위치는 취현방 북원으로 지금의 정동 4번지(현 영국대사관)로 추정된다. 1406년의 태종실록에 따르면 '정릉이 도성 안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의 경계가 너무 넓으니, 능에서 1백보 밖에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의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세도가가 정릉의 좋은 땅을 점유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정릉은 1408년에 태상왕이었던 태조가 돌아가신 후 1409년 2월 23일,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貞陵)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관사(館舍, 太平館)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라는 의정부의 상소에 따라 정릉이 동소문 밖의 사을한리(沙乙閑里, 현 정릉) 산기슭으로 옮겨졌다.

정릉이 옮겨진지 한 달여 후에는 능의 정자각이 태평관의 북루(北樓)를 짓는데 사용되었다. 이는 태종이 직접 이귀령에게 '참찬(參贊)은 태평관 감조 제조(太平館監造提調)이니, 정릉(貞陵)의 정자각(亭子閣)을 헐어서 루(樓) 3칸을 짓고, 관(館)의 구청(舊廳)을 가지고 동헌(東軒) · 서헌(西軒)을 창건하면, 목석(木石)의 공력을 덜고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황엄(黃儼)이 일찍이 말하기를, '정자 터를 높이 쌓고, 가운데에 누각(樓閣)을 짓고, 동쪽 · 서쪽에 헌(軒)을 지어 놓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누각을 짓는 것은 황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분(封墳)은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석인(石人,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 문인석, 무인석 등을 지칭한다)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고 일렀다. 이에 대해 황희(黃喜)가 "석인을 가지고 주초(柱礎)를 메우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으나, 태종은 석인을 주초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땅에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한다.

이어서, 1410년 8월에 청계천이 범람하여 흙으로 만들어졌던 광교가 무너지자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정릉의 석물을 사용하여 광교를 새로 놓았다고 한다. 이때 광통교의 석축에 사용되었던 정릉의 석물들이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다시 드러났다.

한편, 태조는 신덕왕후(?~1396.8.13)의 명복을 빌기 위해 흥천사를 지었다. 1396년 12월 1일자 태조실록에는 태조가 흥천사에 들려 사찰을 짓는 공장들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가 흥천사 건설에 관심이 컸음을 보여준다. 이듬해 2월 19일에는 임금이 처음에 정릉(현 정동)에 절을 세운 것은 아침저녁으로 향화(香火, 향을 피운다는 뜻으로 '제사'를 이르는 말)만들 받들기 위함이었는데, 김사행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환관을 지내면서 조선 건국 후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김사행은 내부시판사에 이어 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에 가락백(駕洛伯)으로 봉해져 세를 누렸으나,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1].

흥천사의 건립이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던 만큼 정릉이 도성 밖으로 옮겨진 후에는 그 역할이 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사찰의 역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조실록에는 신덕왕후의 릉이 옮겨진 후에 비가 적은 해에는 흥천사에서 주로 기우제를 지냈으며, 일본의 사신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의 하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교가 사회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찰의 역할에 대한 반대가 이어졌다. 1485년 성종 16년에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성근이 가뭄 때 부처의 힘을 빌려 원각사와 흥천사에서 기우제가 행해지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1491년 6월 16일에는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정탁(鄭鐸)이 흥천사 수리를 중지할 것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성종이 '내가 이단(異端)을 숭상해서가 아니다. 조종조(祖宗朝)부터 왜인으로 조정에 오는 자 중에 혹 보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무너뜨릴 수가 없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흥천사의 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흥천사를 보기를 바라는 왜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수리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504년 연산 10년에 흥천사에 불이 나면서 폐허가 되면서 정동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

정동, 조선의 미래를 품다

정동이 조선의 역사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선이 맞이했던 미증유의 국난이었던 임진왜란을 통해서다. 의주에서 돌아온 선조가 정동에 위치했던 월산대군의 사저를 임시 행궁으로 삼음에 따라 경운궁과 함께 정동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의 파죽지세에 밀려 한양을 내주었던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가 한양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한양에는 선조가 마땅하게 거처할 곳이 없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탔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 2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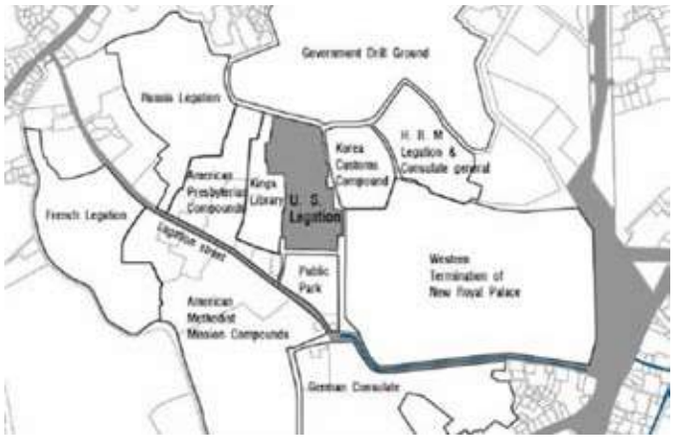
"상(上)이 아침에 벽제역(辟除驛)을 출발하여 점심 때 미륵원(彌勒院)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정릉동 행궁에 이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성으로 돌아오더라도 선조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처지에서, 정부는 구월산대군의 사저를 시어소로 정했고, 그 집은 자연스럽게 정릉동 행궁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월산대군 집이 행궁이 되면서 수리와 동시에 계림군[2]의 집을 행궁에 편입하는 등 협소한 궁역을 넓히기 시작했으나, 당시 정릉동 행궁의 영역과 건축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후 광해군을 거쳐 인조반정으로 즉위한 인조가 즉조당에서 즉위한 후 정궁을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경운궁 궁역의 포함되었던 가옥중 선조가 침전으로 사용했던 석어당과 인조가 즉위한 즉조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고 하면서 경운궁 궁역은 해체되었다. 궁역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조당과 석어당을 보존케 한 것은 이들 두 건물이 국난 극복의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입각하여 건물을 보존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조이후 경운궁은 역사의 전면에서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경운궁은 영조대에 이르러 몇 차례 기록에 등장하는데, 1748년(영조24년) 경운궁에 가서 어제(御製, 임금이 몸소 지은 글) 4편을 내렸고, 1769(영조45년)년에는 '대학연의(大學衍義)'(대학의 깊은 뜻과 그 이치를 해설한 책)를 행했고, 1770년에 이어 1773년(영조49년)에는 환도 3주갑(3周甲, 180년)을 기념하여 경운궁에 임어하기도 하였다. 경운궁은 고종에 의해서도 기억되었다. 고종황제는 1904년 대화재로 즉조당과 석어당이 소실되자, 즉조당과 석어당 보존의 뜻을 새기고 의미를 기리기 위해 서까래 하나 바꾸지 않고 소중하게 보존해왔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난 극복의 상징적 장소였던 경운궁이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은 개항과 함께였다. 1876년 개항이후 서울은 국내외 각 세력이 힘의 각축을 벌이면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1876년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일본공사관이 조선에 설치되었지만, 그 위치는 도성 밖이었다. 이는 도성 내에 외국인의 거주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만 해도 조선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제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도성 내 거주 문제는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달라졌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1차 왕자의 난.
2) 성종의 셋째 아들



〈그림 2〉 정동지역 공사관 위치도

1882년 5월 22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때 조약은 강화도조약의 불평한 점이 개선되어 양국간의 지위가 상호간에 동등하게 처리되었고, 이는 이후 서양 각국과 조약체결의 기준이 되었다.

1883년 5월 조미조약에 따라 미국의 푸트(Lucius H. Foote)공사가 부임하면서 공사관이 개설되었다. 외교타운 정동의 시작이었다. 이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이들 국가의 공사관이 순차적으로 정동에 자리 잡았고 정동은 명실상부한 외교타운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행보는 유럽국가와는 달랐다. 일본이 1876년 조선과 제일 먼저 국교를 수립되었지만, 1880년 12월 17일 공사관은 도성 안이 아닌 서대문 밖 청수장(현 금화초교 위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공사관은 1882년 임오군란으로 소실되었다. 일본이 다시 자국의 공사관을 지은 것은 1884년 11월 3일 지금의 천도교 중앙교당 주변인 경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공사관은 다시 1884년 12월 7일 갑신정변으로 소실되었고, 안전을 고려한 일본은 1885년 1월 12일 왜성대로 공사관을 옮겼다. 서대문 밖에 자리 잡았던 일본공사관이 임오군란으로 소실된 것을 기회로 서양의 공사관을 따라 도성 안으로 공사관을 옮겼으나 갑신정변으로 또 다시 공사관이 소실되면서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던 남산의 북측 산록으로 들어간 것이다.

1882 미국에 이어 같은 해 청국과 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이태리와 러시아 그리고 1886년에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중에서 중국은 현 명동에 공사관을 설치하였으나, 서양 국가들은 예외 없이 정동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왜? 정동이었을까?

서양 국가들이 정동에 자리 잡은 이유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정동이 아닌 개항 당시의 정동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과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정동은 서울의 중심가로인 세종대로[3]에 인접해 있어 물리적으로 서울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개항 당시에 광화문 네거리는 육조거리와 종로가 'T'자로 만나는 곳으로 태평로는 없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동은 도성의 간선도로인 종로와 남대문로에서 벗어난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태평로는 1897년,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남대문로와 정동을 연결하는 소공로는 환구단이 조성된 1~2년 후에 개설되었다. 〈그림 3〉과 같이 개항 당시 종로와 남대문로에서 떨어진 정동의 입지는 물리적인 중심과는 거리가 먼 비교적 한적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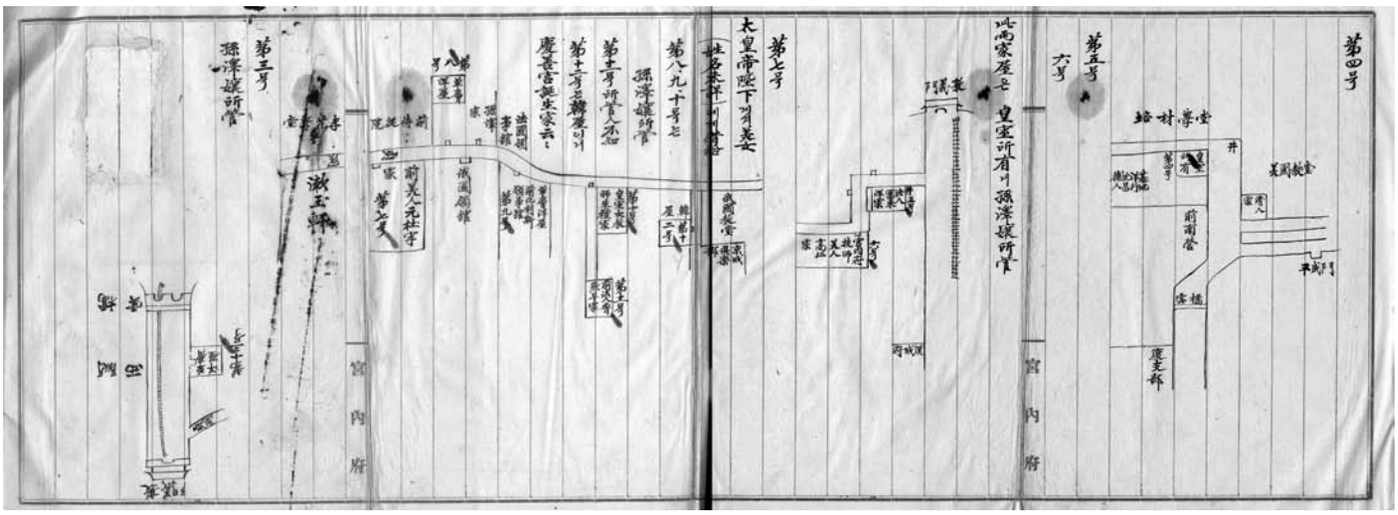
〈그림 3〉 개항 당시 도성의 도로구조와 정동의 입지

이와 같이 간선도로에서 떨어진 정동의 입지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도성 내에서 자유롭게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의 낯선 풍속에 우리의 미풍양속이 훼손당하는 것을 막고, 그들의 행동거지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동 주변에는 수어청(守禦廳, 조선시대 군영으로 1894년에 폐지됨)과 군기시(軍器寺) 등 정부 소유의 땅이 많아 정부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곳이었다. 동시에 정동의 입지는 외국인들의 이해에도 맞았다. 이역만리 낯선 나라에서 수적으로 적은 자신들의 안위를 확보하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필요가 있었다. 비록 대로에 면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와 행정 중심인 경복궁과 육조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시에 서소문과 서대문에 인접한 탓에 도성 밖으로 피난하기에도 유리한 입지였다. 따라서 정동은 조선정부와 서양의 각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나라 중에서 청국과 일본국의 공사관 은 정동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국의 공사관은 일인들이 모여 사는 남산에 자리 잡았고, 청국의 공사관은 남대문로에 면한 도심의 요지에 자리 잡았다. 일본국과 청국이 독립적으로 공사관의 입지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은 남산의 북측산록에 자국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청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조선에 대해 지켜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

3) 2010년 종로구의 세종로와 중구의 태평로를 합쳐 세종대로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그림 4〉 정동길 주변의 외국인과 한인 소유건축현황이 조사되어 있다. 출처: 서울대 규장각 소장 조복문서

표 1 서울 거주 외국인 통계

국적	독립신문/ 1897년 4월 1일				대한매일신보 1910년7월15일
	남	여	합	가옥수	
프랑스	23	5	28	7	57
러시아	56	1	57	22	12
독일	6	3	9	7	19
미국	47	48	95	40	131
영국	25	12	37	41	88
청국	1,246	37	1,273	10	2,036
벨기에					1
일본국	1,035	723	1,758	640	
	2,428	829	3,257	767	

심의 대로변에 자리 잡은 것이다.

국가 간에 통상조약이 체결되면 정치적인 외교관계 외에 교역이 이루어지므로 교역을 위한 항구와 외국인의 자국 내 거주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그렇다고 외국인의 거주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거주는 항구도시와 수도의 경우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되고, 제약의 강도에 따라 조계지가 설정되거나 일정한 지역 내 거주가 허락되지 않기도 한다. 통상 조약 체결 후에 외국인의 도성 내 출입은 허용되었지만, 상시 거주가 한 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882년 미국 및 청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도성내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되면서, 외국인 집단 거류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897년 독립신문과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도성 내 거주 외국인의 통계를 살펴보면 청인과 일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서구 국가의 거주인들은 모두 합쳐도 청인이나 일인의 반도 채 안 되는 작은 숫자였다. 따라서 도성내 외국인의 거주지 역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다.

일인들은 남산의 북측 산록에 그들의 거류지를 형성하였고, 일본 공사관은 나중에 거류지 쪽으로 옮겨졌으며, 중국인은 비교적 도시 중심인 북창동과 서소문 그리고 수표교 근처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고, 서구인들은 정동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 중에서 서양인들의 집단 거주지의 형성에는 정동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각국 공사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각국 공사관의 존재는 북미선교사들이 정동에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고, 정동의 선교사는 정동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동은 육영공원과 배재학당 그리고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한 서양식 근대교육의 발원지가 되었으며, 가톨릭, 개신교, 러시아정교회, 성공회를 비롯하여 구세군까지 자리함으로써 정동은 외교타운이자 동시에 선교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료선교 차원에서 시병원과 보구여관이 세워졌으나, 보구여관이 동대문으로 이전하면서 정동에서 의료선교의 역할은 크게 약화되었다.

외국공관의 수수께끼! 일본 영사관과 미국공사관

공사관은 한나라의 국력과 문화적 역량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정치색이 짙게 배어 있는 건축물이다. 국가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상대국가에 자신의 국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을 지닌 국가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역량을 드러내곤 하지만, 가장 일

〈그림 5〉 영국공사관 초기모습

〈그림 6〉 러시아공사관 초기모습

〈그림 7〉 독일공사관 초기 모습

반적인 것은 공사관이나 영사관 건축을 통해 자국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대사관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국력과 문화적 수준은 물론 주재국이 자국에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구국가들의 대사관이 밀집해 있던 정동은 대사관 건축의 진열장이자 대한제국에 대한 자국의 관심사와 자국의 능력을 전시하는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한옥공사관!

정동에는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미국공사관에 이어 영국공사관, 프랑스공사관, 러시아공사관, 독일공사관 등이 차례로 정동에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외국 공관들은 초기에는 한옥을 사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자국의 공사관을 새로 지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공사관은 달랐다.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공사관(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벨기에 등)은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으로 지어졌지만, 미국의 경우 처음 공사관을 개설했을 때 사용했던 우리의 전통건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이 정동에 자리 잡으면서 한옥을 구입하여 공사관으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에서 파견한 초대공사 푸트(Lucius H. Foote)가 조선에 도착한 것은 1883년 5월 12일이었다. 당시 푸트공사 일행은 독일인 묄렌도르프(1847~1901) 집에 머물다 정동의 민씨 일가의 집을 사들였다. 이것이 정동지역이 서양인의 집단 거주지로써 외교타운 정동이 탄생하는 시작이었다. 한성부 기록에 따르면, 푸트공사는 민영교의 기와집 141칸과 빈 대지 250칸, 민계호의 기와집 120칸과 빈 대지 300칸, 김감역의 기와집 9칸과 초가집 6칸 및 빈 대지를 사들였다. 그런데 미국은 가장 빠른 시기에 상당한 규모의 가옥과 대지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와 달리 공사관을 새로 짓지 않고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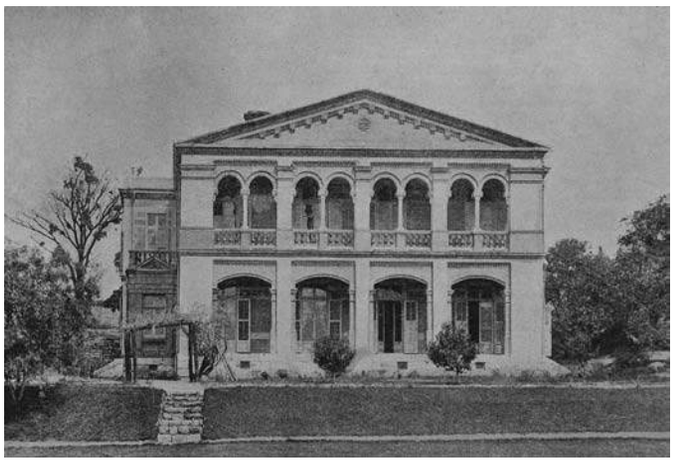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렌(Horace N. Allen)은 조선견문기(Things Korean, 1908)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의 대표자를 수용하기 위해 미국의 공사관보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조선 고관의 집이었던 이상한 모양의 아름다운 방갈로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고 적고 있다. 자신들의 건물이 비록 황궁에 인접해 있고, 부지가 넓고 쾌적하지만 건물 자체는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비하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초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알렌의 기록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건물이 구입 당시의 조선의 전통건축이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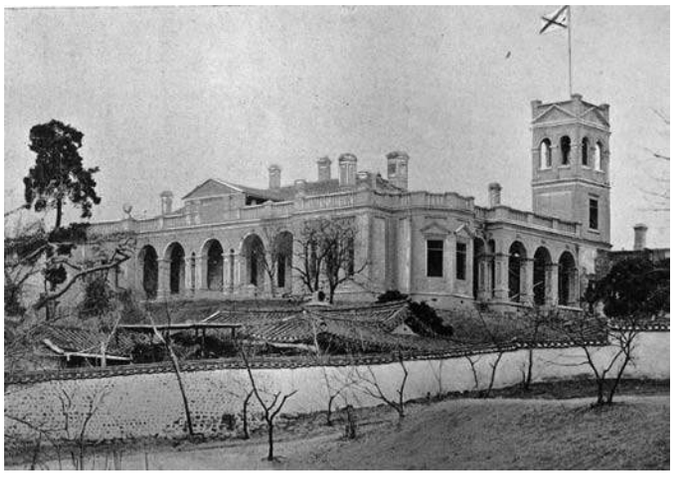
이에 반해 1900년 2월 24일부터 1904년 러일전쟁 발발 때까지 외부 고문관으로 활동했던 샌즈(William Franklin Sands, 1874~1946)는 '비망록(Undiplomatic Memories)'에서 전통건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공사관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미국공사관이 서울에서 가장 편안한 곳 중의 하나이며, 청국인 청부업자들이 유럽건축을 모방하여 지은 러시아, 프랑스, 일본과 영국공사관 건물들은 칙칙하고 음울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공사관이 '조선의 전통건축을 잘 다듬어진 화강암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세워 올린 건물이며, 벽체가 진흙이나 벽돌로 되어 있어 기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으며, 육중한 참나무나 밤나무 대들보로 받쳐진 지붕은 수 톤의 흙으로 채

〈그림 8〉 한옥의 미국공사관

〈그림 9〉 미국공사관 대문



〈그림 10〉 영국공사관



〈그림 11〉 러시아공사관

워서 높이 올리고 그 위에 기와를 씌워 놓아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강추위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샌즈가 우리의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알렌은 조선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면서, 주한 미공사관의 지위가 영사관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건물을 짓지 않은 것은 잘 한 일이라고 기록한 내용은 미국정부가 새 공사관을 짓지 않은 것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예견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비록 알렌은 결과적으로 새 건물을 짓지 않은 일을 잘 한 것으로 언급하였지만, 새 건물을 짓지 않은 것은 미국정부 입장에서 이미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일본과 이해관계가 일치했었기 때문이었다. 1905년 9월 9일에 한국을 방문한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인 엘리스 루즈벨트 일행의 아시아 순방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후의 일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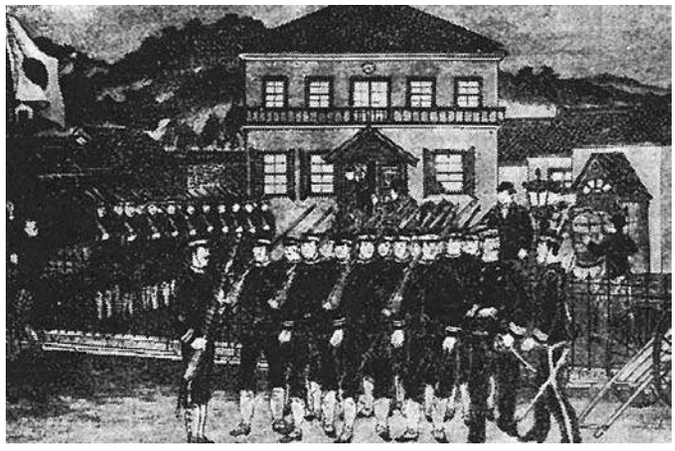
당시 미국공사였던 알렌의 이러한 기록은 알렌이 외교관으로서뿐 아니라 의료선교사로 입국하여 이 땅에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립하는 등 조선과는 남다른 인연을 갖고 활동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혹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국이 우리의 전통건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판단한 대한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낮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한국을 사이에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러시아와 영국은 각각 가장 좋은 위치에 최대한의 공사관을 지었다는 사실은 서울에 위치한 유럽 각국의 공사관 건축의 입지와 규모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아 새 공사관을 짓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옛 공사관이 미국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울시 유형문화제 제 132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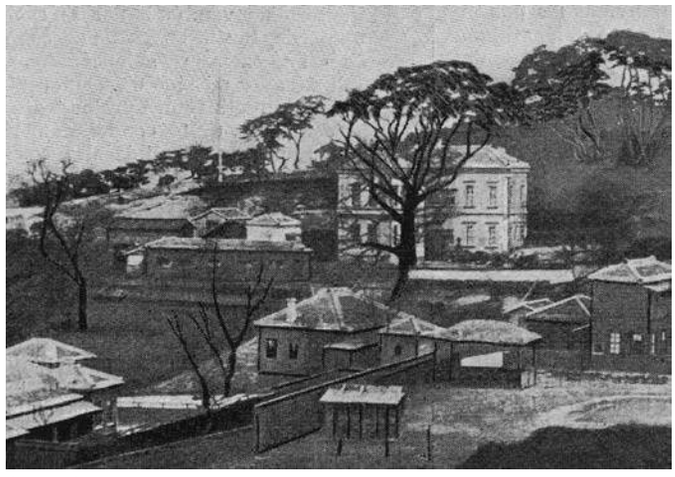
일본공관의 고전주의 건축양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 공관건축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공사관과 영사관이 일본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지지 않고,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에 따라 지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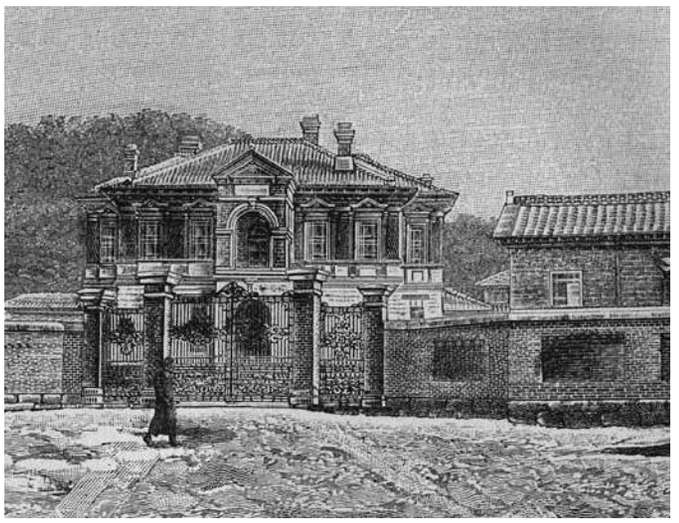
일본은 청수장을 시작으로 경운동과 남산에 공사관을 지었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남대문로에 인접해서 영사관을 지은 바 있어, 외국 외교공관 중에서 가장 많은 건물을 지은 일본이지만, 한 번



〈그림 12〉 일본공사관, 경운동



〈그림 13〉 일본공사관, 남산



〈그림 14〉 일본영사관

도 자국의 건축양식으로 짓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도성 내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서울 시민에 대한 노출 비중이 큰 영사관의 경우, 영사관보다 건축의 격이 높은 남산의 공사관 보다 건축양식의 완성도가 더욱 높았다. 이와 같이 일본이 공사관과 영사관 건축에서 자국의 건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콤플렉스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서양콤플렉스에 기초한 탈아입구(脫亞入歐)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어 한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함이었다. 개항 이전에 오랫동안 우리로부터 문화를 전수 받았던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전통건축으로 자국의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짓는 것으로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국의 건축양식 보다는 서양의 건축양식으로 공사관과 영사관을 지음으로써 문명화된 자국의 문화적 역량을 한국에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들이 유럽국가와 동등한 힘을 가진 실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이 유럽국가와 달리 정치적 색채가 강한 외교공관 건축에서 자국 양식을 채택하지 않은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콤플렉스와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타운의 사교장, 손탁호텔

한편, 각국 공사관이 정동에 밀집하면서 자연스럽게 각국 공사관과 한인들이 친교의 공간이 생겨났다. 손탁호텔이다. 프랑스 태생의 독일인이었던 앙투아네트 손탁(Antoinette Sontag, 1854~1925)이 운영했던 호텔로 정동에 위치한 외교공관의 클럽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1885년 러시아 공사 웨베르(Carl Ivanovich Waeber)를 따라 32세의 나이로 서울에 온 손탁은 독어, 불어, 영어에 한국말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덕에 당시 외교가와 궁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손탁은 정동 외교가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대한제국기인 1902년 10월에 개관한 손탁호텔은 1888년 10월 이후 미국인 선교사 다니엘 기포드(Daniel Lyman Gifford)의 집이었으나, 1896년에 손탁이 이를 매입하여 새로 건물을 지었다.

손탁빈관(孫澤賓館) 또는 한성빈관(漢城賓館)이라고도 불린 이 호텔은 황실(Imperial Household)의 프라이빗 호텔(Private Hotel)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1층에는 식당과 일반객실이 위치하고, 위층에는 귀빈들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1910년대 광고 문안에 따르면 손탁호텔에는 '각방에 욕실이 딸린 25개의 객실이 있고, 바(Bar)와 대형 당구장이 든 별관'이 갖추어져 있었다. 여기에 프랑스인 요리장이 감독하는 식당과 널찍한 정원도 자랑거리였다. 그리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각국의 언어로 접객이 가능하고, 통역자, 가이드 질꾼, 흘마의 제공도 가능하였다고 한다. 주요 정치인물이나 주울 주재 외국인들의 교류장소로 널리 사용되었던 손탁호텔을 손탁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1909년 팔레호텔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명맥만 유지되던 손탁호텔은 1917년에 부지가 이화학당으로 넘겨진 후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나, 1922년 프라이홀 신축을 위해 철거되었다. 한편, 대한제국의 목줄을 죄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기 위해 경운궁 옆에 숙소를 잡았던 곳도 바로 손탁호텔이었다.

〈그림 15〉 손탁호텔

협회소식

제12회 이사회

2013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정관개정의 건, 2013년도 실천계획(안)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국토해양부 연구용역에 대한 TFT 구성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재경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문서규정 개정의 건, 회관 업무공간 사용의 건, 경남건축사회 폐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광고료 미수금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건축자재추천 TF팀 구성 추인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 오늘 논의 또는 건의된 내용등을 종합 정리하여 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고, 기획위원회에서는 동내용을 검토 ·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주요의견내용〉

위원회의비 감액조정(위원회 구성을 7~8명으로 편성)

▷ 건축사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사업비 반영

▷ 증액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예산을 '12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

▷ 감액된 회원동호회 활동지원금을 '12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

▷ 출판사업비 부문 예산을 '12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하되, 편집위원회 회의비등 반영

▷ '임원업무활동비'에 통합한 기밀성경비 '판공비'를 '12년도 예산과 같이 분리 편성

▷ 노후된 업무용 차량을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9인승 정도의 차량으로 구입 또는 렌트 검토

▷ 친환경건축연구원 일반회계 지원금 및 연구용역 수입 등에 대해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

▷ 전시사업팀장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거나 건축자재전시 사업수익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검토 등

• 제2호 : 정관개정의 건

– 2012년도 제12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47회 정기총회 정관개정(안)중 아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임원의 임기변경 :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반대 : 정익현 이사)

▷ 추대회원 : 추대회원 자격 변경

– 정회원 자격을 25년 이상 유지한 만65세 이상인자 → 정회원 자격을 30년 이상 유지한 만65세 이상인자

• 제3호 : 2013년도 실천계획(안)의 건

– 실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수정 · 보완한 후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4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함.

• 제5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회장예비후보자의 현직 사임문제나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거론하지 않기로 함(필요시, 당사자가 선관위에 이의신청).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문제는 최근 2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 선거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논의하지 않기로 함.

• 제6호 : 국토해양부 연구용역에 대한 TFT 구성의 건

– 실내건축 관련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TF를 한시적 ('13.1~2월)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재경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문서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회관 업무공간 사용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경남건축사회 폐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광고료 미수금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건축자재추천 TF팀 구성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추인하되,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하기로 함.

▲기타사항

• 현행 감사규정이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위원회에서 감사규정 개정(안)을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 집행위원회 합동회의

제2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 집행위원회 합동회의 가 지난해 12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예산집행결산 심의의 건

– 광주건축사회에서 세입 · 세출내역중 광주건축사회 회원사 후원금중 미수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기 이사회('12.12.12) 이전까지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리한 후 결산내역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의 경기도건축사회의 사례를 들어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건축사회(광주)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또한, 대회 결산잉여금이 금액이 크든 작든 동일한 기준(주관건축사회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또는 전액 본협회 잡수입조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함.

• 기타사항

–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개선할 부분(개회식 후 회원들의 대회장 이석문제, 교육장 좌석문제, 퍼포먼스 위주의 행사내용 등)도 있었던 만큼 차기 대회에서는 회원들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제12회 법제위원회

제1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법제활동계획에 관한 건

– 기존 제출한 법제 관련 위원회 예산에 따라 활동하며, 건축설계도서의 정비 문제는 대가기준 연구에 포함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합의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각 위원이 의견이 있는 경우 7일(금)까지 사무처에 송부하고 사무처에서 취합하여 건의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① 미관지구 건축물 외장변경 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 소방 관련법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협의를 받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조항을 확인하여 안내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소방 관련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함을 기재하기로 함.

②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관련 법령개정에 대하여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이중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초고층특별법 및 건축법에 대해 미리 검토하여 향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대지안의 공지 국토부 지침에 대하여

– 대지안의 공지 관련 국토부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하기로 함.

■ 제7회 전통건축 TF

제7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옥 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 준비의 건

– 좌담회 토론내용을 작성하여 전통건축 TF위원회 위원들이 보완 · 수정하여 한옥관련 책자에 수록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로 함.

▷ 좌담회장소 점검을 하고, 참석요청 문자를 서울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 함.

▷ 건축사의 실무교육 인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한옥관련 책자에 수록 될 작품을 추가하여 수집하기로 함.

– 2013년도 전통건축 TF위원회 업무의 건

▷ 2013년도 전통건축 TF위원회의 업무를 제도개선, 전통건축 설계 능력 증진, 도서발간, 전통건축 문화계승으로 정하기로 함.

– 전통건축 TF위원회 추진보고서 작성의 건

▷ 추진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회의 때 협의하기로 함.

■ 제9회 정책위원회

제9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토론회 개최준비의 건
– 오늘 오후에 있을 대한건축사협회 정책토론회 진행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실천계획(안) 검토의 건
– 2013년도 실천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11회 국제위원회

제11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해외교류단체 교류계획의 건
– 초청 및 방문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MOU 등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초청대상으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47회 정기총회(13.2월) 시 AIA 회장 초청을 제안
▷ 정기총회와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 초청 국가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
▷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장은 초청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제안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에만 해외교류단체 회장을 초청하여 해외단체장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
• 제2호 : 2013년도 명예회원 추대의 건
– 본협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 명예회원증 대상자로 선정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신춘규 국제이사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제위원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하기로 협의함.
• 제3호 : 몽골건축사협회(UMA) 정례교류 추진의 건
– 한 · 몽간 MOU 실행계획서(Working Plan) 개정 초안을 이승석, 이근창 위원이 작성하고, 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협의함.
▷ MOU 체결 공통사항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기로 함.
▷ MOU 체결 국가별 담당 위원이 실행계획서 기준(Working Plan Standard)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고,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 및 보완하기로 협의함.
▷ 유럽건축사협의회(ACE) 및 멕시코건축사협회(FCARM)와의 교류는 유보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신춘규 국제이사)

■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안 협의의 건
–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검토하여 '협회 재정여건' 부문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하고, 세부 예산편성지침안은 각 회계별 예산안 편성결과에 따라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함.
• 제2호 :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 검토의 건
– 각 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차기회의시 세부예산안과 추가 요청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축조 · 심의하기로 함.

■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회의비~조사연구비)에 대한 예산안을 1차 축조 ·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함.

■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국제사업비~출판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1차 축조 ·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함.

■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홍보사업비 이하) 및 친환경건축연구원 사업계획 예산안

을 축조 ·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함.

■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기금관리운용회계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1차 심의 조정함.

– 아울러, 제2~4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주요 세출예산안과 건축연구원회계 예산안을 재차 심의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안을 잠정 결정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키로 함. 단, 직원 복리후생비 대하여는 위원장이 기획위원회에 건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12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2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안(광장, 골목길,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을 아래와 같이 검토 · 보완 및 확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12월 10일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차기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대한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함.

■ 제13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3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완하여 세미나 전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 대전시 신문에 홍보가 될 예정이고, 세미나 개최시 신문사 취재가 있을 예정임.

▷ 좌장은 두는 것으로 진행하며, 내빈소개는 위원장이 담당함.

▷ 위원장 인사말은 짧게 2분정도로 진행하고, 담당이사 인사말을 추가함.

▷ 세미나 1부와 2부 사이의 쉬는 시간은 따로 두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함.

▷ 경과보고는 신경선(사회자)위원이 간략하게 진행함.

▷ CG는 컬러링 작업을 재수정하여 세미나 전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함.

▷ 세미나 리허설을 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세미나 전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함.

■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장학사업 결정의 건

– 2013년도 장학사업을 결정함.

• 제2호 : "(가칭)건축문화장학재단" 설립의 건

– 원안과 같이 추진키로 하되, 재단의 명칭은 제42회 정기총회('08. 2.27)에서 의결받은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으로 하기로 함.

■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세부사항의 건

–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함.

• 제2호 : 질의사항 검토의 건

– 예비후보자의 창립기념품 배포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서 선거운동 금지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결정함.

■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 소위원회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의 건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등 총 7개 기관 33개 과정 중 28개 과정 인정, 5개 과정을 불인정함.

■ 제7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7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의 건

– 제6회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구성된 실무교육인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대상 총 7개 기관 33개 과목에서 28개 과목을 인정하고 건축사전문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5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인정되지 못한 과목을 교육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여 내년도에는 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로 하고 통보문서의 내용은 김윤위원이 검토하기로 함.

– 시 · 도 건축사회 및 건축사교육원의 교육은 건축사교육원의 심사 후 등록원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일정이 촉박하므로 12.26일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등록원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 송부하여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견이 없으면 12.28일 국토부에 승인요청하기로 함.

• 제2호 : 자기계발 인정의 건

– 건축사교육원에서 제출한 자기계발 인정신청은 각 1시간씩 인정하기로 하나 대전건축사회 송년행사 및 전남 건축인의 밤은 행사시 시행한 교육내용을 회원교육 1, 2로 명칭 변경하여 표기토록함.

– 건축사 개인이 신청한 제7회 건설감정 · 건설분쟁포럼은 1시간, 제11기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과정은 2시간을 자기계발로 인정하기로 하며, 교육시간 인정기준은 당일교육은 1시간, 2일이상의 교육은 2시간으로 정함.

▲기타사항

• 건축단체 질의서에 대한 의견서의 건

– 김항년위원이 개인명의로 건축문화신문에 기고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각 이사 및 위원장들께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함.

■ 제3회 사업소위원회

제3회 사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2013 추진계획의 건

– 차년도 사업위원회 구성

▷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업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시회 참여율이 낮은 경상도 지역의 위원 참여를 독려하여 워크숍 전까지 구성함. 단, 사업단장 및 부단장은 차년도 신임회장 취임 후 위촉키로 함.

– KAFF2012 워크숍 및 참여자

▷ KAFF2013 사업활성화 방향 설정을 위해 전시사업워크숍을 차년도 2월중으로 추진함.

– 전시사업설명회 및 홍보브로셔 등 1~2월 광고홍보 계획 등

▷ 과년도 진행일정을 참조하여 홍보를 추진키로 함.

• 제2호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TF팀 구성 및 심사운영의 건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TF팀 구성

▷ 팀장 1인, 팀원 5인으로 구성하되 팀장은 사업위원장(서용주), 팀원 1명은 사업위원(김은철)로 하고 심사의 공신력을 위하여 팀원 4명은 외부인사(수도권 거주자)로 구성키로 함.

※ 외부인사 추천대상(SH공사, 친환경아카데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차심사 및 추천서 교부일정

▷ 올해 12월중으로 TF팀 구성 및 1차 심사를 개최하고 차년도 1월중으로 2~3회 심사 및 자재공람까지 추진키로 함.

■ 시 · 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

시 · 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가 지난해 12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내용

• 건축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4시간)이 지방순회 교육가능한지? (대구, 전북)

– 가능한 사이버교육을 활용하여 교육가능 하도록 교육원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13년도 예산에는 6회의 지방순회 교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건축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행하겠음.

• 2013년도에 각시 · 도건축사회 실무교육 인정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 하여 건축사회를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은지? (서울)

– 시행초기에는 교육관리프로그램 개발비 등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2013년에는 교육원에서 4시간의 교육을 시행해야 함.

– 따라서 2013년도에 한해서 4시간으로 정했고, 교육인원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사회 실무교육 인정시간을 점차 증가시켜 건축사회의 실무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임.

• 지역이 광범위하여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건축사회는 사이버교육으로 전문교육 8시간을 교육 받아도 인정 가능한지? (강원)

– 전문교육 8시간을 사이버교육으로 교육받아도 인정 가능함.

– 건축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원에서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인정됨.

• 지역이 광범위한 건축사회는 윤리교육 1시간 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윤리교육을 시 · 도건축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인지? (강원)

– 건축사회에서 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안내한 것이며, 의무는 아님. 건축사회에서 윤리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들으면 됨.

• 건축사회에서 교육 시행시 무조건 시간당 3,000원/인을 건축사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 이용료로 납부하여야 되는지? (전북)

– 실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교육인정 시간당 3,000원/인을 납부하면 됨.

• 건축사에서 전문교육시 1회 교육시 교육인원이 제한이 있는지? (대구)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1실당 60~70명을 권장함. 참고로 타 교육기관이 등록원에 신청한 내용을 보면 교육인원이 60명 이하로 제안되었음.
• 교육원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강원)
– 2013년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윤리교육의 교육원칙, 내용, 방법이 무엇인지? (충남)
– 교육과정개발연구용역 중간발표 내용이 나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시 · 도건축사회로 안내 하겠음.
• 2013년도 실무교육인정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충남)
– 11월 23일이 제출 마감일이었으며,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건축사회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2013년도 실무교육인정신청 후 변경가능한지? (충북, 전북)
– 건축사등록원 회의 때 변경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현재까지 각 시 · 도건축사회에서 행사와 연계하여 전문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인정 신청을 하면 전문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대전)
– 2012년도에는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한 산업대전, 건축사대회와 연계하여 실시한 교육 중 전문교육1시간, 윤리교육 1시간만 인정하기로 하였고, 건축사회에서 요청하는 실무교육은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자기계발로 인정하고 있음.
• 출석확인 등 교육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7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바람(제주)
– 출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노트북, QR코드리더기, 싸인패드, 고속스캐너-약700만원)의 세부내역을 정리하여 각 시 · 도건축사회로 안내하기로 함.
– 구입이 필요한 필수 장비는 QR코드리더기와 싸인패드이고, 나머지는 건축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도 가능하며 교육이 많지 않은 경우 임대도 가능할 것임.
• 시 · 도건축사회에서 자체 온라인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교육시 지역으로 분배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사용 최소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온라인 교육은 동시접속 가능자 수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의 차이가 많아 현시점에서는 확정하기 어려워 추후 교육원과 협의하여야 함.
• 시 · 군 · 구 지자체나 타교육기관에 위임하여 교육할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건축사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경우 인정 가능함.
• 5년 동안 총 60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년에 실무교육 최대 인정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할 때, 만약 5년이 지난 후 실무교육 미이수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면 전부 인정이 되는지?
– 5년 이후에는 1년에 최대 20시간인정이라는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20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도 전부 인정이 되지만 교육이수 완료시까지 업무를 할 수 없음
• 개인이 자기계발 인정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 개인적으로 자기계발 활동을 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자기계발인정신청서 작성 후 개인이 건축사등록원에 제출해야하고, 건축사회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결과를 건축사회에서 일괄로 교육원에 제출하면 됨.

■ 제5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5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의 건
–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친환경건축설계 전문가 양성정규과정은 2012년도에 한해서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2013년도에는 전문교육 4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이에 따른 일정비용을 받기로 함.
– 부산건축사회(부산공간포럼,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공공건축포럼), 울산건축사회(회원간담회 및 권역별 해외건축물 탐방 보고회), 대한건축사협회(정책토론회, “한옥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 세미나)참석은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점검에 관한 건
– 홈페이지 시안 관련하여 빠른 시간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컬러를 달리해 표현하기로 하고, 수직 수평 시각적인 차이를 주어서 표현하기로 함.
– 인의식 위원과 네오그라프 홈페이지 시안담당자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정보완 하기로 함.
• 제3호 : 2013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서에 관한 건
– 2013년도 건축사교육원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서 제출 관련하여 동정근위원이 제출한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계획서“에 따라 건축사 등록원에 제출하기로 함.
– 시 · 도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서 교육과목 중 윤리교육이 누락된 시 · 도건축사회는 윤리교육을 추가하여 건축사 등록원에 제출하기로 함.

■ 제1회 기획위원회

제1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의 건
– 직선제의 당위성, 효율성, 선출방법 및 비용에 대한 검토(안)를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충분하게 홍보한 후 정관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개정 이유 제안서등 추진(안)은 소위원회에서 집중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원에게 홍보

• 제2호 :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향후 추진계획의 건
–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른 협회 조직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검토 진행.
▷ 제안서를 각 아이템별로 분석 후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협회 운영(사업 및 조직)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키로 함.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 분담.
• 제3호 : 경기도건축사회 회칙 검토의 건
– 경기도건축사회 회칙 중 회원 구성부분은 본협회의 정관 취지 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하기로 함.
▷ 2008년도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내용에 의거하여 정관에 위배되는 조항(회원자격, 입회 등)을 개정토록 권고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복지회의 자격 및 입회조건을 두는 것이 타당함.
• 제4호 : 문서규정 개정의 건
–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은 현행 문서규정을 보완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5호 : 재경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재경위원회 규정을 기획위원회 규정으로 개정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기타 정관에 명시된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키로 함.
• 제6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제출안으로 이사회에 협의안으로 제출하되,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고교생 자녀학비보조금을 신설 · 반영하도록 함.

2012년도 건축사지격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 결과가 지난 1월 4일 발표됨에 따라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교부식이 개최됐다.

이날 자격증을 수여받은 최종합격자는 455명으로 남성 357명(78.5%), 여성 98명(21.5%)이다.

수여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험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텐데 이렇게 건축사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 건축사실무교육과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 한옥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포괄하는 '건축사교육원'도 협회 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공제조합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끝으로 "위기는 위태로운 가운데 다가오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다시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생각하시고, 건축사로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나가는데 길을 열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증 수여식에서는 남녀대표 및 과목별 고득점자 5명이 강성익 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안내 및 소양교육을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55명과 과목별 합격자 명단, 본지 통권 526호(2013년 2월호) 82페이지 참조〉

인천시건축사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과 '2012 건축행정 합동간담회' 가져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는 구랍 28일 '2012 건축행정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행정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조동욱 회장 및 임원 14명, 인천시 유영성 도시계획국장과 인천시 건축계획과 공무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동욱 회장은 건축심의제도를 비롯한 법적, 행정적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유영성 도시계획국장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 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울산시건축사회, 이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울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배기업)은 지난 1월 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사랑 나눔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배기업 회장은 "건축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은 그만둘 수 없다"며 "새해에는 울산시민 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안지역건축사회, 군장학재단에 기금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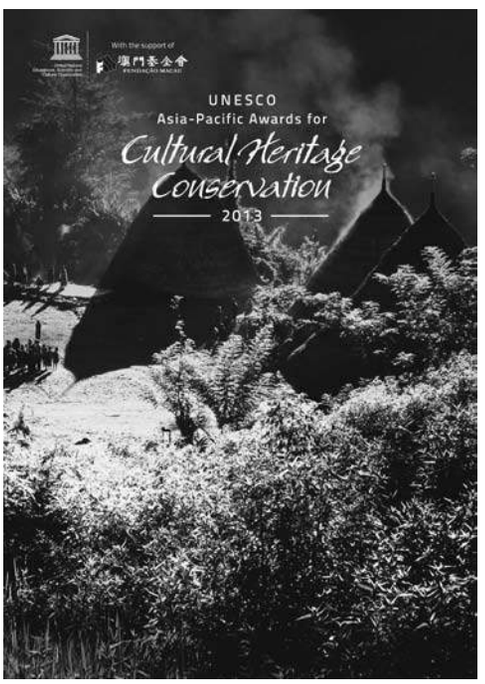
함안지역건축사회(회장 서유근)는 지난 4일 오전 함안군장학재단을 방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300만 원을 하성식 군수에게 기탁했다.

고성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

고성지역건축사회(회장 조영기)는 지난 1월 4일 고성군을 방문해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에 써 달라며 인재육성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건축계소식

201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 어워드



유네스코 방콕위원회가 주최하는 201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 어워드(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2013)는 민간분야 및 공공-민간 이니셔티브 내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유산(건축물, 장소)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업적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본 어워드는 마카오재단 지원 하에 유산구역 보존의 모범사례에 대한 인식증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 그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공모전 참가를 위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도면 및 사진 원본과 CD, 공식 참가신청서, 프로젝트 설명서, 사용자 의견서, 소유주동의서, 재산권인가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unescobkk.org/culture/heritageaward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3회 와이드AR 건축비평상 수상자 발표

제3회 와이드AR 건축비평상에 박정현 씨가 수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건축의 소음과 인문학의 침묵"으로 AURI 인문학포럼 논문공모에서 대상을 수여받은 바 있는 수상자는 이번 공모에 주평론 "서울시청사: 유리벽에 마주서다", 두 편의 단평론 "비평의 언어: '비평의 죽음' 이후의 글쓰기"와 "시장과 욕망의 변증법: 코엑스와 라페스타"를 응모해 수상하게 됐다.

격월간 와이드AR(발행인 전진삼)은 꾸밈건축평론상과 공간건축평론신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건축평론동우회(회장 함성호)와 손잡고 2010년 〈와이드AR 건축비평상〉을 제정해 신진 비평가의 발굴을 모색해오고 있다.

울산시건축사회, 이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울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배기업)은 지난 1월 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사랑 나눔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배기업 회장은 "건축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은 그만둘 수 없다"며 "새해에는 울산시민 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안지역건축사회, 군장학재단에 기금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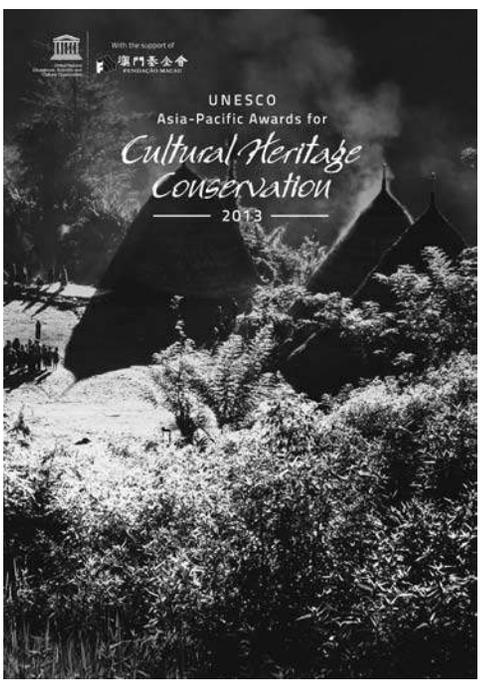
함안지역건축사회(회장 서유근)는 지난 4일 오전 함안군장학재단을 방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300만 원을 하성식 군수에게 기탁했다.

고성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

고성지역건축사회(회장 조영기)는 지난 1월 4일 고성군을 방문해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에 써 달라며 인재육성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건축계소식

201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 어워드



유네스코 방콕위원회가 주최하는 201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 어워드(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2013)는 민간분야 및 공공-민간 이니셔티브 내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유산(건축물, 장소)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업적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본 어워드는 마카오재단 지원 하에 유산구역 보존의 모범사례에 대한 인식증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 그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공모전 참가를 위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도면 및 사진 원본과 CD, 공식 참가신청서, 프로젝트 설명서, 사용자 의견서, 소유주동의서, 재산권인가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unescobkk.org/culture/heritageaward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3회 와이드AR 건축비평상 수상자 발표

제3회 와이드AR 건축비평상에 박정현 씨가 수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건축의 소음과 인문학의 침묵"으로 AURI 인문학포럼 논문공모에서 대상을 수여받은 바 있는 수상자는 이번 공모에 주평론 "서울시청사: 유리벽에 마주서다", 두 편의 단평론 "비평의 언어: '비평의 죽음' 이후의 글쓰기"와 "시장과 욕망의 변증법: 코엑스와 라페스타"를 응모해 수상하게 됐다.

격월간 와이드AR(발행인 전진삼)은 꾸밈건축평론상과 공간건축평론신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건축평론동우회(회장 함성호)와 손잡고 2010년 〈와이드AR 건축비평상〉을 제정해 신진 비평가의 발굴을 모색해오고 있다.

진교남_Chin, Kyo-nam |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3본부장

건축교육과 시대성

Spirit of time and architectural education

IAUS-Peter Eisenman과 교수진

University of Texas-Texas Rangers 교수진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걸쳐 유럽의 영향력 있는 건축지 「AR」(Architectural Review, 9월/영국)과 「DOMUS」(12월/이태리)에서 다급하고 다소 긴장된 어조로 현시대의 건축교육의 진부함과 변화에 대해 불감한 건축교육에 대한 경종을 알리는 '건축 대학 교육현황'에 대한 특집 이슈가 게재되었다.

1671년 정식 커리큘럼을 갖춘 건축교육이 프랑스 보자르(Beaux-Art)에 처음 설립된 이래 서양건축교육개념과 방식 속에는 단계적 변화와 진화가 있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 수많은 사회변화 속에 주기적인 사이클로 변화에 대한 자극이 있었다.

군주의 최고 권력 이행과 국가의 체계적 통치를 위해 설립된 보자르는 유럽과 미국 모든 건축교육의 기초가 되었지만 19세기말 산업혁명이란 변화에 'Arts & Craft School'이라는 대안을 낳았으며, 이후 효율과 기능으로 무장한 기계시대(Machine Age)의 사회는 바우하우스와 모더니즘이라는 이념으로 전 세계의 건축문화와 교육의 방향을 독보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시대에도 진행이 되었던 유토피아 이념적 'White Modernism'과 바우하우스식의 교육은 더 이상 시대적 배경과 교감이 없는 무의미한 교육으로 그 영향력은 점차 University of Texas('Texas Rangers' 교수진), Architectural Association(Alvin Boyarsky 학장) 그리고 Cooper Union(John Hejduck 학장)과 같은 건축의 새로운 발상적 근원을 찾으려는 실험적 교육중심의 학교로 전가되었다.

1968년 프랑스의 Unite pedagogigue d' Architecture no.6

Yale Architecture School 방화

대학에서는 새로운 시대와 학생의 요구를 묵인한 진부한 이념에 저항하여 폭력적 학생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혁의 불꽃은 1969년 미국 예일대학 건축 학생들의 방화 시위를 초래하는 거센 교육혁명의 요구를 불러왔다. 그리고 교육의 진부함을 비평하는 학원내의 기운은 교육내용과 시스템 비평을 넘어 건축이 무엇인지와 건축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 사고의 재검토와 건축문화 전반을 흔드는 다양한 실험적 교육 및 대안학교의 시도로 전개되었다. 1976년 이태리 건축사 Giancarlo de Carlo와 Team 10 멤버들이 이끄는 'Laboratory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과 Peter Eisenman과 Keneth Frampton 외 다수의 New York 건축사 중심으로 설립된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IAUS,1967-84)'가 그 예라 하겠다.

실험적 교육과 대안 학교는 활동배경이 되는 시대적 영향력에 비해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다는 점에서 전위적 운동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즉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이 새로운 자극을 창출하고, 그 자극의 영향이 또 다시 보편화가 되어가면서 자연히 변화의 원동력은 소멸 한다는 것이다. 진부한 교육의 불만이 실험적 교육의 발상을 낳고 성공적인 실험교육이 다시 신교육의 표준이 되어 그것이 진부함으로 이르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예와 같이 당연한 논리이라 하겠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기적 순환이 1960년대 서양의 폭력적 학생시위, 건축과 사회변화의 어그러지고 동떨어진 거리감 같은 심각한 상황을 거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학교와 교육자의 책임과 의무이며 이는 곳 한세대의 학생들이 당연히 (무력으로라도…)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미래가 걸린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캠퍼스라는 교육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 대학의 확장에 거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 기반 구축에 투자를 하고 있다. 온라인 대학이란 당연히 전문지식과 고등교육의 보다 광범위한 보급과 이를 유치한 대학의 막대한 수익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축교육의 기본인 스튜디오 방식은 이와 같은 개념의 교육과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어오던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 그리고 그 사이에 'Craft' 라는 숙련에 기본을 둔 스튜디오라는 시공간적 교육방법은 시대의 요구와 상반되는 교육방법적 문제에 직면한다.

20세기 전반, 건축사와 건축은 모든 응용 예술의 종합(Total Work of Art)이라는 이해 속에서 디자인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그 개념을 사회, 문화 그리고 산업적 응용과 영향을 주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Deutcher Werkbund) 이러한 입지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변화하는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쇠퇴하는 동시에 건축가의 사회와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영향력 또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10여 년 동안 디자인의 개념은 급기야 '상업적 설득력'이라는 단편적 개념으로 변조되어 왔고 건축교육과 학교들이 이같이 건축교육의 범주를 상실하고 있는 동안 최근 Havard Business School에서는 디자인과 상업경영 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제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과 이유의 기능보다는 상품성으로의 가능성에 중점을 둔 치장적 역할에 국한되기까지 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 건축계에서 변화와 진보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현시점에서 시사 하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건축인의 소명과 역할 속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볼 시점일 것이다.

발췌 참조 기사
http://www.architectural-review.com/essays/radical-pedagogies-in-architectural-education
http://www.domusweb.it/en/magazine/964/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12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859	5,859	91	182	8	24	5,958	6,065	1,712	1,712	226	452	57	171	27	108	19	124	2,041	2,567	7,999	8,632
서울	935	935	21	42	1	3	957	980	870	870	120	240	44	132	9	36	13	76	1,056	1,354	2,013	2,334
부산	502	502	11	22	2	6	515	530	118	118	24	48	0	0	3	12	2	15	147	193	662	723
대구	492	492	21	42	4	12	517	546	69	69	17	34	2	6	3	12	0	0	91	121	608	667
인천	284	284	3	6	0	0	287	290	66	66	6	12	1	3	0	0	0	0	73	81	360	371
광주	216	216	0	0	0	0	216	216	44	44	7	14	1	3	3	12	0	0	55	73	271	289
대전	264	264	6	12	0	0	270	276	32	32	6	12	4	12	1	4	1	13	44	73	314	349
울산	183	183	5	10	0	0	188	193	20	20	3	6	0	0	0	0	0	0	23	26	211	219
경기	817	817	2	4	0	0	819	821	243	243	18	36	3	9	2	8	1	5	267	301	1,086	1,122
강원	198	198	2	4	0	0	200	202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28	235
충북	227	227	2	4	0	0	229	231	37	37	4	8	1	3	2	8	1	9	45	65	274	296
충남	274	274	1	2	0	0	275	276	54	54	5	10	1	3	2	8	0	0	62	75	337	351
전북	260	260	5	10	0	0	265	270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4	306
전남	212	212	0	0	0	0	212	212	22	22	2	4	0	0	0	0	1	6	25	32	237	244
경북	394	394	4	8	1	3	399	405	39	39	4	8	0	0	0	0	0	0	43	47	442	452
경남	466	466	8	16	0	0	474	482	34	34	3	6	0	0	0	0	0	0	37	40	511	522
제주	135	135	0	0	0	0	135	135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1	152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632	100%	17
서울	2,334	27.04%	2
부산	723	8.38%	10
대구	667	7.73%	0
인천	371	4.30%	0
광주	289	3.35%	0
대전	349	4.04%	0
울산	219	2.54%	0
경기	1,122	13.00%	3
강원	235	2.72%	0
충북	296	3.43%	0
충남	351	4.07%	0
전북	306	3.54%	0
전남	244	2.83%	0
경북	452	5.24%	0
경남	522	6.05%	2
제주	152	1.76%	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3,854	928
서울	785	665
부산	390	28
대구	499	14
인천	299	3
광주	128	18
대전	174	16
울산	101	4
경기	686	26
강원	76	5
충북	112	28
충남	103	26
전북	179	7
전남	120	25
경북	64	4
경남	24	10
제주	3	8
기타	111	41
비고	회원 : 3,510/비회원 : 344	대학 : 827/대학원 : 101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065	2,567	8,632	
비율	70.26%	29.74%	100%	
사무소수	5,958	2,041	7,999	
비율	74.48%	25.52%	100%	